

건축사

2001 **03** vol. 383

취임사 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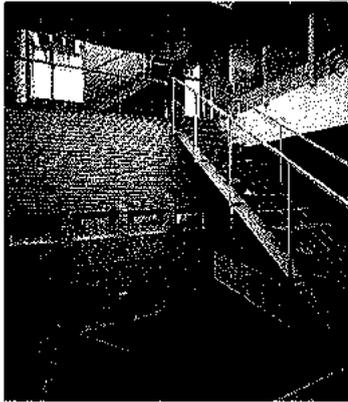
작품리뷰 현암사

건축기행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1)

해외건축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7)



차례 2001 3 383호



현암사(권문성 작)



발행인: 우남용
 편집분과위원장: 위원장 / 장양순
 위 원 / 김정희, 김홍수, 유원재, 조현근, 최동규
 편집·취재: 정효상,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hkjo@kira.or.kr hsjoung@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김종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 (주)한미당21 (02)702-1871~2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Kim Heung-Soo, Yoo Won-Jai,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취임사	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우남용	14
회원작품	홍&신 클리닉	이상림·강성인	16
	월드컵 상징 조형물	함인선	20
	원주시립박물관	한광호	24
	양평주택	김승희·강원필	28
	우이동 저층집합주택	신영식	32
	선두전자 일산공장	박남규	36
	평택 (주)하츠 제2공장	이재림	39
작품리뷰 / 현암사		권문성	42
	비평 : 흔재와 중첩·현암사와 은유적 맥락주의	임석재	52
	대담 : 전통건축의 교훈	전봉희	58
해외잡지동향			68
현상설계경기			74
건축기행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1)	김석환	92
해외건축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7)	한동수	100
연구	지구단위계획의 현황과 전망	최찬환	105
건축만평		유원재	110
건축마당	협회소식		111
	건축계소식		114
	전시리뷰		120
	회원현황		122

Address

The Primary Task of Overcoming Crisis	Woo Nam-Yong	14
---------------------------------------	--------------	----

Works

Hong and Sin Clinic	Lee Sang-Leem & Kang Sung-In	16
Design Emblem Structure of Worldcup	Ham In-Sun	20
Wonju Municipal Museum	Han Kwang-Ho	24
Yang-Pyong Residence	Kim Seung-Hoy & Kang Won-Phil	28
Low rise Apartment in Woodong	Shin Young-Sik	32
SUNDOO Entertainment Ilsan Factory	Park Nam-Kyu	36
The Second Factory of Haatz, Pyeongtaek	Lee Jae-Rim	39

Review / Hyunamsa Publishing Company

critique	Mixing and Overlapping : Hyunamsa and Metaphoric Contextualism	Yim Seock-Jae	52
interview	Learning from Traditional Architecture	Jeon Bong-Hee	58

Overseas Journal

Competition

Architecture Travel

The Pleasant Feel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Kim Suk-Hwan	92
---	--------------	----

Overseas Architecture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of China	Han Dong-Soo	100
---	--------------	-----

Study

Present Conditions and Observations of District Plan	Choi Chan-Hwan	105
--	----------------	-----

Cartoon

Architects' Plaza

KIRA News		111
Archi-Net		114
Exhibition Review		120
Members		122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일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31-5715~8
- 경남건축사회/517-3071 · 김포건축사회/486-7475 · 경북건축사회/809-3425 · 강서구건축사회/0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9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373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9-5781 · 도봉구건축사회/954-1253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미포구건축사회/330-526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9-149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6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8-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기일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3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2694-4121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양양지역건축사회/(031)419-2696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1)835-0545 · 용매지역건축사회/(031)857-6149 · 우천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831-8709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8163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26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충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체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8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3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8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8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8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6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26-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803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천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6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8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시지역건축사회/(064)733-8501

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The Primary Task of Overcoming Crisis

우남용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Woo Nam-Yong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면을 빌어 미려한 본인에게 대한건축사협회장의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데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며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임 회장으로서 주어진 2년의 임기동안 회원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집행부와 더불어 8천여 건축사의 생존권 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

아시다시피 오늘의 우리 건축계 안팎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건축경기 불황은 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안겨다 주었고, 이로인해 건축분야에도 구조개혁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연이은 규제완화정책과 건축관련 제도의 변화는 경제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건축사에게 숨들릴 여력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21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구도체제는 우리 건축설계시장의 문을 더욱 세차게 두드리며, 한국건축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흐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건축설계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여러 복잡한 상황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충격의 세기를 더해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전회원이 단합하여 위기극복의 지혜를 모아야만 합니다.

특히, 수렁에 빠진 건축설계업계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내재된 구조

적 문제의 본질을 찾아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우리건축의 체질을 스스로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협회 또한 새롭게 탈바꿈할 것입니다.

협회를 위해 회원이 존재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진정으로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협회, 회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협회만이 그 존재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향후 협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세심히 귀를 기울여 건축사업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차체에 전문가집단으로서의 본연의 기능과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협회의 회원관련 업무들을 전산자동화하고, 폐지된 도서신고제의 대안으로서 각종 실적증명 발급 및 기술인 인력관리 업무 전반을 개선·발전시키는 등 협회가 명실공히 건축계의 구심점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 건축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와 협약, 설계·감리 보수기준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주인 국민에게는 양질의 건축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건축사는 그에 상응하는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검사업무 대행에 따른 대가는 수수료가 아닌 기술용역비로 전환,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건축물 유지관리, 리모델링, 주한외국인 발주 설계·감리 업무 등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사의 역할과 업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당경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연간 건축사 과다배출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적정수준에 맞춰 인원을 축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각종 건축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회원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 '건축사신문'을 창간하겠으며, 우리 건축사의 단합된 모습과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회원상호간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들 신문창간과 전국건축사대회는 회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광고수입 및 협찬을 통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면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WTO에 의한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인증 문제에 있어서는 현업 건축사의 경우 UIA가 정하는 자격기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회원여러분!

비록 경제적 고충도 크고, 안팎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은 때입니다. 하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작금의 전환기적 상황은 우리의 제도약을 밝히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우리 건축사의 위상과 권익은 그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의 단결과 노력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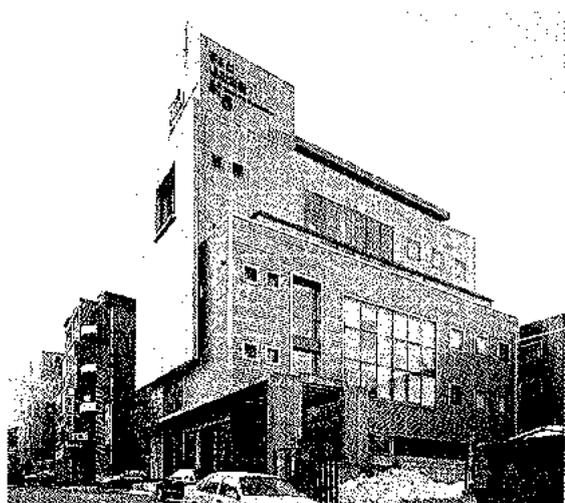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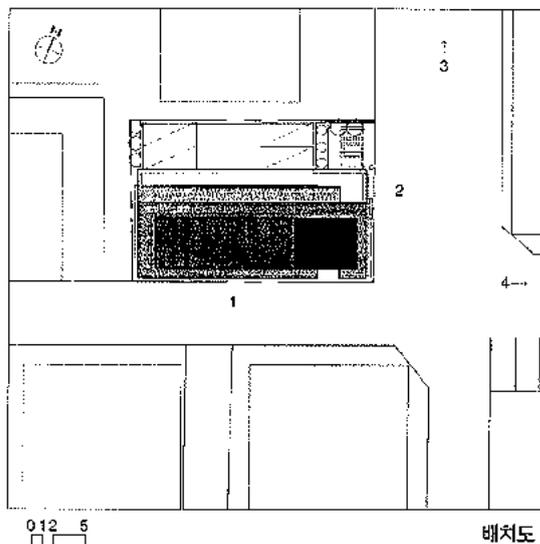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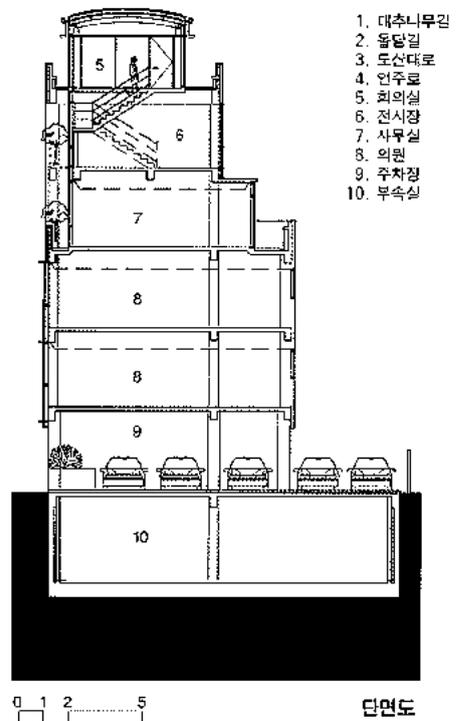
홍&신 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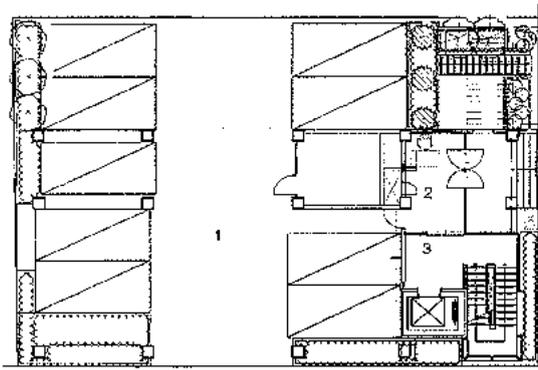
Hong and Sin Clinic

이상림 · 강성인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ang-Leem & Kang Sung-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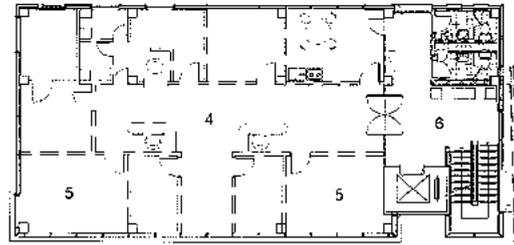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64-25(새주소: 돌담길12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 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51.30㎡
건축면적	209.56㎡
연 면 적	1,108.96㎡
건 폐 율	59.65%
용 적 륜	238.86%
구 조	철근콘크리트, 일부 철골조
층 수	지하1층, 지상6층
주차대수	지상 9대
조경면적	37.84㎡
외 장 재	외벽-압출성형 시멘트판, 불소수지 피복강판 지붕-아연도강판 창호- 18mm 복층유리
설계담당	장홍만, 김 훈, 김성한, 윤현아
구 조	원우구조
설 비	삼영M.E.C(기계)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전기)
시 공	(주)한용B&A종합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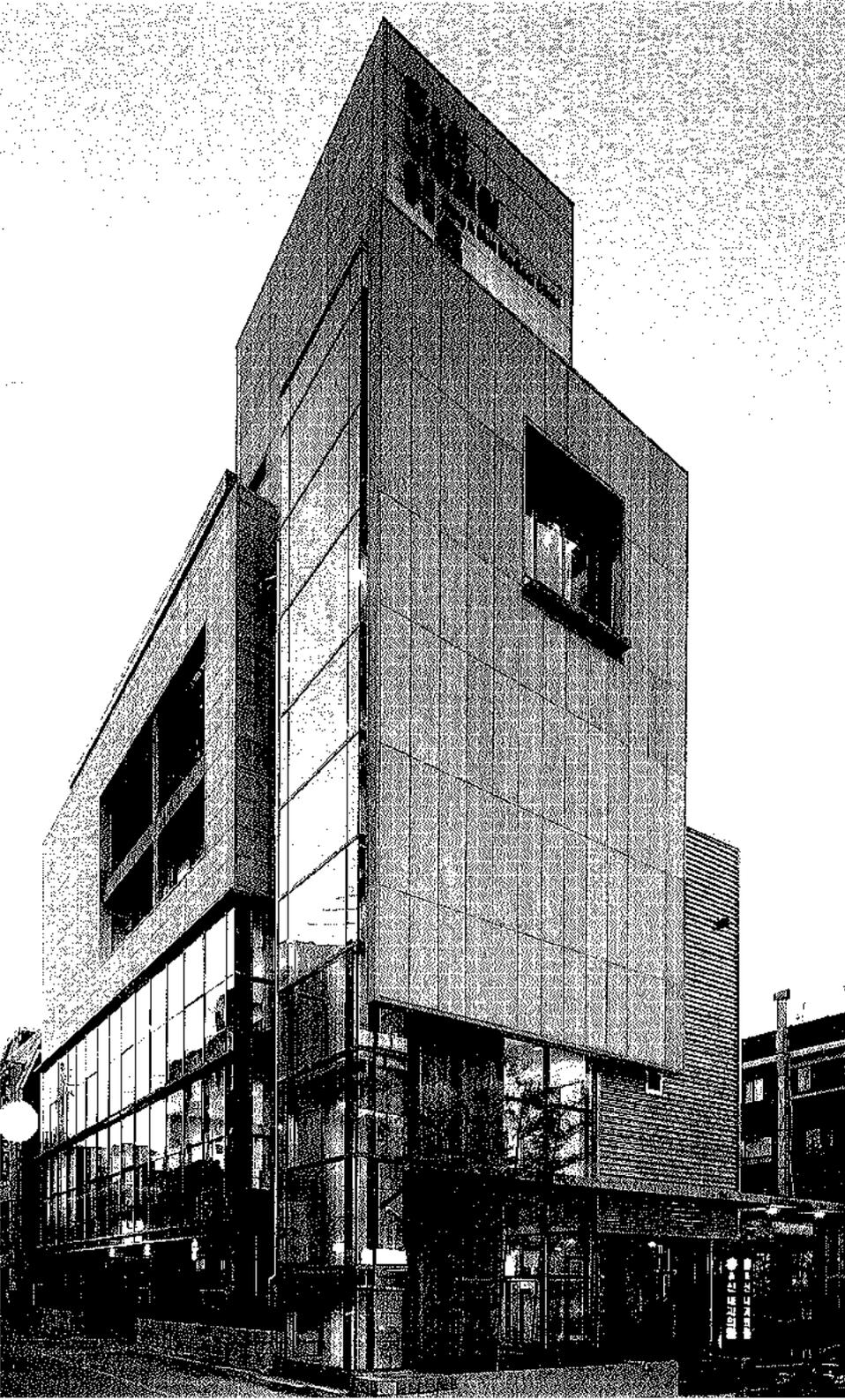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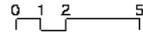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 주차장
2. 입구홀
3. 계단홀
4. 대기실
5. 내과
6. 휴



주변상황

계획대지는 도산대로와 연결되는 돌담길과 언주로에 연결되는 대추나무길이 교차하는 모퉁이에 자리잡고 있다. 근린가로에 붙여진 이름이 주는 느낌과는 대조적으로 무표정한 회색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 있어 가로의 성격은 활력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디자인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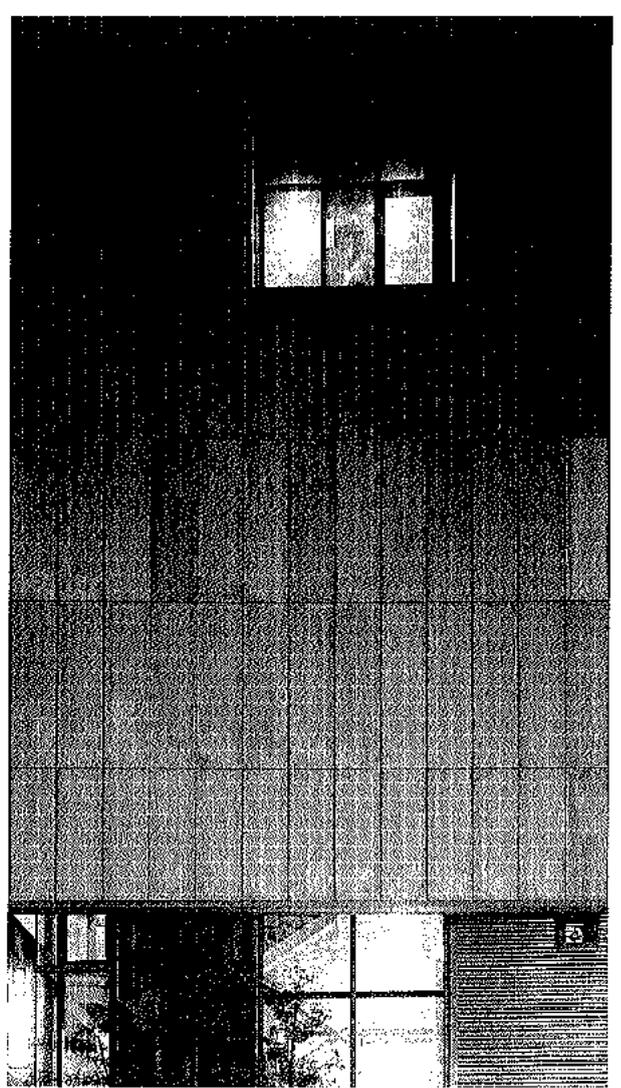
디자인은 크게 27가지 개념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내부와 외부 이용자의 다양한 시각적교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건축공간 자체의 활력적이며 풍부한 체험은 물론, 가로와 건축물이 일체화된 상호 교호적인 관계를 맺고자는 의도이며 둘째, 현재의 무표정한 가로 성격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회화적 입면을 갖는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건물자체의 아이덴티티는 물론 가로에 볼거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봄(seeing)과 보임(being seen)

1층은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홀을 제외하면 연속된 가로에 공간적 깊이를 제공하도록 주차용 피로티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피로티를 통해 가로 이동자들은 부분적으로나마 돌담길과 대추나무길이 시각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된다. 2, 3층은 커튼월 유리벽체를 사용함으로써 전면 가로와의 시각적 교류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교류는 계단 홀에서 보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벽체의 막힘과 트임의 변화를 통해 시각적 교류의 형태를 조절해낸다. 이 작업은 일련의 시퀀스(sequence)에 의해 조직된다. 길이 교차되는 부분에 위치한 계단 홀은 1, 2층이 노출되어 보다 적극적이며 연속적인 교류형태로 출발하여 3층부터 시작되는 시야 차단장치(가벽)에 의해 측면이 막히게되는 단속적인 시각적 경험을 하게된다. 5층에서는 차단장치에 액자 틀을 설치함으로써 조작된 화면을 경험하는 동시에 가로에서는 경험자 자신이 시각적 프레임의 주인공이 되는 객관화 현상이 일어난다. 결국, 이러한 작업은 내부이용자와 외부통행자의 시각적 경험을 통해 건물과 가로가 상호 다양한 양상으로 관계를 맺으며 여기서 건축의 표피는 봄(seeing)과 보임(being seen)을 조절하는 매체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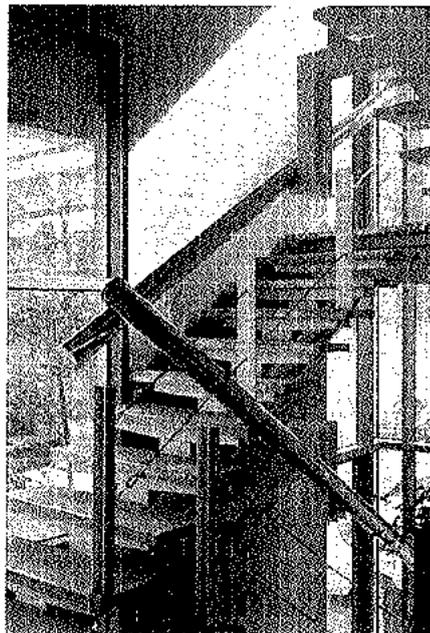


프레임(객관화)

업림 →



부분 업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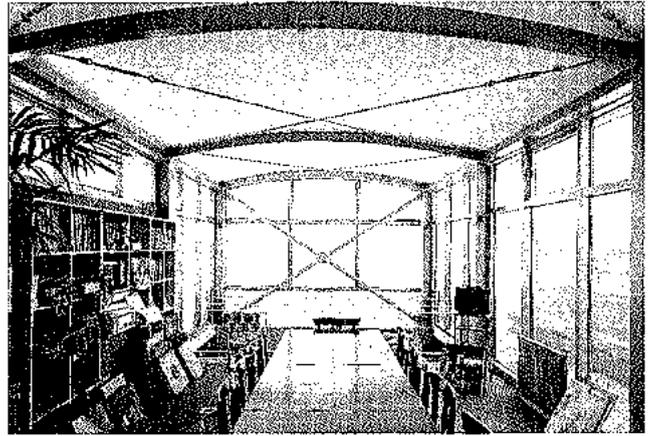


달림 →



회화적(picturesque)구성

조형 작업은 일조 제한에 의한 건물 상층 매스의 후퇴(set back)를 모티브로하여 진행되었다. 이렇게 후퇴로 만들어진 매스의 분리는 서로 다른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입면에 있어 회화적인 구성이 가능하게 했으며 경제논리에 의해 건축된 주변건물에 의해 만들어진 무표정한 가로에 볼 거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매력어 될 것이다. 상, 하층매스 분할에 의한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2개의 시각도형들은 각기, 가로에 가벼움을 줄 수 있는 스테인레스 강판과 베이스페널의 표피를 가지며 중첩된다. 이를 안에서 유리, 노출콘크리트, 피로티와 선콘 케노피를 이용하여 회화적 구성을 보다 풍부하게 하려고 하였다. 또한 최상층에는 전시장으로 사용될 5층에 보이드(void)로 연결된 회의 및 휴식 공간이 없혀 있다. 5층에서 위층의 보이드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늘과 계단을 올라서 창을 통해 투영되는 상업화된 도시의 풍경은 서로 상반된 장소-자연과 도시에 존재함을 깨닫게 한다. 圖



월드컵 상징 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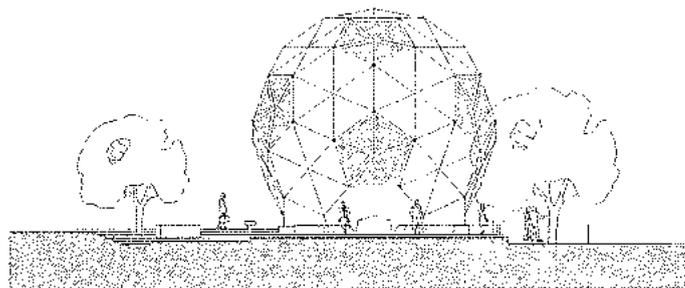
Design Emblem Structure of Worldcup

함인선 / (주)인우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am In-Sun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면 적	112.72㎡
최고높이	11.41m
구 조	철골트러스조
사 진	채수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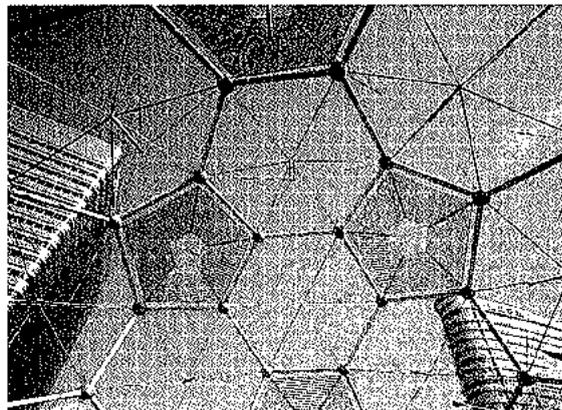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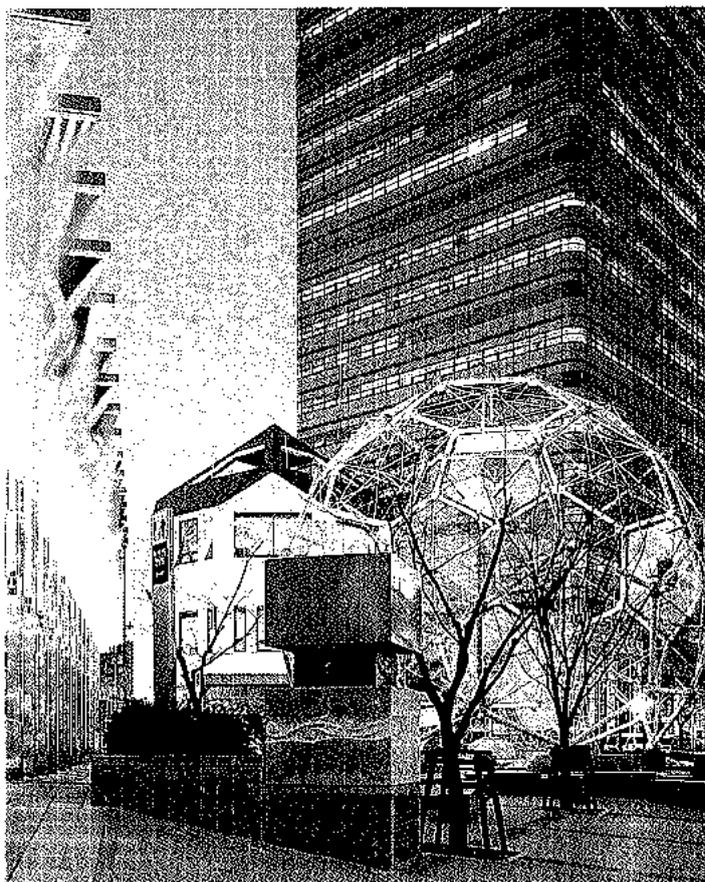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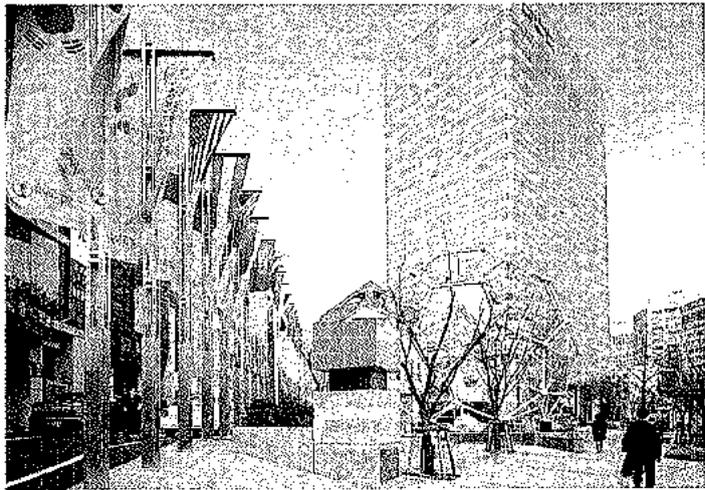
이 조형물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원점인 광화문 네거리 원표 광장에 위치한 구형(球形) 구조물로서 평면적으로 원형인 원표광장 위에 입체화된 구를 설치함으로써 장소적 특성과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건축되었다. 동시에 구 형태를 일반적으로 쓰이는 지오데식 돐이 아니라 축구공에 쓰이는 기하학에서 추출하여 바로 옆에 있는 월드컵 홍보관과 더불어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상징하는 조형물로서의 역할도 기대한다. 축구공 형태의 구형 구조물은 세계 최초의 시도이며, 특히 구조체 안에 광섬유를 포설하여 각 절점마다 변화하는 조명 효과를 내는 기법 역시 최초로 시도되는 공법이다.

기하학적 특징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축구공은 열두 개의 정오각형과 스무 개의 정육각형 기적으로 만든 32면체이며, 이것은 1960년에 아디다스가 개발한 것이다. 이 축구공 형태를 수학자들은 '깎은 20면체(truncated icosahedron)' 혹은 '버키 공(buckyball)' 이라 부른다. 이 다면체를 20개의 정삼각형으로 된 정 20면체의 모서리를 따서 만들 수 있음을 밝힌 사람은 기원전 300년경의 그리이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이며, 그 이전 플라톤은 정다면체에는 정







4, 정6, 정8, 정12, 정20면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

1985년 화학자들은 이 축구공 형태의 합성물을 실험실에서 발견했는데, 다이아몬드와 흑연분자에 이어 탄소로만 이루어진 세 번째 합성물인 C_{60} 은 축구공의 60개의 각 꼭지점에 탄소가 위치하며 이것을 발견한 리처드 스몰리(Richard Smally), 로버트 컬(Robert Curl), 해롤드 크로토(Harold Kroto)는 이 공으로 1996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다. 축구공이 수많은 발길질에도 끄덕없듯이 이 합성물도 대단히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C_{60} 를 버키공이라 부르는 것은 입체도형을 활용해서 대형 구조물을 많이 고안한 영국의 건축가 버킨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 1895~1983)의 이름을 딴 것이다. 풀러가 개발한 구형 구조물을 보통 지오데식 돔(geodesic dome)이라 부르는데 이것 역시 정 이십면체에서 출발하여 삼각형을 발생시켜 만든다. 커다란 정삼각형을 각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분할한 후 구 안에 내접시키고 각 꼭지점을 구면에 투사하면 지오데식 돔이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쓰여지는 구형 돔은 모두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오데식 돔은 범용성이 있는 반면 구의 면을 이루는 각 요소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축구공 형태와는 본질적으로 기하학적 특성이 다르다.

구조의 특징

이 구조물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축구공의 기하학적 특성과 일치하는 '작은 20면체(truncated icosahedron)'로 된 구형 구조체를 채택하여 축구공의 이미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문제는 축구공을 구성하는 정오각형이나 정육각형이 매우 불안정한 도형이라는 점이다. 즉 축구공 같이 안에 바람이 팽팽하게 들어있는 경우에는 기축 표면에 당기는 힘(인장력)이 생겨 구의 형태가 유지되지만, 이 구조를 같이 중력을 받는 경우에는 미는 힘(압축력)에 의해 육각형이나 오각형이 찌그러지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구조물에서는 육각형과 오각형의 변을 이루는 부재는 파이프를 이용하여 압축력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면 내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도형을 다시 다수의 삼각형으로 쪼개(triangulation) 기하학적 안정을 유지시킨다. 이 쪼개는데 사용되는 부재는 순수 인장력을 담당하는 와이어로 구성되어 부재의 굵기를 최소화함으로써 파이프 부재와 대비를 이루게 하여 축구공의 형태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한다. 특히 이 와이어는 구의 중심방향으로 입체화되어 외곽선은 가상 구면의 표면에 놓이게 됨으로써 다면체를 좀 더 구 형태에 근접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구조물은 삼각형으로만 된 일반적인 지오데식 돔과는 달리 오각형과 육각형이 선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축구공의 형태에 근접하게 됨과 동시에 구조적 안정성도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광섬유가 구조체 안에 매입되어야 하는 관계로 각 부재는 안이 바어있는 파이프로 설계되었으며, 절점 역시 이 문제

로 인하여 안이 비어있는 특수 조인트가 개발되었다. 구조체 전체의 크기는 원표 광장 외곽 원주에 맞추어 역산하여 설정되어 최고 높이 약 11미터, 최대 지름 14미터의 스케일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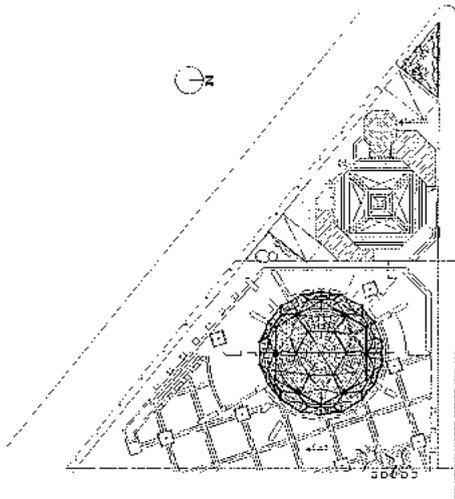
공법의 특징

기존의 지오데식 돔의 공법은 절점에 암나사가 뚫린 공을 배치하고 수나사가 양쪽에 달린 선형부재로 조립하는 방식인데 이는 절점과 부재사이가 막혀있어 구조체 내부에 어떠한 것도 매설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반면 이 구조물은 선형 부재가 양쪽이 개방된 파이프로 되어 있으며, 절점 역시 내부가 비어있는 공으로 되어 있어 내부에 각종 배선 예컨대 조명, 전력 배선 등을 하기에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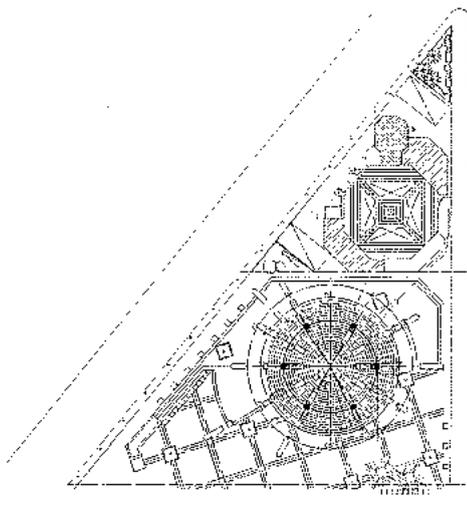
이러한 이중 구조가 이 공법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즉 절점의 구는 구조적 의미가 없는 표피인 채 내부에 힘을 전달해주는 조인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조인트는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플레이트끼리의 볼트 접합만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구의 표면 내 기하학적 안정성은 와이어에 의해 보장되므로 표면에 직각되는 방향의 벤딩모멘트에 저항하는 정도의 단면을 가지면 된다. 이 방식은 절점을 입체 가공할 필요를 없애주므로 부품 제작이 매우 간편한 공정이 되게 하며 비용 면에서도 매우 저렴하게 한다.

또한 조립 과정에서도 오각형과 육각형이 자립을 하여 응력이 달려있는 채로 조립될 수 있으므로 구조체는 위에서 아래로 조립해 내려오는 방식인 톱다운 방식(top-down method)을 쓸 수 있으며 이는 기초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기 및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구조체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각 절점에 광섬유의 선단을 배치함으로써 이간의 조명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지 보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圖



배치도



0.1 3 6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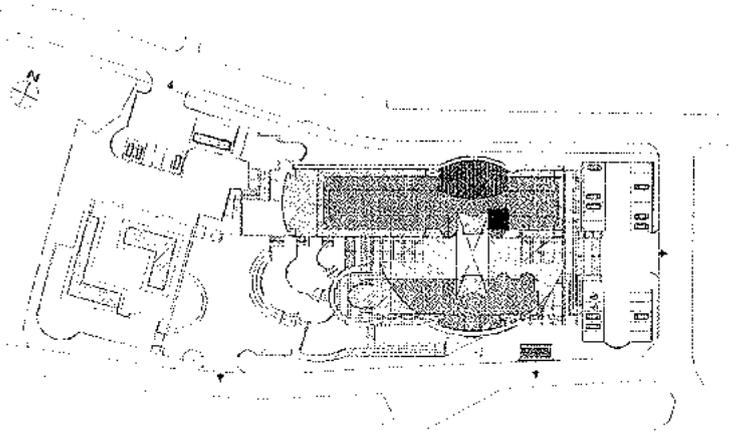


원주시립박물관 Wonju Municipal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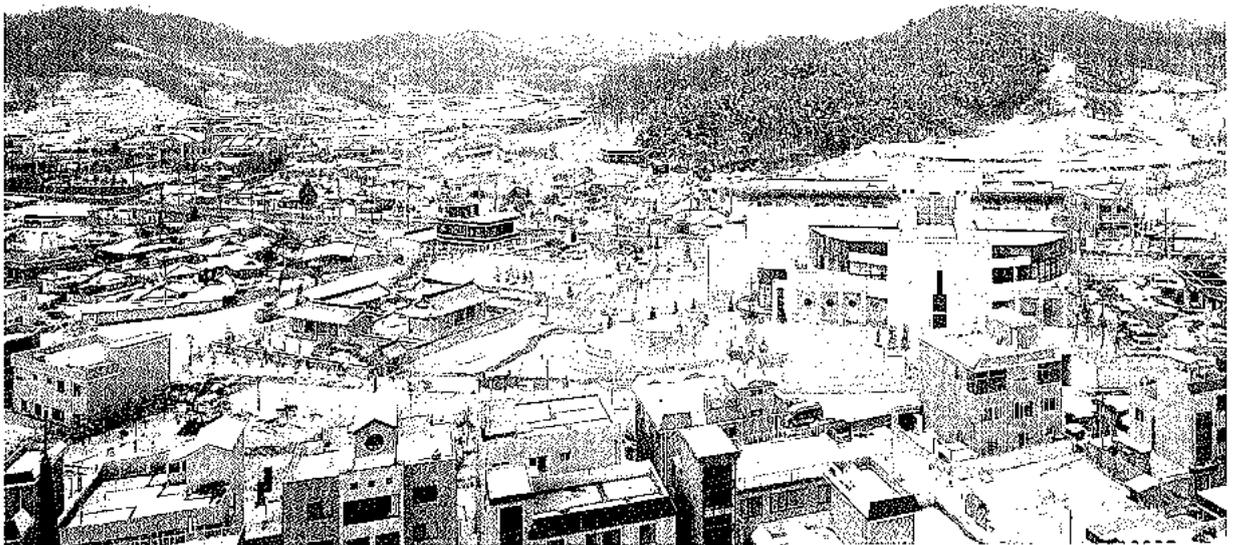
한광호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산
Designed by Han Kwa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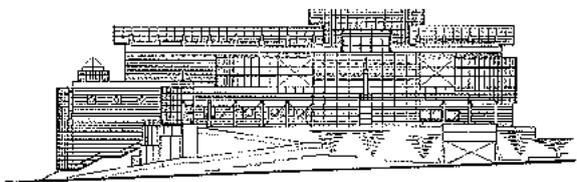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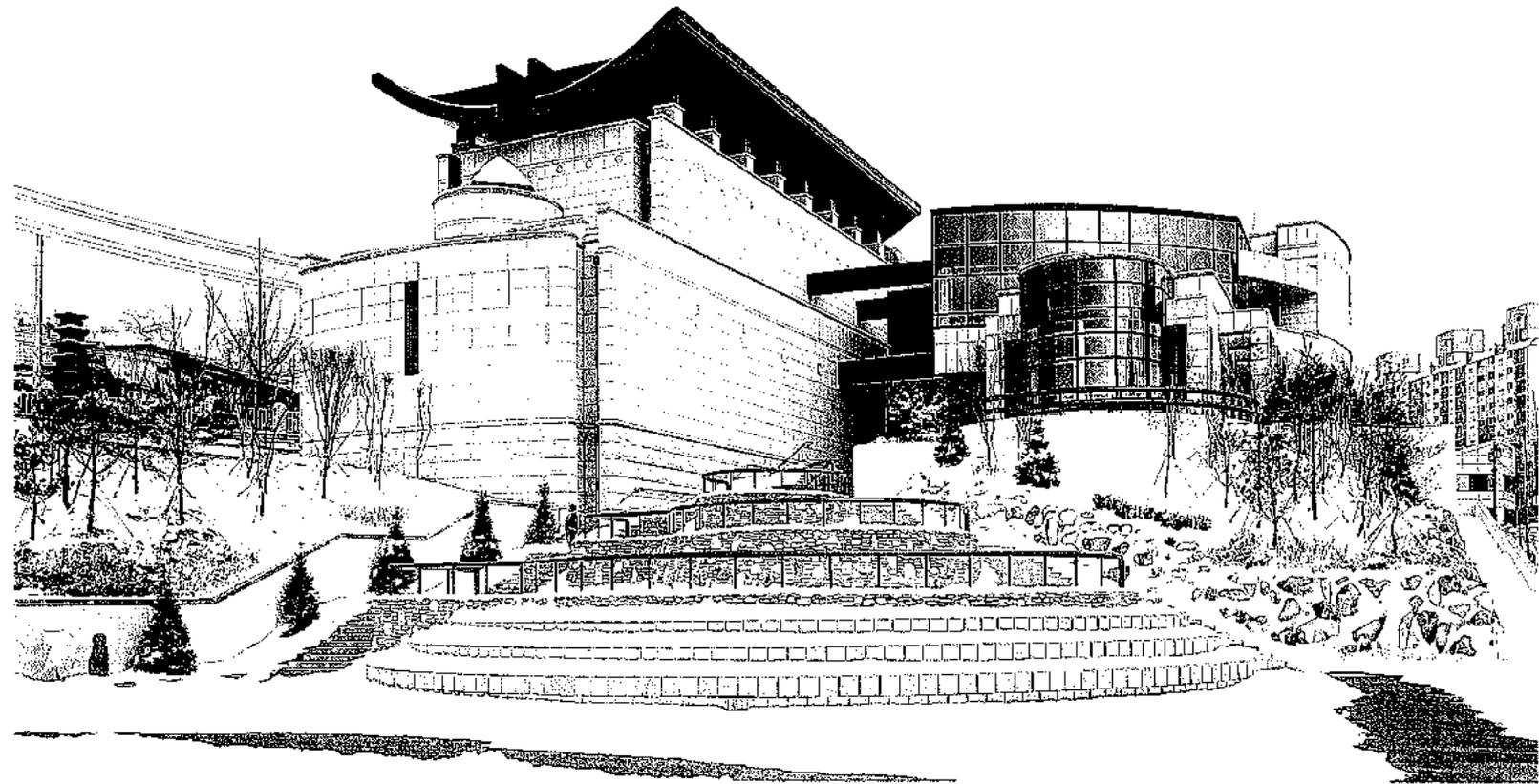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836-1
주요용도	전시시설
대지면적	7,437.28㎡
건축면적	1,885.80㎡
연 면 적	4,175.47㎡
건 폐 율	25.35%
용 적 륜	36.97%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구이
설계담당	조호성, 김진용, 김희옥, 김진상, 추성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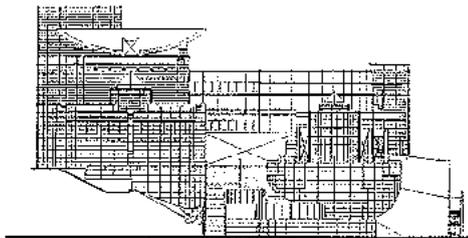


배치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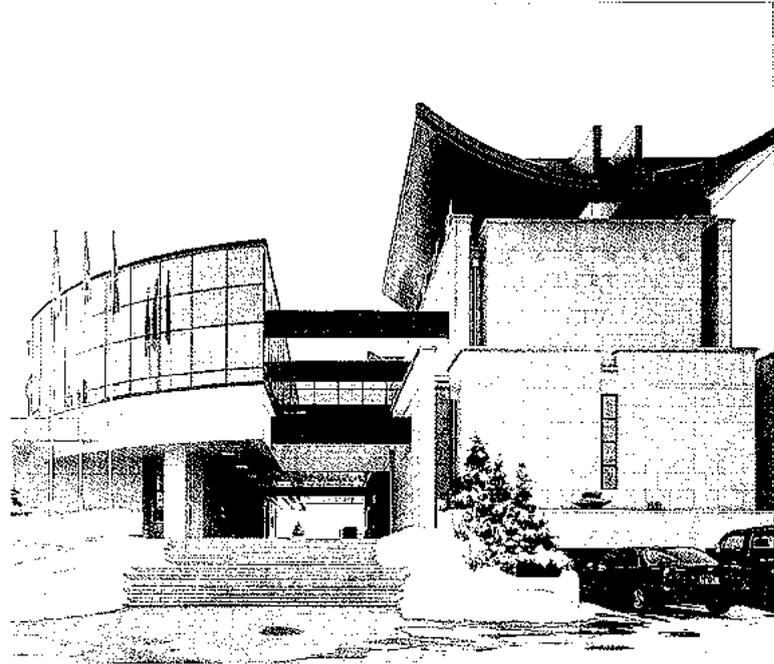
좌측 입면도



원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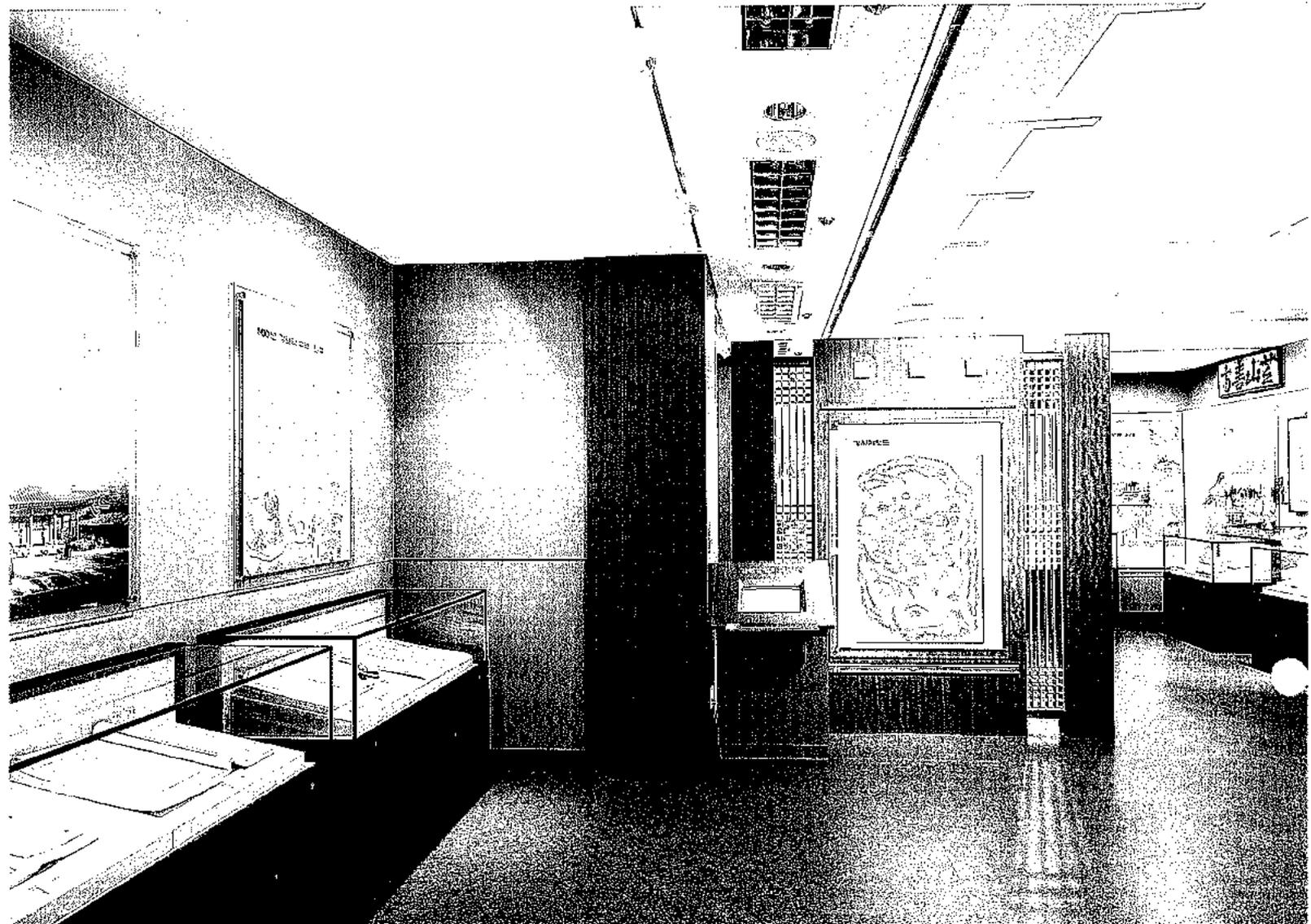
역사적 유물의 보전, 관리, 전시가 박물관의 전통적인 기능이라면 역사성에 접근하는 문화적 활동(문화기능공간)은 최근에 추가된 기능일 것이다. 외국의 유명한 박물관에 비하면 역사는 비록 짧지만 일반인들에게 역사적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최근 생겨나는 중소규모 도시 박물관의 공통적인 과제일 것이다. 소규모 지방도시의 한계성에 한정된 면적으로 박물관의 기능에 충실하려 했으나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시의 요구면적과 대지의 협소성은 처음부터 논쟁되어 왔으나 한정된 예산 때문에 잘 계획되어진 열린 공간으로서 공원(물을 이용한 공간)이 현실화 되지 못하고 계획에 그치게 된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다. 도심과 치악산으로 연결된 주축의 선상 위에 생가, 광장, 박물관, 주차장으로 연계되는 각기 독립적이면서도 개성적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생가와 박물관은 각기 유기적 기능에 충실하되 상호 보완작용을 하며, 그 사이의 광장 등은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대지 레벨 차를 이용한 야외 전시공간을 두어 자연스러운 유도하였으며, 공간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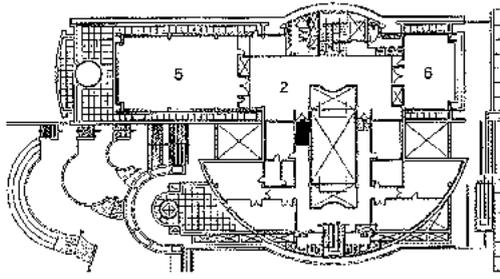
박물관 상부의 전시기능과 하부의 관리 보관기능은 명쾌한 평면의 분질로 이루어진다. 지하층의 수장고는 면적의 협소함을 느끼게 하여 공간의 확충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장래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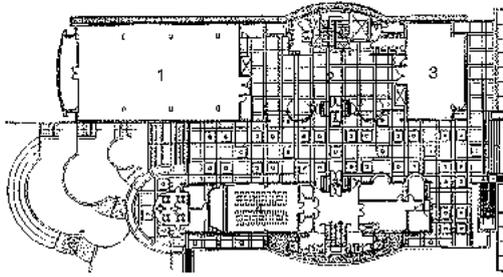
해 볼 때 역시 턱없이 모자람을 느낄 수 있다. 일반적인 동선의 흐름에 위계성을 부여하였고, 공공시설로서의 보완체에 유념하였다. 주공간과 부공간의 엄격한 분리 및 근접화를 유도하였으며, 옥상정원의 도입으로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가속화되는 시의 발전과 전통적 유물이 공존하는 시의 상징성을 함께 표출하는 형태를 이끌어내려 하였으며, 도시 스케일과 휴먼 스케일을 조화롭게 적용하여 전체 매스의 안정감을 부여하였다. 건물의 단일매스 속에서 기능을 크게 돌로 나누고 동쪽과 남쪽면을 전면성을 갖게 하며, 도로측으로 길게 배치하여 도시기능에 부합시켰다. 건물의 매스를 단순하게 처리하고, 그것을 받쳐주는 요소를 세밀하게 처리하여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도심내 공공시설로서의 조화감을 갖게 하였다. ㉠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 제1전시실
2. 전시홀
3. 제2전시실
4. 공연장/회의실
5. 제3전시실/향토자료실
6. 제4전시실/민속실



양평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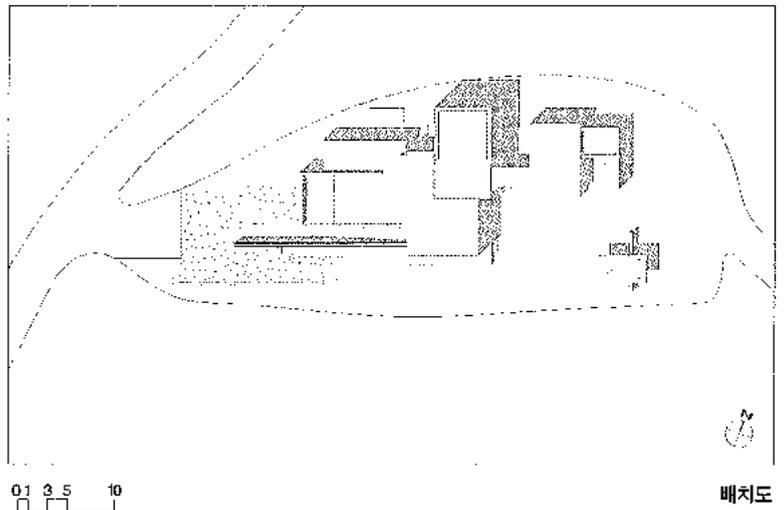
Yang-Pyong Residence

김승희 · 강원필/건축사사무소 경영위치

Designed by Kim Seung-Hoy & Kang Won-Phil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17-56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500㎡
건축면적	181㎡
연 면 적	197㎡
규 모	지상 2층
구 조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설 계 팀	최재봉, 정화택, 김주애
모 형	정화택, 김주경
시 공	에이스케이 건설(김승욱)
구조계산	황윤선
전기설비	조재금
기계설비	기한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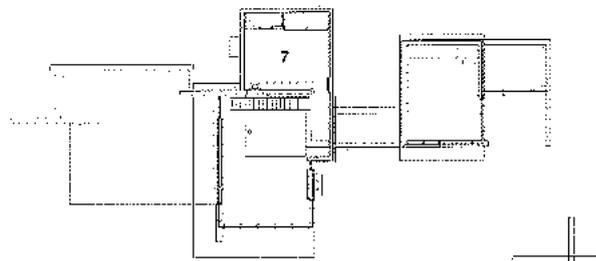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메마른 환경과 빠른 속도 그리고 사회적 계약의 굴레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가 강제하는 엄청난 자극에 지친 사람들은 삶을 본래의 속도로 자연과의 호흡 속으로 그리고 자기자신에 대한 내밀한 만남을 회복하고 싶은 바람을 지니게 된다. 누구나 그 바람을 가능하게 할 공간과 시간을 희구하지만 대개는 사람 속에서 한 조각의 꿈으로 망각되곤 한다.

양평주택의 건축주 역시 서울 한가운데에서 비쁜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영위할 장소를 찾고 있었다. 집 지을 땅을 찾느라 북한강 주변을 두루 다닌 몇 년의 시간 끝에 얻게된 곳인 만큼 좋은 집을 짓고 싶다고 했다. 지난봄 어느 일요일 새벽에 만난 대지는 산을 등지고 멀리 한강을 굽어보는, 풍광 좋은 자리에 있었다. 깨끗이 정리된 땅이라 자연의 거친 맛이 없는 것이 아쉬웠지만, 넓게 조성된 대지는 작은 소우주를 만들기에는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어 건축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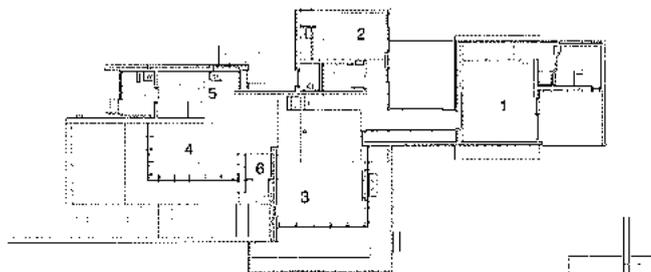
비교적 긴 형상의 대지에 집을 펼치면서 여러 마당을 만들었다. 제법 긴 담을 따라 걸어들어 오면서 오른쪽으로 한강의 풍경을, 그 반대쪽으로 약간 들어올려진 마당을 만나





1. 주인침실
2. 침실
3. 거실
4. 식당
5. 주방
6. 현관
7. 서재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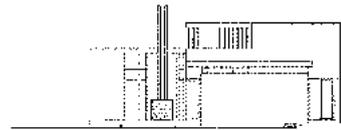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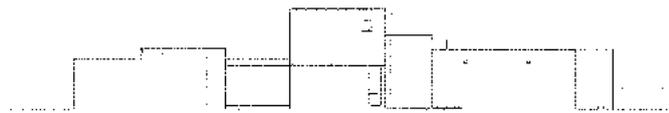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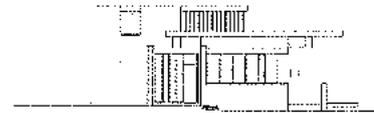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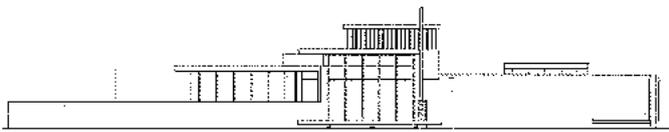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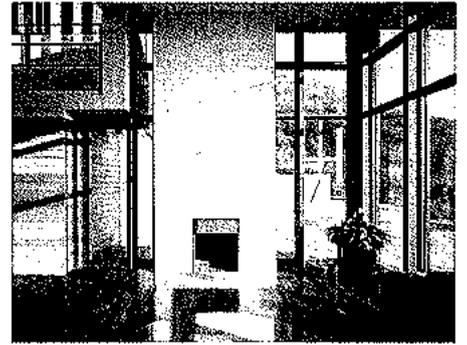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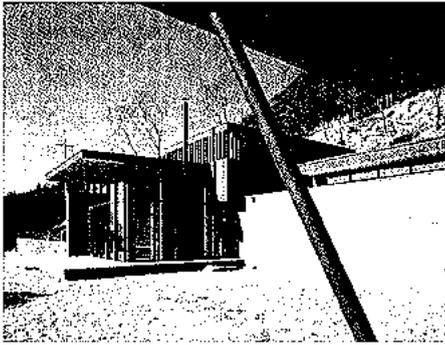


0 1 3 5 10

1층 평면도

게 된다. 이 마당은 식당과 같은 레벨에서 연속되므로 해가 서산으로 넘어 갈 무렵 황금색 햇살로 가득한 저녁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천장이 높은 거실은 남쪽과 동쪽으로 열려 있어 역시 한강이 잘 보이는 장소이다. 거실의 마당은 동쪽의 작은 정자와 함께 생활의 중심공간이 된다. 거실에서 주인침실로 가는 복도를 따라 중정이 마련되는데, 이곳은 건축주가 가꾼 화초를 간사하는 장소로 쓰이게 된다. 주인침실은 별도의 마당을 갖는다. 이 마당은 침실로 스며오는 아침의 맑은 햇살과 담에 비친 석양빛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부엌과 더불어 있는 작업마당과 대나무가 배치된 텃마당도 여러 방식의 생활을 이울 수 있다.

마당은 집의 배경이면서도 주제이다. 그것은 여러 성질의 물질로 이루어진 이 집의 담이 집을 구축하는 수단이자 배경이며, 또 다른 주제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건축물과 공간, 마당과 담, 방과 마루가 서로에게 기대며 존재하는 것이다. 도시 속에서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의 고요한 원점이 요청되듯이, 새로운 시대의 도시와 건축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게 될 자연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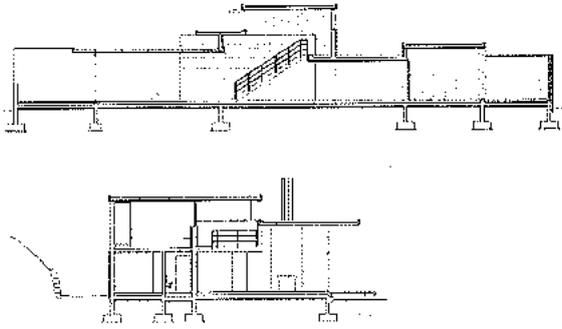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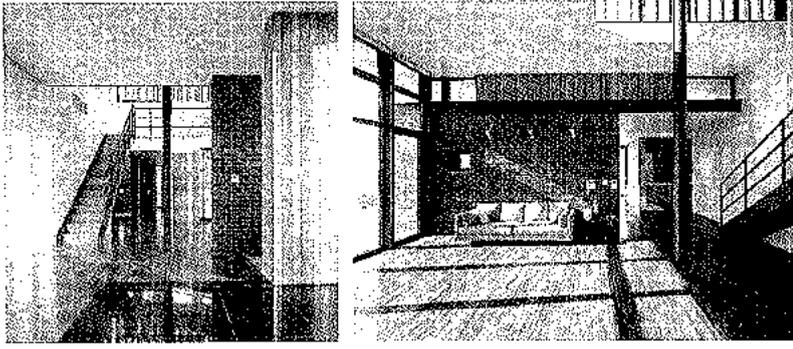


0 1 3 5 10

입면도1

입면도2





단면도



우이동 저층집합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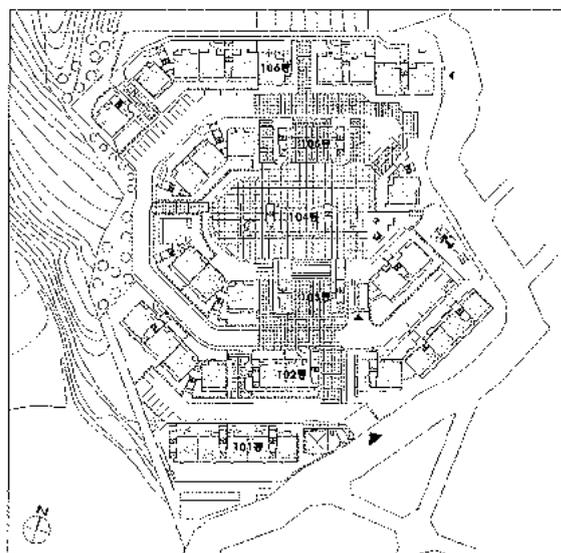
Low rise Apartment in Woodong

신영식 / (주)전인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hin Young-Sik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342
대지면적	20,593.90㎡
건축면적	6,702.01㎡
연면적	34,193.00㎡
건폐율	32.54%
용적률	121.47%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외부미감	수성페인트, 금속기와의기, 드라이비트
분양세대	아파트/260세대
설계담당	노태광, 문정주, 이민수, 최경남, 김진성
구조	도희구조
전기	태협ENG
기계	건화설비
시공	(주)대우
건축주	우이지역주택조합 우이제1지역주택조합
사진	채수욱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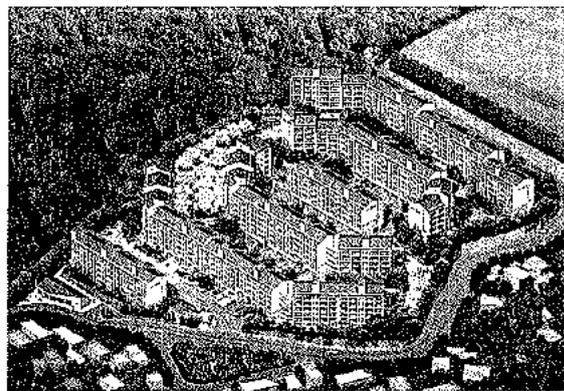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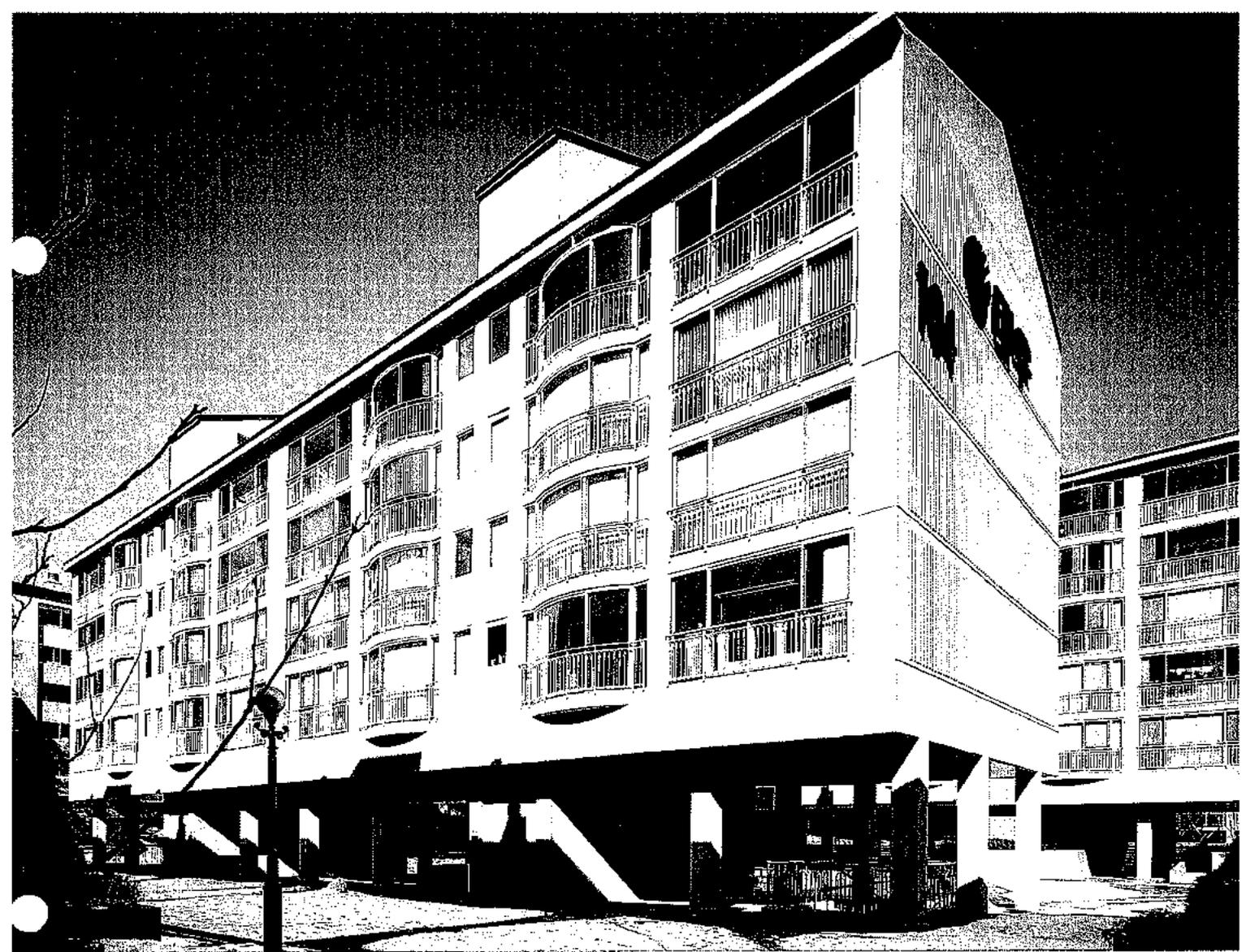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지역, 직장 조합아파트로 우이동 북한산 국립공원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 공원(우이솔밭공원) 및 교육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고, 또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인하여 주변건물의 높이제한이 있어 비교적 도시화가 덜 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지위치는 산자락이 시작되는 경사지고, 형상은 도시화가 덜 된 부정형의 땅이다. 자연스레 계획단계에서 이들의 조건이 적용되었고, 배치는 경사진 지형의 흐름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며 앉혀진 응집형의 원형배치가 되었다.

이는 또한 외부공간 조성개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형으로 둘러싼 아파트 동 중심에 주민들간의 커뮤니티 광장을 놓고, 각 동 사이로 경사를 따라 흐르는 연결 통로를 뚫어서 지형에 적응하는 동선체계를 이룬다.

그리고 그 광장을 잇는 직선통로의 동선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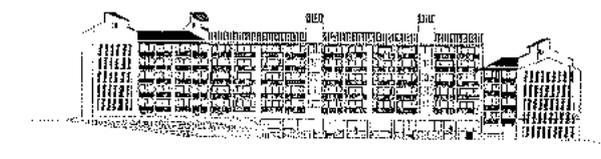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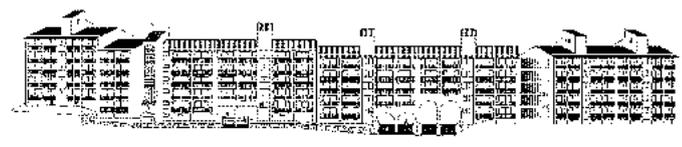
을 유도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아파트 동 하부에 필로티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는 자칫 너무 길어지는 대지 내 동선의 문제요소 해결과, 단순할 수 있었던 외부공간의 요소를 다양화하는 해결책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 필로티 하부의 넓은 계단과 경사로는 단순히 통로 자체의 기능에서 벗어나 어린이 놀이터나 주민들 간의 답소공간이 되도록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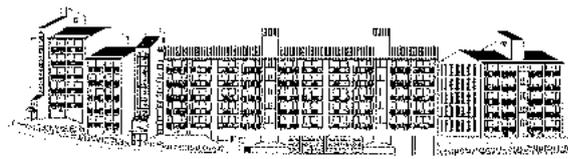
단지내 조경은 기존의 수림대가 자연스럽게 대지로 흘러내리는 자연친화적인 연계를 유도하였고, 어린이 놀이터 등은 커뮤니티 공간과 연결시켜 퍼블릭공간의 연결을 유도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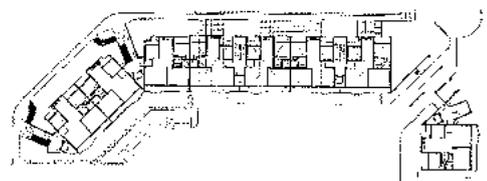
105동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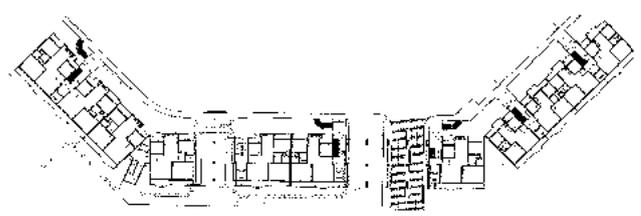
102동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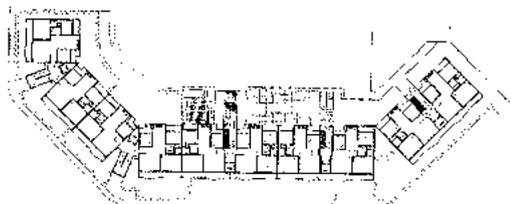
103동 북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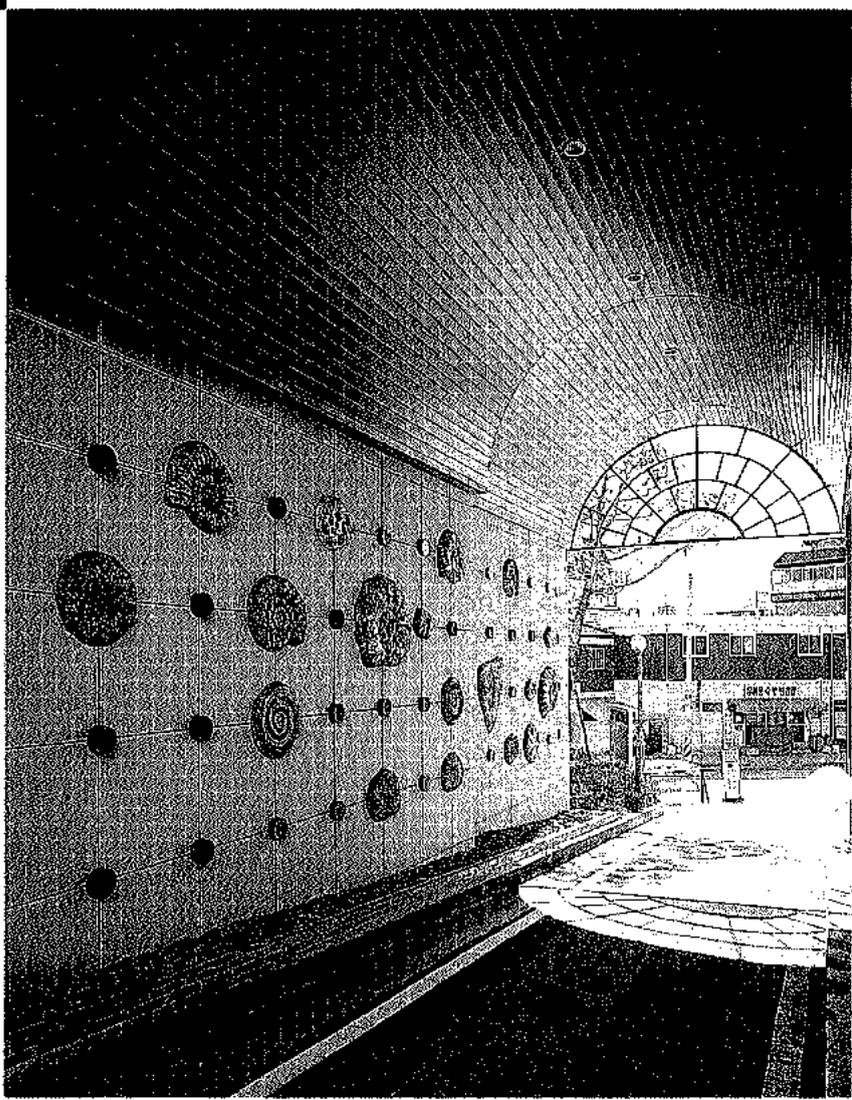
105동 1층 입면도



102동 1층 평면도



103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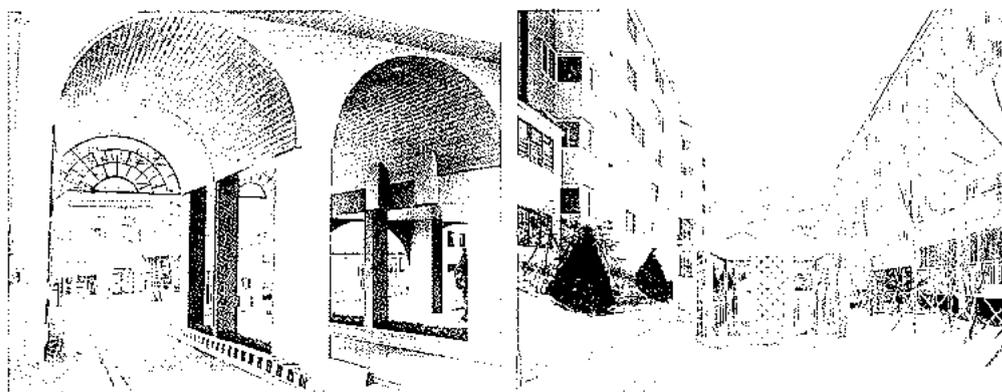




- 1. 원로터
- 2. 지하수지장



대지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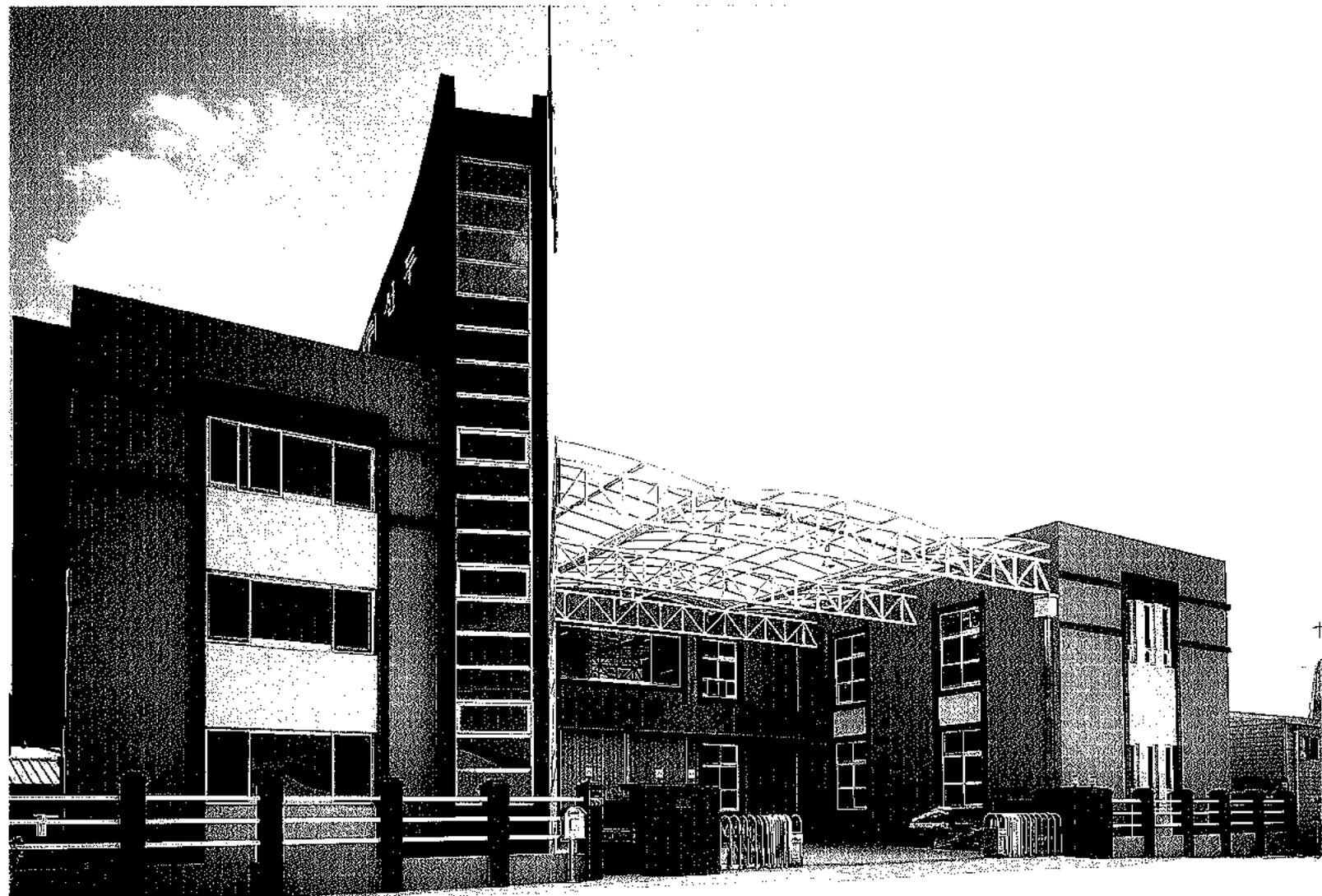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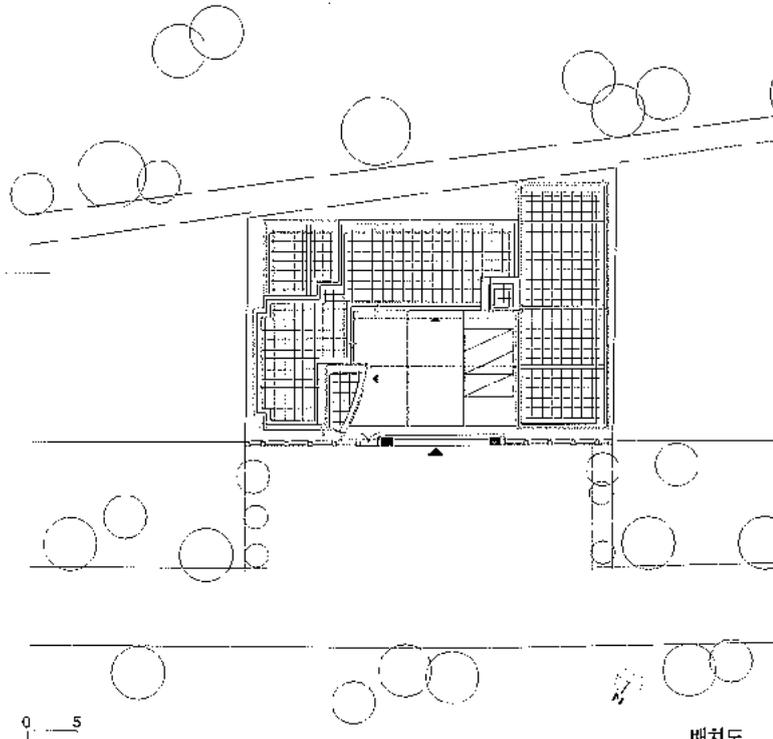
선두전자 일산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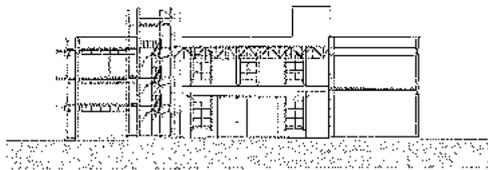
SUNDOO Entertainment Ilsan Factory

박남규 / 새로운건축을향하여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Park Nam-K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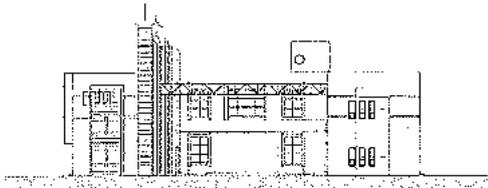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정형동 673-60호
대지면적	961.00㎡
건축면적	576.51㎡
연 면 적	946.56㎡
용 도	공장
규 모	지상3층
건 폐 율	59.9%
용 적 륜	98.5%
외부마감	외단연재, THK17 복층유리, THK5 투명유리
주차대수	3대
설계담당	강형식, 손재웅, 홍선희, 조광중
시 공	(주)대봉종합건설
사 진	채수욱





주단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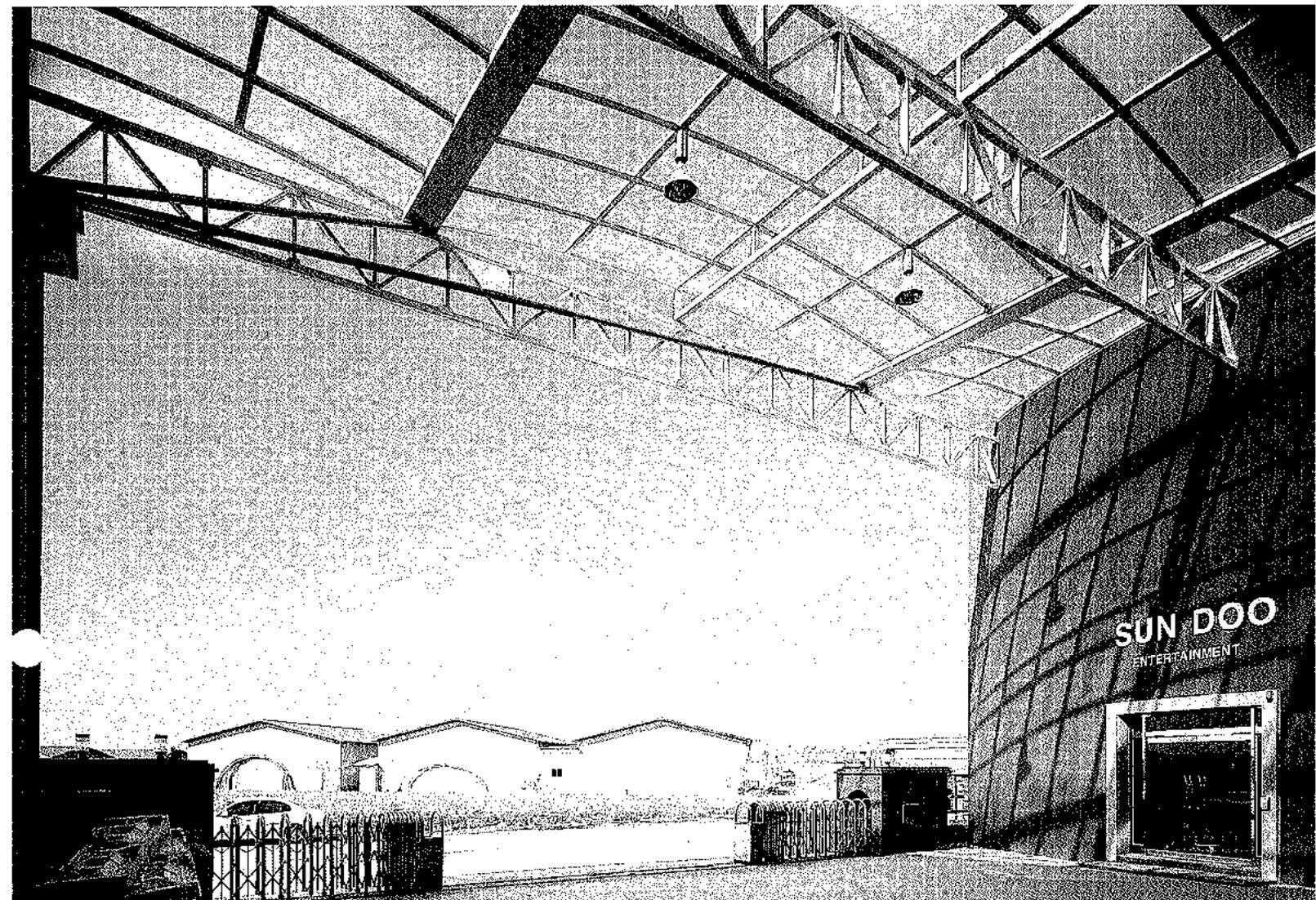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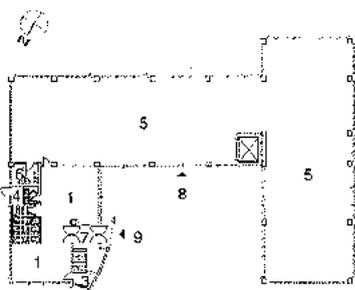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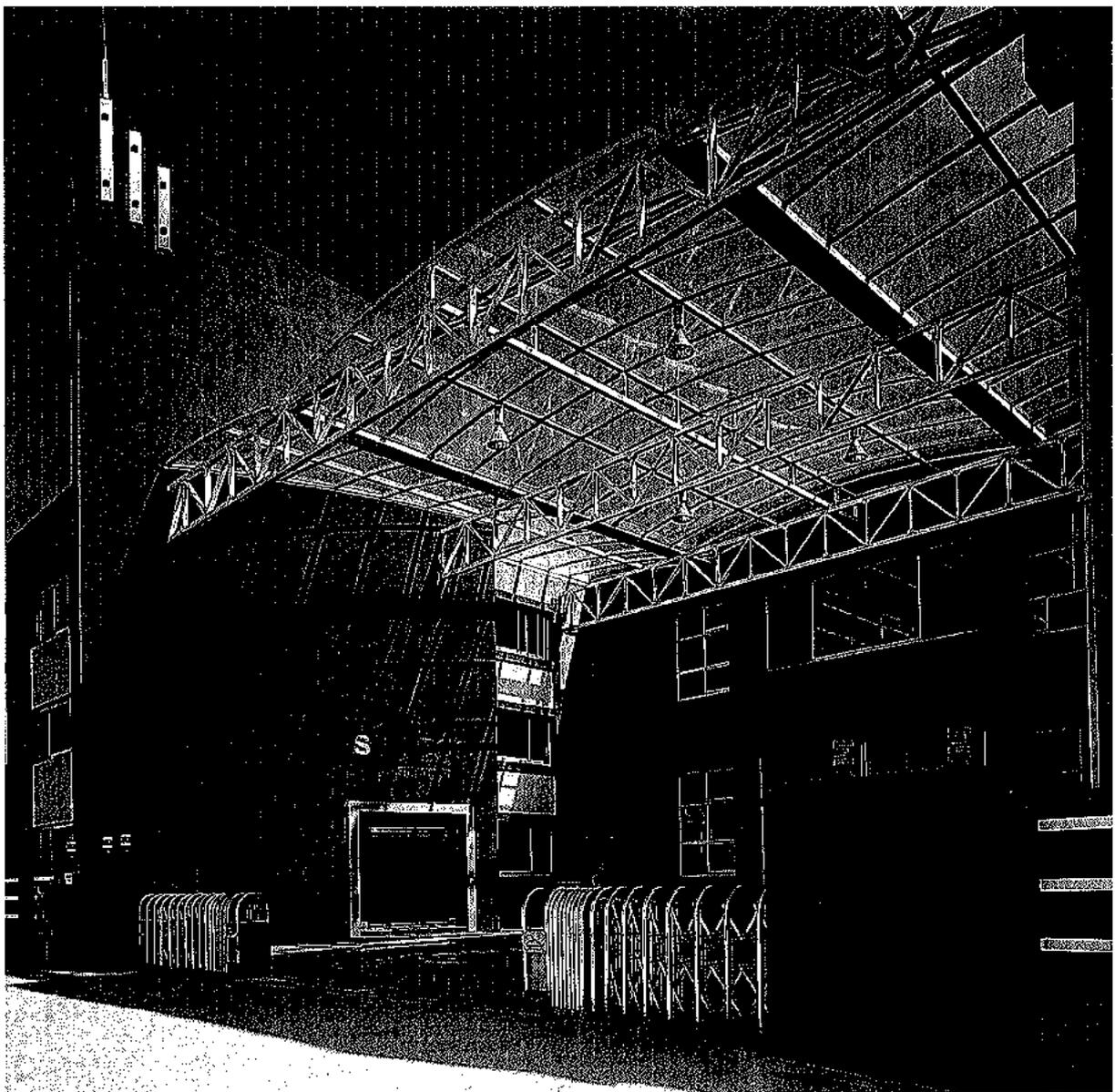
풍경 - 일산 신도시와 자유로 사이에 위치한 계획 대지는 주변이 논과 무질서한 경량철골의 패널공장들, 약간의 편의시설이 있는, 정리되지 않은 아직은 미개발인 것이 사실이다.

붓 - 계획건물은 주(主)가 공장이 되고 부(附)가 사무실(개발, 연구, 사무), 창고가 되는 벤처기업의 장(場)으로 건물의 기능 및 기업이미지 표현이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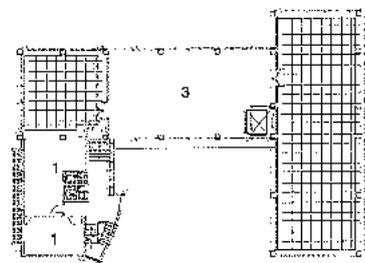
그림 - 건물배치를 대지의 활용도와 최대한의 건물용적을 충족하기에 ㄷ자형으로 배치하므로 자연스럽게 한쪽이 사무공간이 되고 ㄱ자형으로 작업, 창고공간이 형성되었다. 여기에 사무공간의 계단실이 상징화시켜서 정면성을 이끌어내고 기업 이미지에 접근시켰다.

기존 철골공장의 단순성에서 조건(공사비, 건물 기능)에 부합되는 자유로운 형태의 RC조 건물로 좀더 안정된 작업공간과 정리된 외관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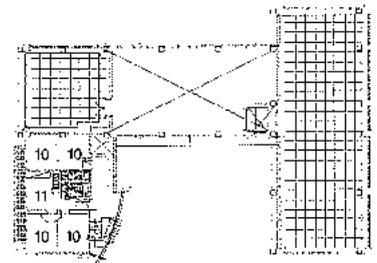




0 3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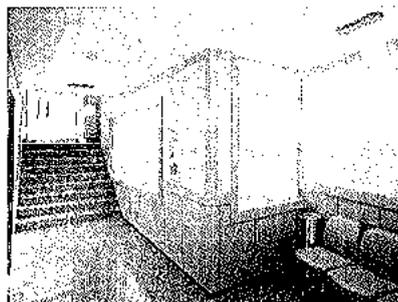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 | | | |
|---------|-----------|---------|
| 1. 사무실 | 5. 작업장 | 9. 주출입구 |
| 2. 장비실 | 6. 사위/담의실 | 10. 숙소 |
| 3. 창고 | 7. 연관 | 11. 휴게실 |
| 4. 도입러실 | 8. 공장출입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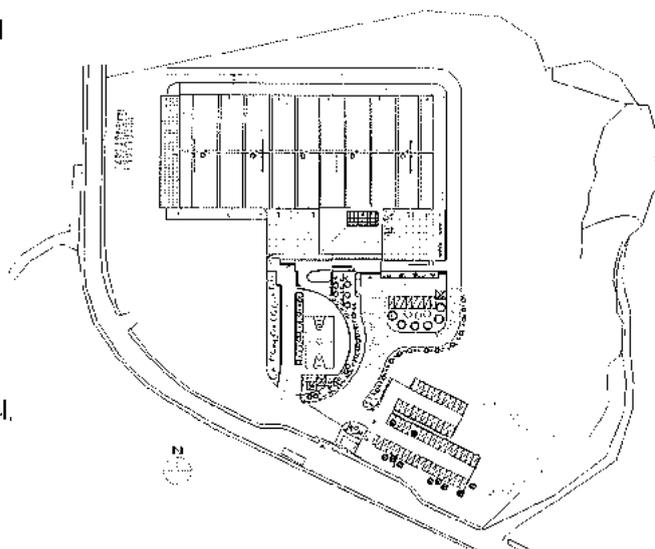
평택 (주)하츠 제2공장

The Second Factory of Haatz, Pyeongta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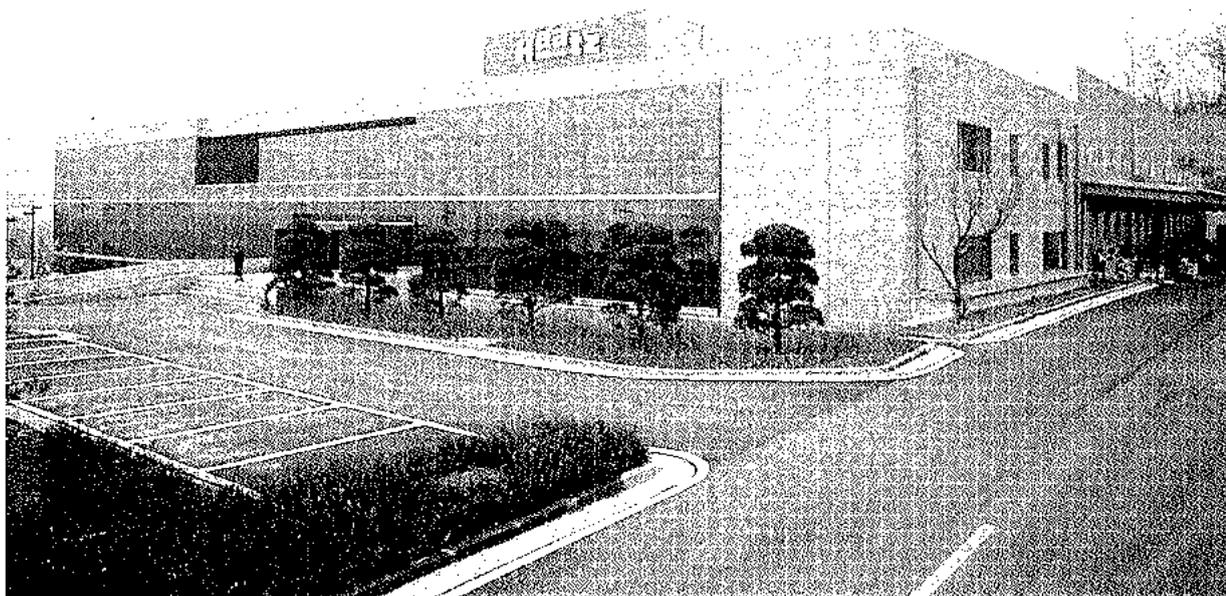
이재림 / (주)지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Jae-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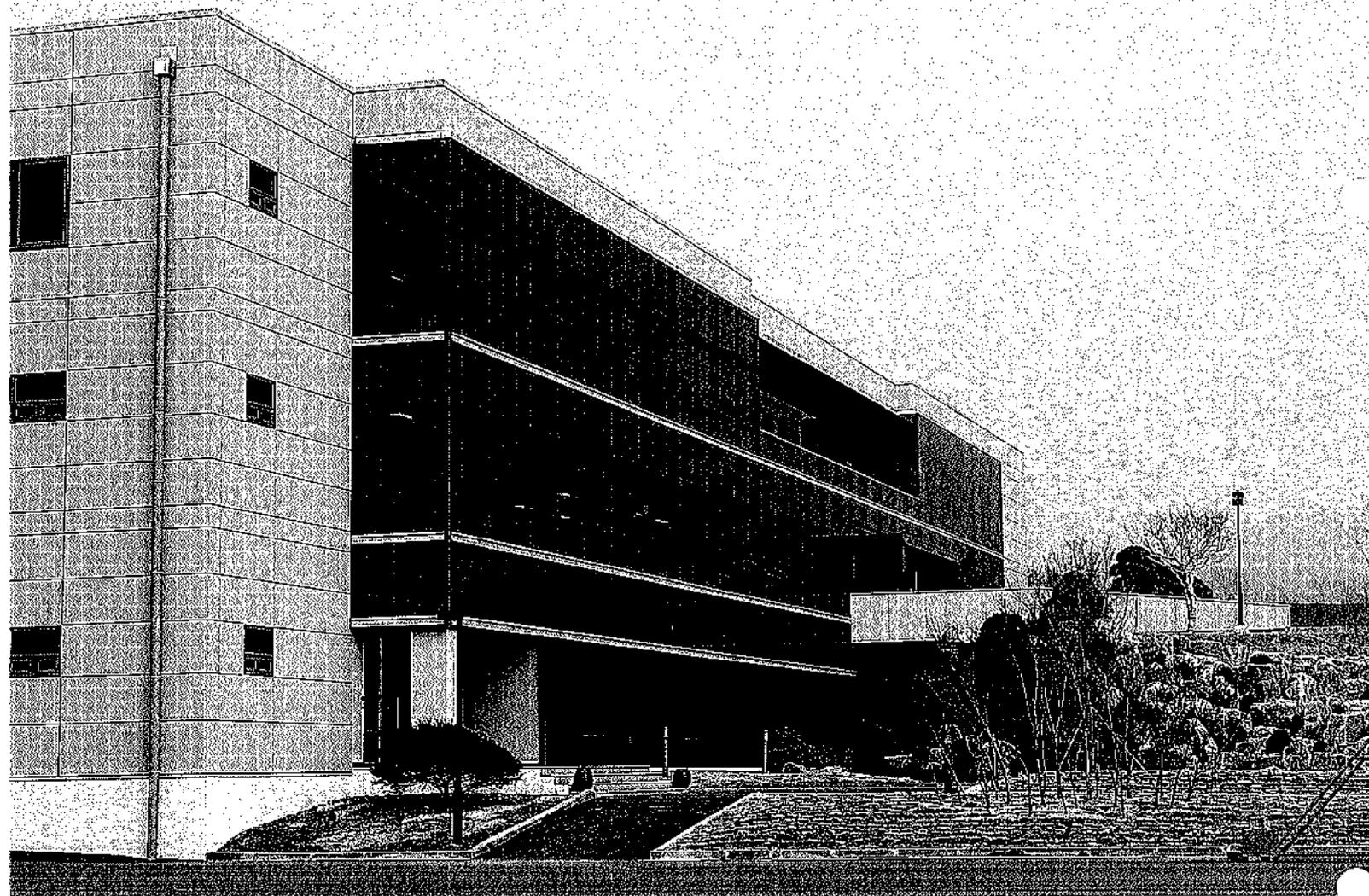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67외 11필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29973㎡
건축면적	8365.11㎡
연면적	11843.92㎡
건폐율	27.91%
용적률	28.56%
용도	공장, 업무시설, 연구시설, 창고시설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내부마감	이지월
외부마감	야연도강판단열패널, THK22mm복층유리, 샌드위치패널
설계담당	문영식, 김민
구조설계	(주)건원산업건축사사무소
전기설계	석우엔지니어링
기계설계	현우MEC
시공	(주)하츠
건축주	(주)하츠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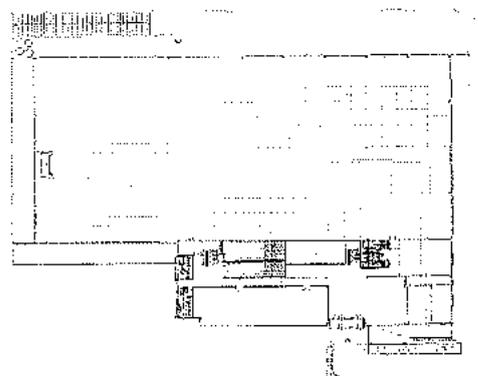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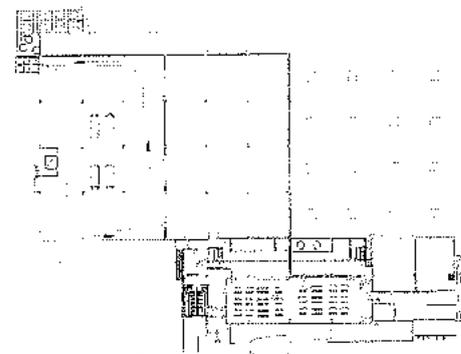
처음 설계의뢰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러 갔을 때 받은 첫인상은 그곳이 전망이 뛰어나고 산책하기에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야산 같다는 것이었다. 모임공간을 형성하고 있는것도 편안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산업시설의 대다수가 단지계획에 의해 조성된 평지에 입지한다는 상식에 비추어볼 때 이번 프로젝트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산업시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공장가동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추구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겨나는 건조한 공간의 극복 또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양자는 서로 상충되는 대립요소로서 어떻게 이요소들을 조화해내느냐 하는 것이 설계의 핵심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설계는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서, 만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임에도 평지라고는 거의 없는, 그리고 20m가 넘는 고저차를 극복해가며 가장 효율을 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과 이런 불리한 조건들이 오히려 무엇인가 윤택한 공간을 공급하고 싶어하는 설계자를 자극하여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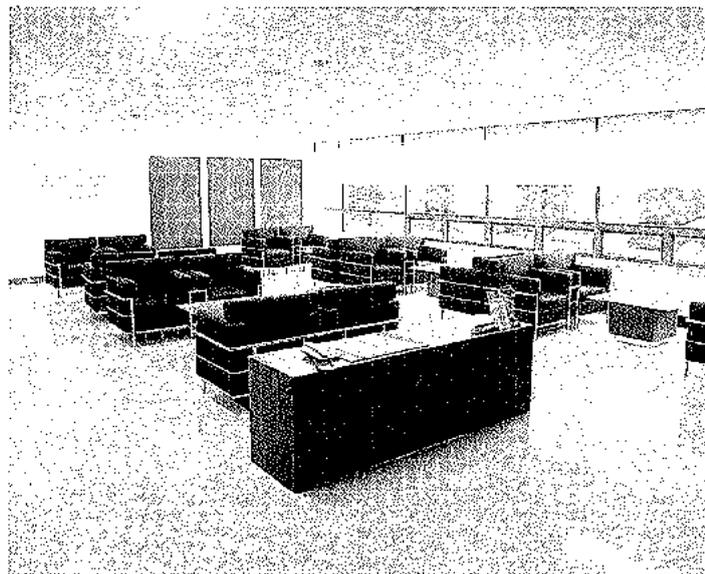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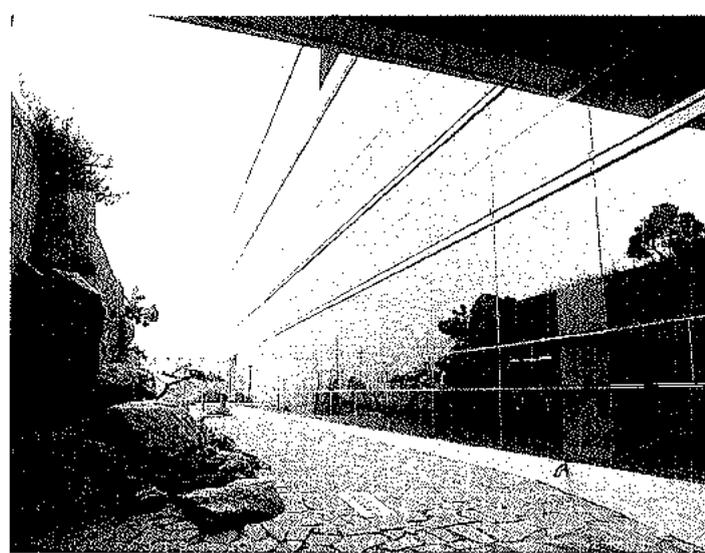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공장설계에 있어서 동선의 배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방식 결정은 공장의 기능과 시스템을 결정짓는 주요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선이란 주로 수평적 이동 체계의 개념을 의미하는데 공장에 있어서의 수직동선이란 곧 비용상승과 저 효율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됨으로 가급적 자제해야 하는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지는 고저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수평동선과 수직동선의 이용형태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만 했다. 우선 도로에서 식별 및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곳에 경비실을 포함하고 주출입 위치를 정하고, 부지의 좌측에는 공장동을 두어 공장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우측에는 사무동을 두어 보행과 관련된 부분을 들으로써 주동선체계를 분리하였다. 주동선들은 경사지를 따라 자연스레 각 기능의 중심으로 이동하며 수직동선을 이용하여 최초의 출발점인 하부의 평지로 돌아오는 고유의 서클을 갖게된다. 물론 동선들의 흐름선상에 있는 부분별 space에서는 그에 합당한 고유의 기능들이 작업흐름에 맞추어 수행되어지고 있다. 공장동과 사무동은 초기계획에서는 별개의 동으로 계획이었으나 입지여건과 업무연계 등을 고려하여 한동으로 구성되었다.

공장동과 사무동이 맞닿아 있는 Bumper공간에는 중정과 옥외 휴게공간 등의 시설들이 놓여지는데, 이곳

은 이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각 주동선의 모임점과도 일치하고 있다. 특히 중정의 경우 직원들의 휴식공간제공에 주목적이 있었으나 중정하부가 지하 식당층에서 시작하여 건물의 최상부분 즉, 주방용후드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옥탑층 천장 cap까지 연결되어 소음차단과 배기, 환기, 채광 등의 실제후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 회사가 레인지후드를 생산하는 공장임을 감안하여 외양으로나 실지로나 후드의 이미지가 심분발취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비 절감의 일환으로 공장동 외부 canopy의 디테일이 삭감되고 디자인으로 첨부되었던 왕들이 cutting되는 등 수난도 있었고, 사무동 옥탑층 cap을 포함한 부분별 자재변경, 그리고 내부 공간의 인테리어가 미흡한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렇지만 불리한 조건이라 여겨지던 경사지덕분에 오히려 보행 Approach Sequence가 다양해진 점과 풍부한 옥외공간의 제공이 용이했던 점들은 수확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에 다시 공장을 설계할 기회가 주어진다 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들의 유기적 조합과 이용의 편의성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 圖

권문성 /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17
Designed by Kwon Moon-Sung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27-5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361.3㎡
연면적	681.2㎡
건축면적	216.71㎡
건폐율	58.92%
용적률	119.15%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최고높이	11.50m
구조	기존 조적조 + RC조 보강, 철골조
주요설비	온돌
외부 마감	벽/ 크림색 고품토틈벽돌, 적삼목 사이딩 지붕/ 적삼목 사이딩 바닥/ 목재 널 위 오일스테인, 종자갈 콘크리트
내부 마감	바닥/ 온돌 위 미송널 마루, 벽/ 수성페인트 뽕칠, 천장/ 수성페인트 뽕칠, 미송합판
설계담당	이경락, 최갑재연, 이동건
설계기간	2000.1~2000.4
공사기간	2000.4~2000.10
건축주	현암사 조근테
모델	아뜰리에17
인테리어	아뜰리에17
구조	단구조 이성재
설비	대오엔지니어링 김상원
시공자	제효 이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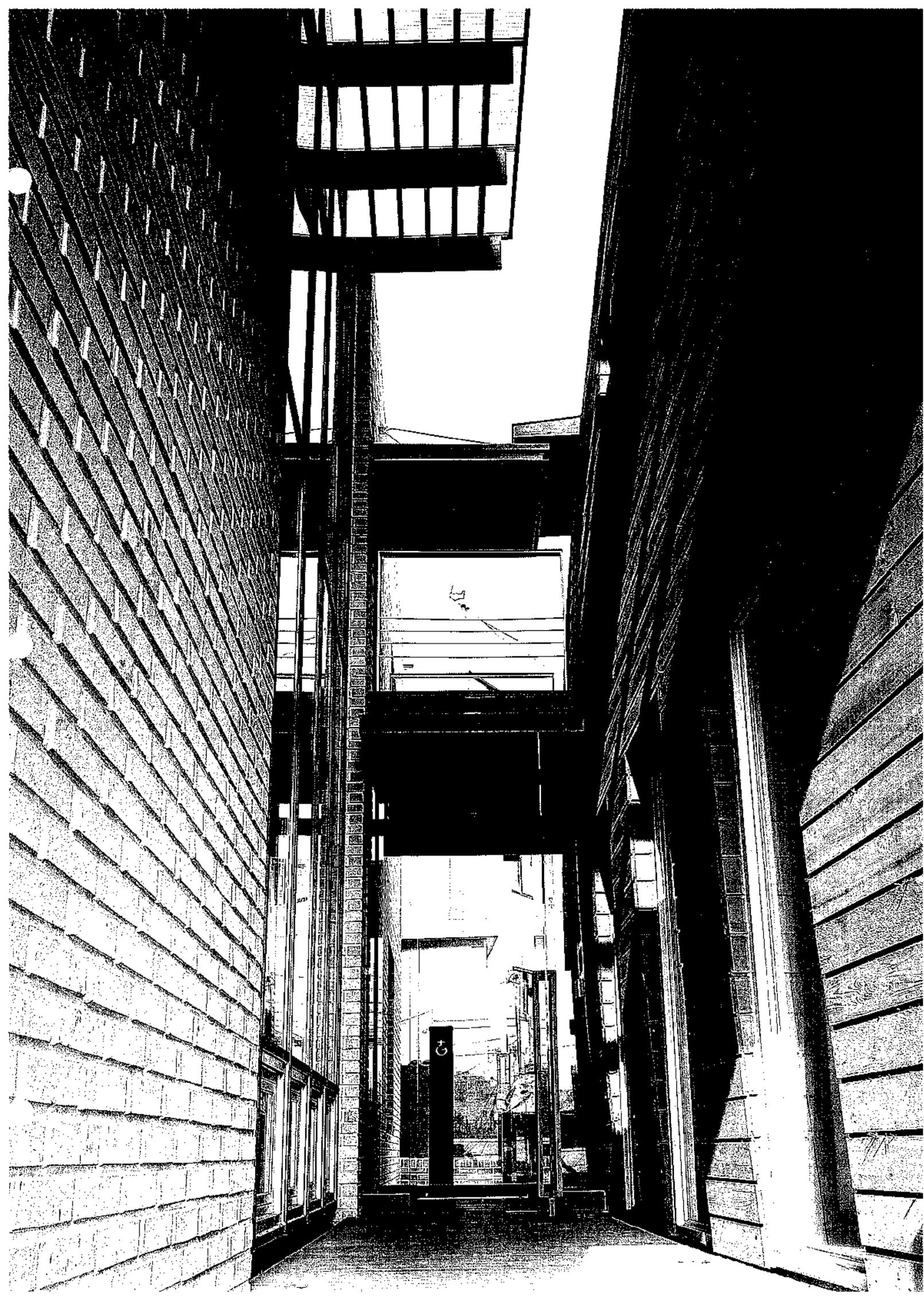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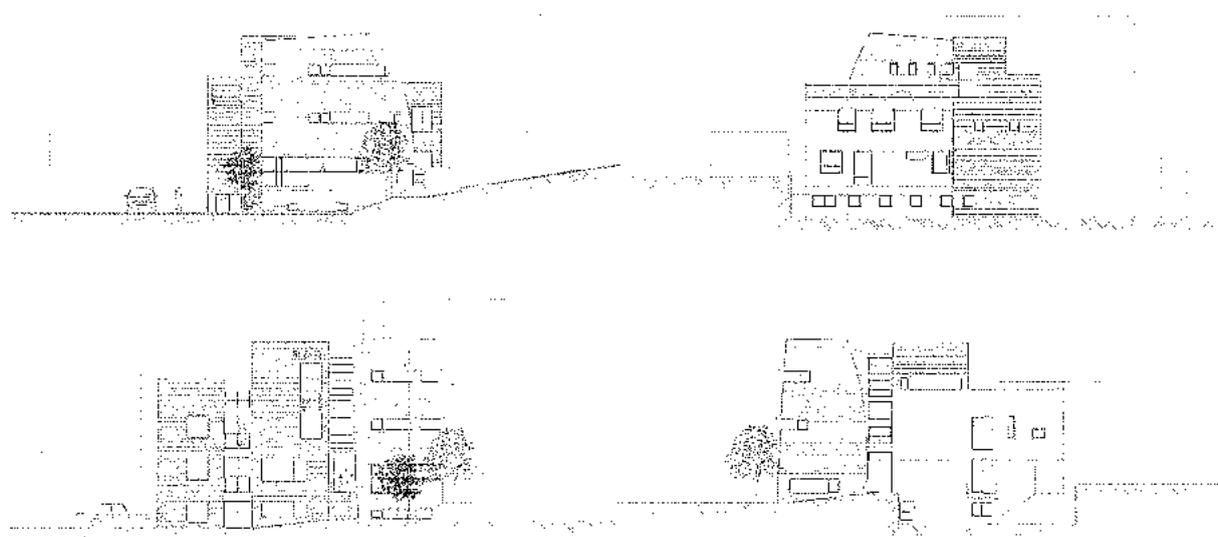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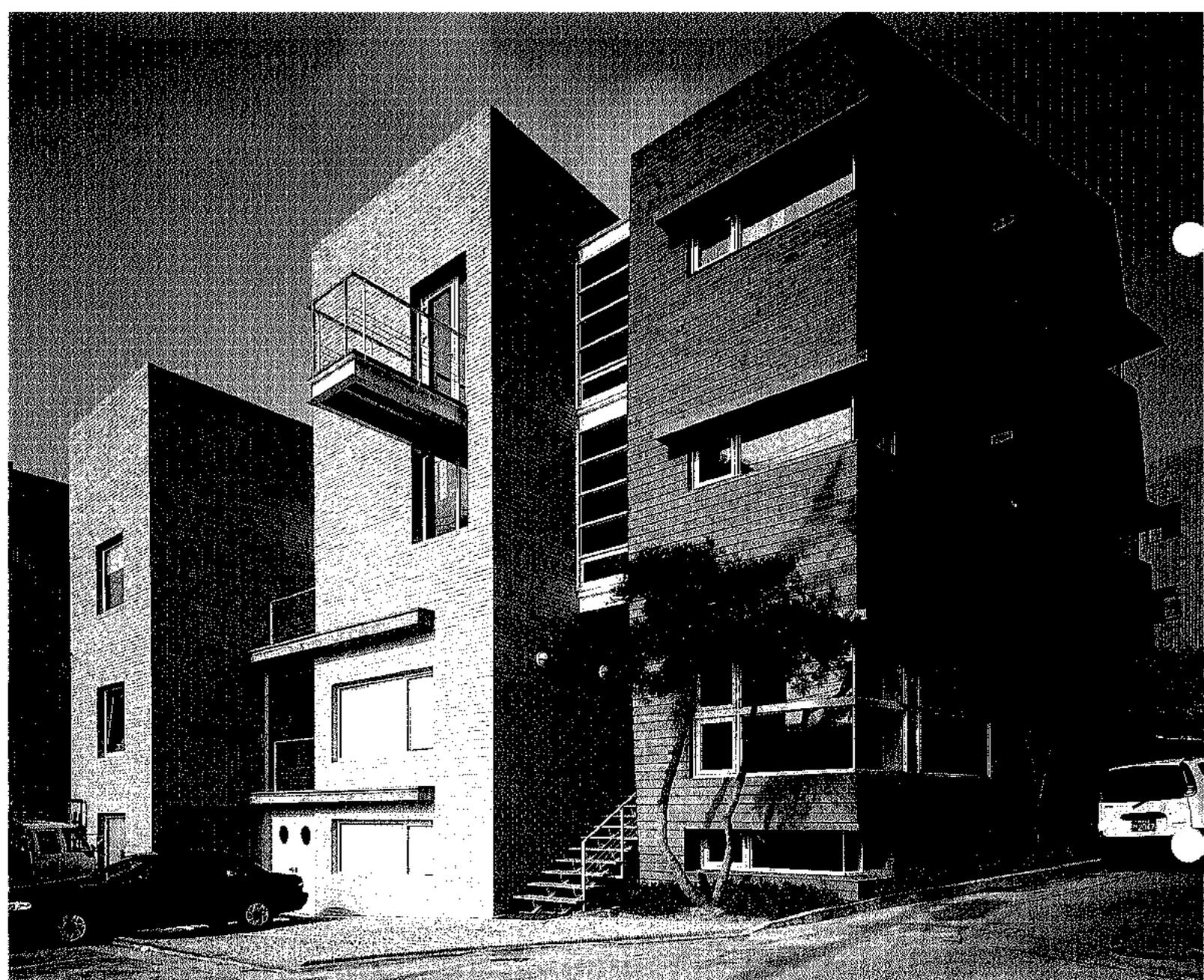
현암사는 아현동 언덕 기슭에 1970년에 지어진 주택을 손봐서 쓰고 있었다.

집을 고치고 덧대어 지으면서 기존 건물 의 가능한 많은 부분을 남겨 사용하고 싶었다. 31년 전 에 집을 지은 사람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찾고 싶 었다. 건물은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으로, 가운데 부분에 통로를 만들어 입구, 복도, 계단을 넣고 양옆으로 거실, 안방, 화장실과 같은 방을 놓았다. 단순하고 합리적인 구 성이다. 2층은 남쪽으로 널찍한 발코니를 만들어 언덕의 올라가는 경사지 동네에 잘 어울리는 매스를 만들었다. 특별히 드러내려는 욕심 없이 당연한 고민을 편하게 풀 어낸 점잖은 주택이었다.

통로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방이 늘어선 기존 건물의 질서를 그대로 새집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오른쪽으로 덧붙여 짓는 집과 기존건물 사이에 통로를 만들었다. 새로 고쳐짓는 건물은 세 줄의 일하는 공간이 늘어서고, 그 사이로 두 줄의 통로가 있는 모습이다. 양 쪽의 통로로 막혀버린 가운데 부분은 슬라브 바닥을 뜯 어내 아트리움을 만들어 지하층까지 햇빛이 잘 들어가게 만들었다. 아트리움에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계단을 놓았 고 아트리움 주변으로 통로가 감아 도는 모습으로 만들 어 집안 곳곳을 한 눈에 느끼며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 다. 층으로 나뉘어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하나의 공간 속 에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폭이 넉넉한 통로에는 아트 리움을 향하여 푸르게 늘어질 '별아이비' 를 심는 플랜트 박스를 만들었다. 통로 안쪽으로는 책꽂이를 벽돌 벽과 두툼한 나무 널로 만들었다.

이곳은 이동공간이면서 전시공간, 수납 공간,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것이다. 고강도 플라스틱으 로 만들어진 천장은 햇빛을 부드럽게 산란시키고, 비가 오는 날이면 빗소리도 잘 들리게 만들 것이다. 외부공간 으로 만들어진 새로 만든 통로와 함께 바깥세상의 이야 기가 집안 구석구석 들어오도록 하였다. 아트리움의 맨 아래 부분인 지하에는 여유 있는 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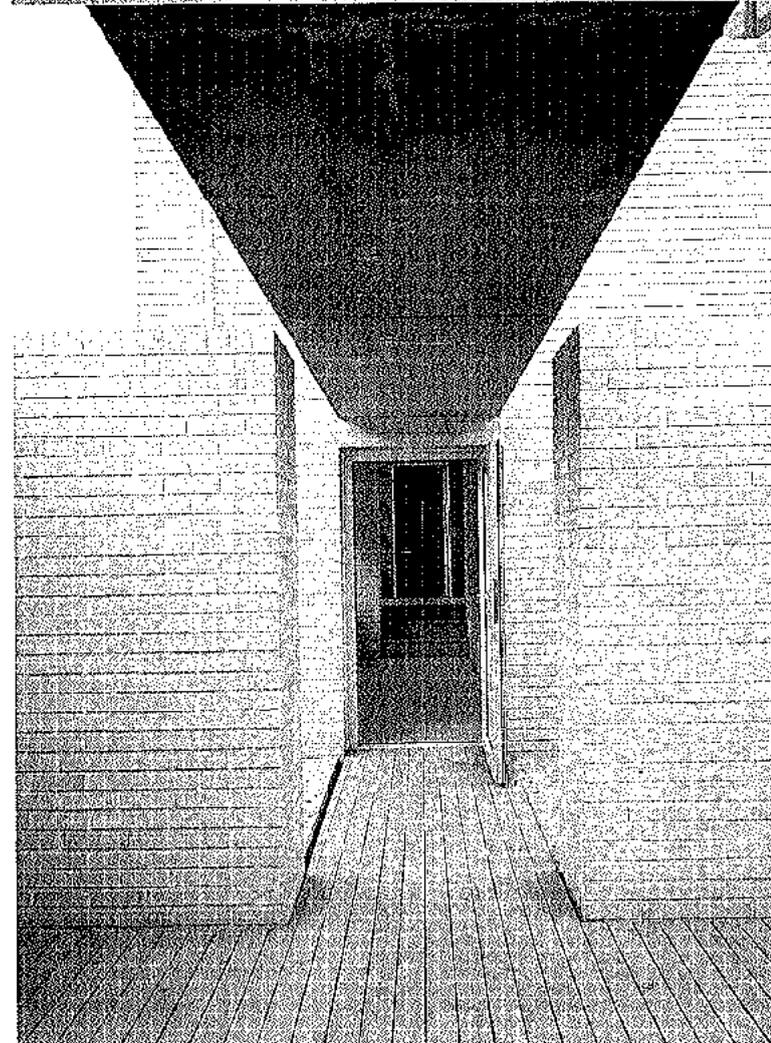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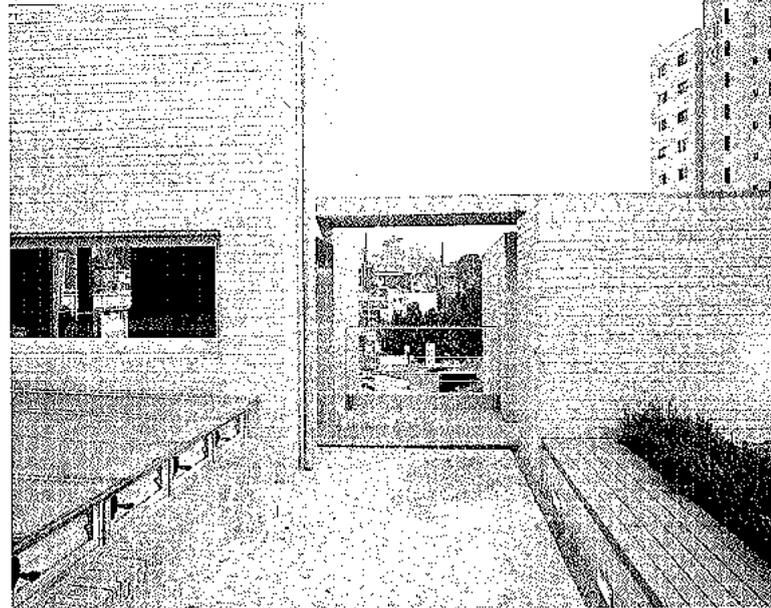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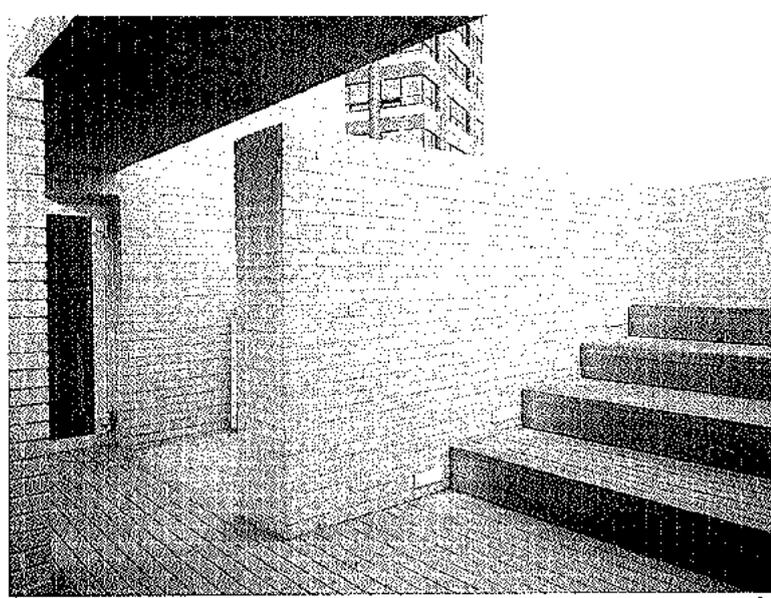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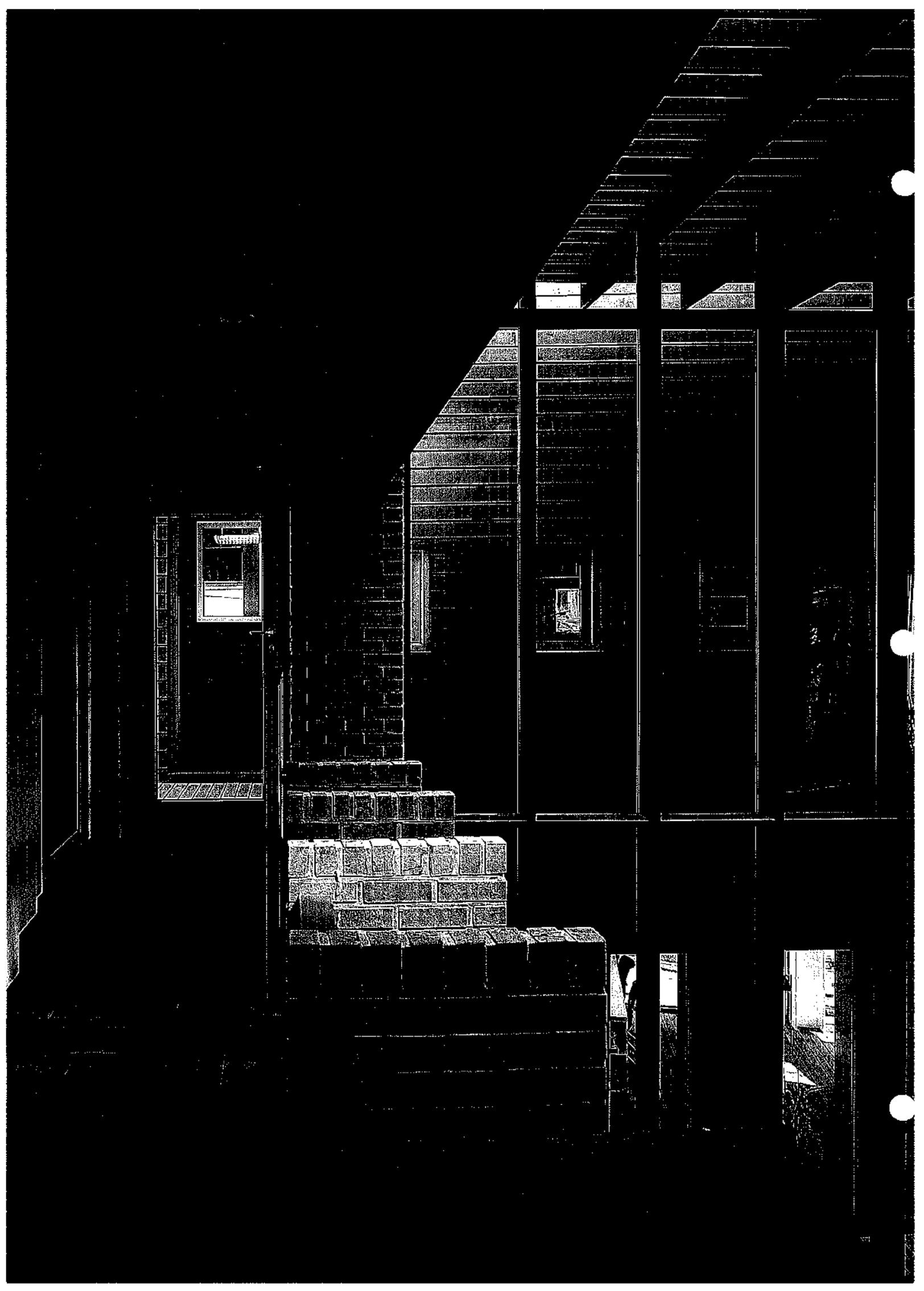
지며, 지하층 세미나 실 앞의 시원한 여유공간 역할을 할 것이다.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하는 통로와 계단 바닥은 나무 널로 마감하였다. 덧 붙여짓는 건물의 외벽과 새로 만든 통로, 아트리움 사이의 커다란 창틀, 계단과 난간의 손잡이를 나무 널로 만들어 집안의 열린 공간에서는 어디를 보아도 비슷한 느낌의 한가지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다. 나무 널은 환경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책을 만들고 있는 출판사의 이미지와 맞아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새로 덧붙인 건물의 남쪽 외벽 나무 널은 햇볕을 반사하여 아트리움 내부에 나무 색의 빛이 창으로 들어갈 것이다.

전체 건물의 형태는 내부 공간 질서인 세 줄의 기능공간과 두 줄의 통로가 그대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셋으로 나뉜 건물은 작은 세 개의 건물이 연이어 서있는 모습으로 잘라진 부분 하나의 크기가 주변의 건물 스케일을 닮아 동네의 이웃집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가운데 부분은 조금 높게 만들고 왼쪽 부분은 조금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다. 기존 건물 부분은 밝은 크림색의 고령토 벽들로 감싸고 기존의 주택의 형태를 드러내는 반듯한 모습이나, 새로 덧붙여진 건물은 이와 대비되게 자유로운 형태로 만들고 나무 널로 감싸, 이미 있었던 건물과 새로 지어진 부분을 저절로 구분하여 느낄 수 있도록 들었다. 덧붙여진 새 건물의 형태는 사선으로 기울어진 대지경계로 이그러진 사각형의 평면이 되었고, 뒤쪽으로 일조권 높이제한에 맞게 기울어진 벽이 덧붙여졌다. 하지만 정면과 오른쪽 길에서 보이는 면은 주변 건물과 같이 반듯한 면이 되게 만들어 변형된 면과 공간을 밖에서는 쉽게 알 수 없도록 숨겨놓았다.

주택을 다시 고쳐 지으면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집안 구석구석을 쉽게 휴먼스케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휴먼스케일을 지켜내고 더욱 익숙하고 다정한 스케일임을 쉽게 깨닫게 만드는 과장된 스케일도 집안 곳곳에 만들었다. 세 개 층이 열려있는 아트리움이 그렇고, 출입구 앞 복도의 계곡과 같은 좁게 하늘로 열린 골목도 그렇다. 또 각층마다 기존 주택의 통로부분을 앞 뒤 외부로 열어주어 외부로 내부공간이 특 트여진 부분도 작은 스케일의 집과 대조적으로 어울리리라 기대하였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 우리나라 출판역사를 그대로 드러내는 반세기가 넘는 연륜의 출판사를 담으려 하였다. 집을 쓰는 사람들, 이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감싸안을 집으로 남기 바란다. ■





The previous office of Hyunamsa was modified house from 1970 on the hill of Ahhyun-dong. Given the task of renovating this old house, it was my wish to preserve as much as possible of what remained for the past three decades. I wanted to search into the intentions of the original builder. The house had a simple yet rational plan - in an almost square form, entrance, hall and stairway were placed on its center with living room, bedroom and rest room on either sides. The southern part of the second floor was planned as a balcony, which enabled the house to melt into the townscape with slanted roofs. Without artistic pretentiousness, it was a noble work that solved its functional requirements with ease.

It was decided that the existing order of placing units on both sides of the center hall space should be maintained. A path was made between the old house and the addition that became attached to its right. The newly built portion had three layers of workspace, with two paths in-between. The middle part, cut off from the others by the two paths, had an opening on its slab to built an atrium that enabled sunlight to reach even the basement floors. Stairs connecting its multiple stories were located in this atrium space, along with the paths spiraling around it, visually manifesting the circulation of the whole organization. Works will be done in each floor, but a sense of integrated space will nevertheless dominate all units. In the rather spacious path was inserted a plant box with star ivies which will grow toward the atrium. In the indoor side of the path, a bookshelf was built with bricks and wood plates, making it beyond its primary function as a path - it now became a space of exhibition, storage and rest. The top light made from high-strength plastic disperses the down falling sunlight, while in rainy days delivers the sound of raindrops. Through this and with the help of the outdoor path that has been added, events of the outside world will successfully reach the corners of the indoor spaces. A spacious hall was naturally made in the lowest floor of the atrium, functioning in relation to the seminar room on the basement. The paths and stairs centered on the atrium were finished with wood plates, the same material that was used in the exterior walls of the newly built portion, the grand window frames between the atrium, stairs and railings. The continuous use of the material which symbolically represented a company that valued nature with its publications also gave a unique and integrated image to the whole composition. In the case of plates on the southern exterior wall of the added building, they would reflect the sunlight and fill the atrium with natural color of the w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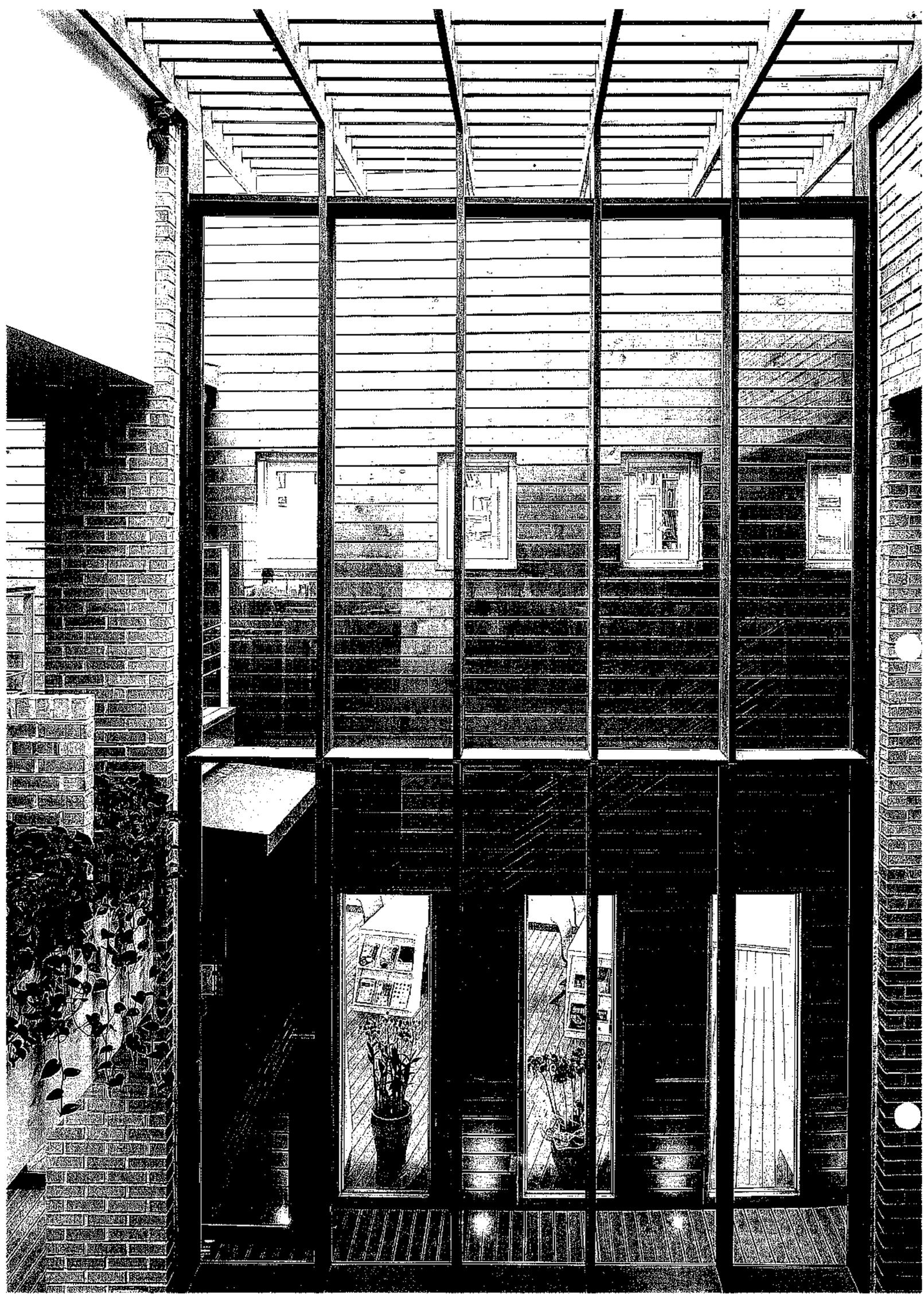
The overall form of the building followed the inner organization of three strips of program spaces and two paths in-between. It is like three separate buildings placed in a row, each with the size and proportion of neighboring houses. The center piece was made slightly higher than the other two, while the left part was a bit

projected forwards. The existing building was covered with cream-colored kaolinite bricks while preserving its pristine form. The addition, on the other hand, was contrastingly given a free form with wood plate finishings, whose effect was a clear discriminative appearance between the old and the new. The latter had an irregular planimetric composition due to the diagonal boundary of the site, and on its rear was added a slanted wall that met the regulations of height restriction. These out-of-the ordinary forms, however, were all placed on the other side of an arranged facade - which were visible from the front and the road on the right - that became the context of the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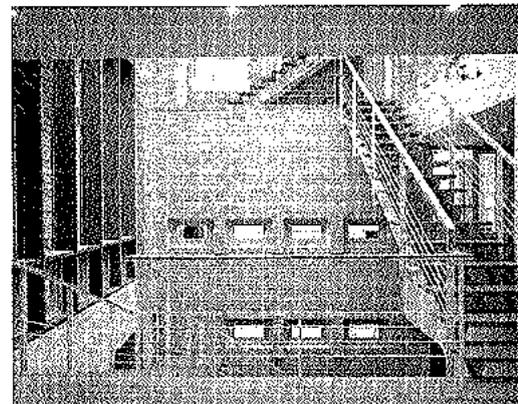
What can be gained from the renovation of an existing house is the ease with which one can plan the additions along the human scale. Some were exaggerated to refresh the users of intimate and warm space - e.g. the atrium cutting through three stories, or the narrow hall from the entrance that opens up to the sky. The opening of paths from the old house into the outdoors - the interior's sudden burst into the outside world - would also create a contrasting harmony with the small-scaled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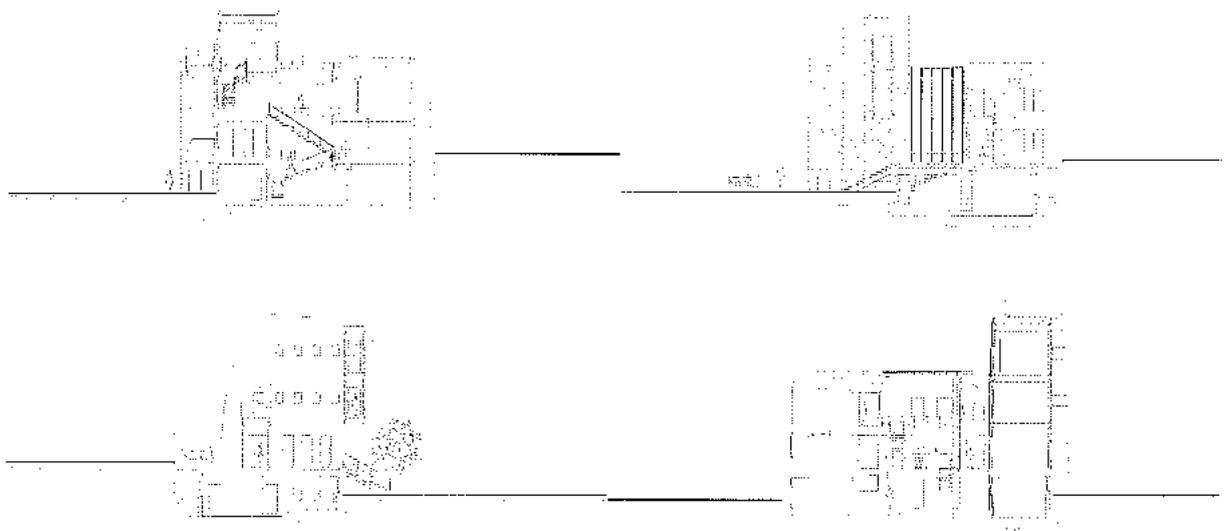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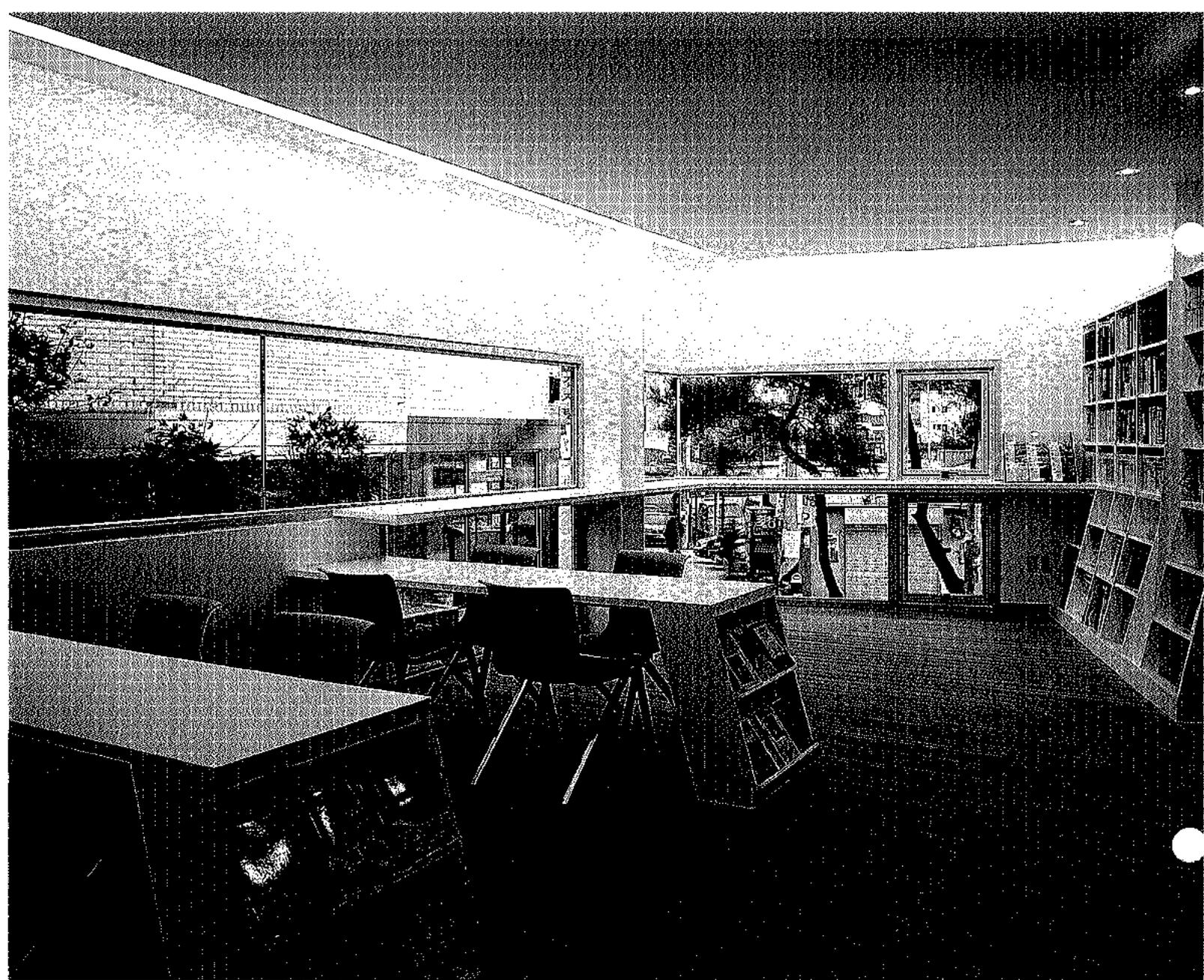
A house for those with love for books, with the history of Korean publications that spans half a century: it is my wish that this house will heartfully welcome and embrace its users and visi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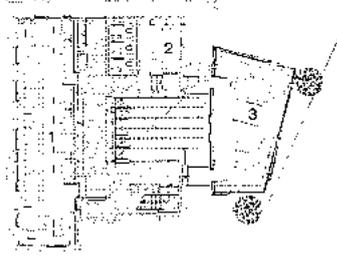


Location 627-5 Ahhyun-dong, Mapo-gu, Seoul
Area Specification Residential District
Main Function Headquarter for publishing company
Site Area 361.3m²
Building Area 681.2m²
Total Floor Area 216.71%
Building Coverage Ratio 58.92%
Gross Floor Ratio 119.15%
Number of Floors 4 including one basement floor
Maximum Height 11.50m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and steel structure
 over existing brick structure
Major Installation Ondol heating system
Exterior Finishing Wall - kaolinite brick, red cedar siding
 Roof - red cedar siding
 Floor - Oil stain on wood plates, cobblestone
 concrete
Interior Finishing Floor - Oregon pine wood plates on Ondol
 Wall - Water gas paint spray
 Ceiling - Water gas paint spray, Oregon pine
 wood plates
Design Team Lee Kyung-rak, Choi-Kim Jae-yeon,
 Lee Dong-kun
Design Period Jan 2000 - Apr 2000
Construction Period Apr 2000 - Oct 2000
Client Cho Kun-tae, Hyunam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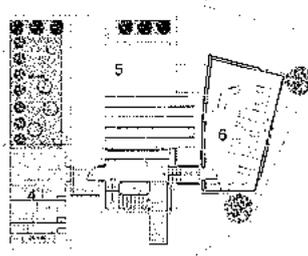




타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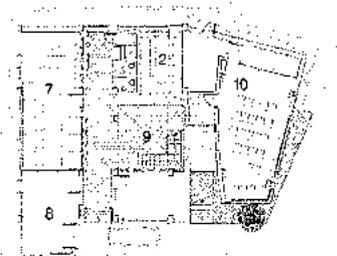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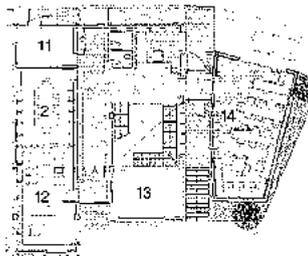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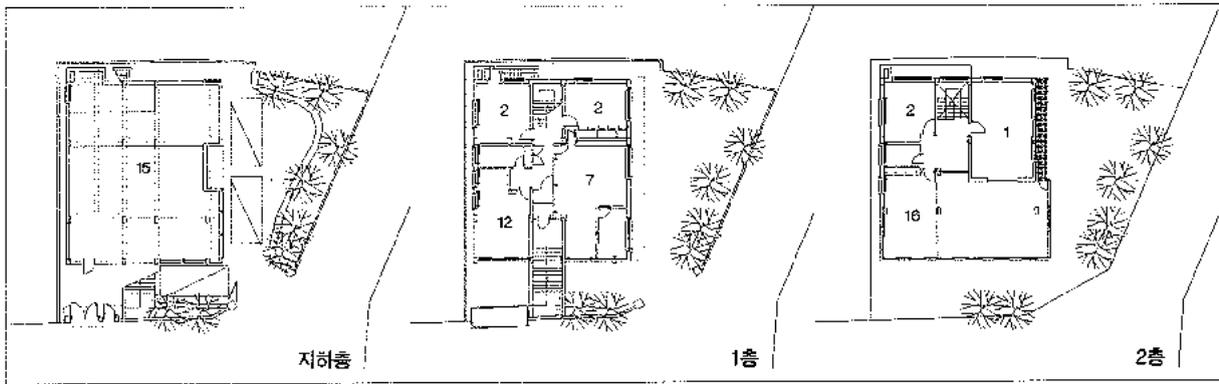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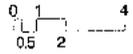
1. 편집부
2. 회의실
3. 주간실
4. 야외정원장
5. 옥상정원
6. 아동부 디자인실
7. 경리/영업부
8. 도서창고
9. 아트리움
10. 세미나실
11. 작가좌업실
12. 사강실
13. 사강방
14. 복카페
15. 도서출납고/창고
16. 회강실
17. 보일러실
18. 식당/부엌
19. 주민침실
20. 침실
21.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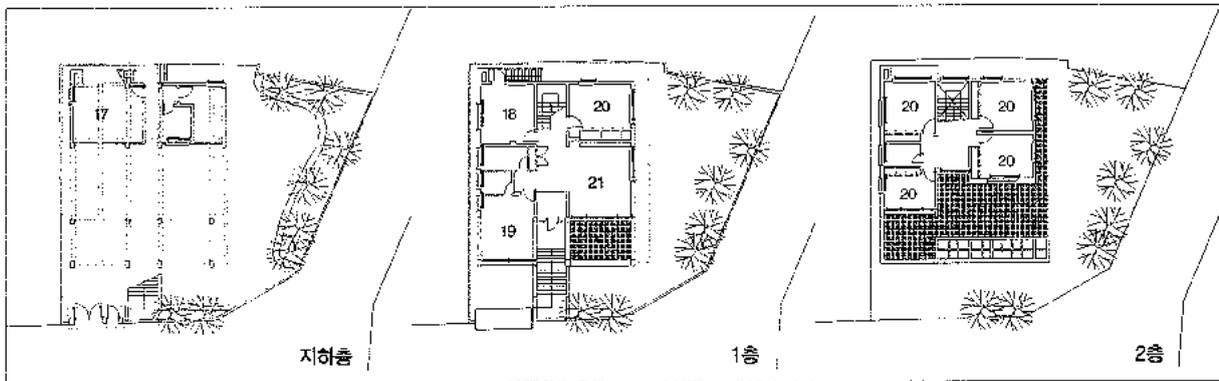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출판사로 쓰던 평면도



1970년에 지어진 주택평면도

혼재와 중첩: 현암사와 은유적 맥락주의

Mixing and Overlapping: Hyunamsa and Metaphoric Contextualism

임석재 /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Yim Seock-J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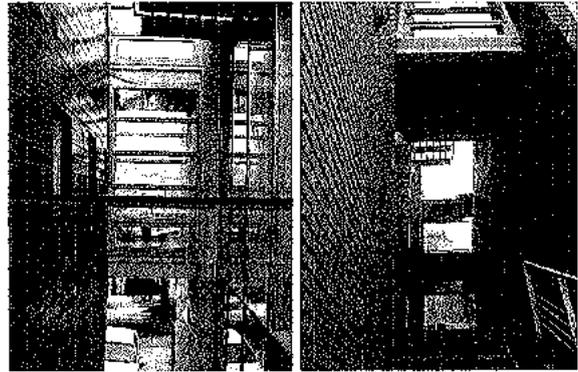
은유적 맥락성

현암사는 현 건물이다. 그러나 새 건물이다. 그러나 사실은 현 건물이다. 현암사는 1970년대 양옥을 리노베이션 한 건물이나 현 건물이다. 그런데 옛날 건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으니 새 건물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옛날 건물이 어땠을지라는 단서를 간접 화법으로 혹은 은유법으로 암시하고 있으니 다시 현 건물이라 할 수 있다.

현암사의 리노베이션은 은유적이다. 현암사에는 옛날 건물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옛날 집의 흔적은 공간 골격에만 남아있다. 어차피 집을 완전히 허물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보니 방들로 구성되는 전체 골격만은 남겨져 있다. 그러나 외관에서 옛날 집의 모습을 얘기해주는 시각 요소는 남아있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리노베이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적어도 리노베이션을 디자인의 관점에서 정의했을 때 그러하다. 왜냐하면 디자인의 관점에서 리노베이션이란 옛날 집이 갖고 있는 조형적 특징을 어느 정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다음 단계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옛날 집의 조형적 특징이 밖으로 드러나야 하며 건축가는 그것을 단서로 삼아 자신의 디자인을 풀어갔다는 내용을 보여줘야 한다. 옛날 집의 특징을 이어받거나, 패러디하거나, 대비적으로 반전시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을 의미한다.

이런 기준에서 보자면 현암사는 리노베이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리노베이션의 출발점이 되는 조형 특징의 기준을 옛날 집에 한정시키는 경우 그러하다. 그럼에도 현암사는 여전히 옛날 집의 모습이 어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현암사에서 옛날 이야기는 맥락주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전개된다. 옛날 집 그 자체가 아닌 주변 환경의 조형적 특징으로부터 디자인의 단서를 찾아낼



현암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옛 것의 존재를 드러내는 정도는 은유적이다. 특정 요소의 직접 차용보다는 은근한 분위기로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은유적 맥락주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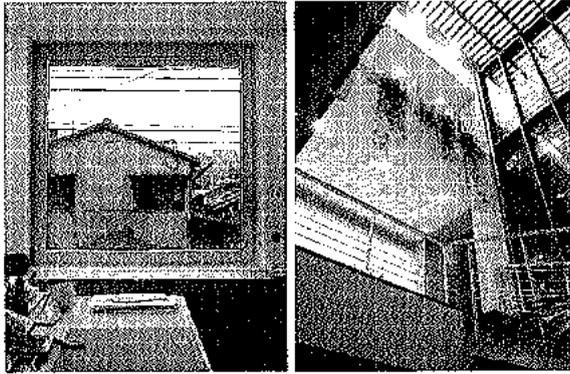
현암사는 전형적인 맥락주의 건물이다. 간선 도로에서 들어오면서 마주치는 첫 인상은 새 건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옛날 건물에 봄맞이 대청소를 한 정도, 혹은 새 단장을 입힌 정도로 느껴진다. 자세히 살펴보면 새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많지 않다. 건물의 외관적 특징을 결정짓는 대표적 요소인 재료, 색채, 형태 등에 있어서 주변 조형 환경과의 연속성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 눈에 맥락주의적 연속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암사의 맥락주의가 갖는 특징은 은유적 연속성이다. 물론 현암사에서 물리적 요소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과의 직접적 유사성이 표현되어 있다. 흔히 얘기하는 맥락주의의 표준적 내용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암사의 진수는 이것이 아니다. 현암사의 맥락적 연속성은 은유적 분위기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매개는 공간적 리듬감, 수평-수직 구조, 디테일 등 세 가지이다.

공간적 리듬감과 수평-수직 구조는 무형의 분위기인 점에서 은유적이다. 디테일은 일차적 시각 요소 속에 은밀히 숨어있기 때문에 은유적이다. 현암사의 은유적 맥락성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성된 맥락주의에 해당된다. 여기에 더하여 직접적 맥락성을 보강하는 역할도 갖는다. 직접적 맥락성과 은유적 맥락성이 합쳐지면서 현암사의 맥락주의는 독특한 분위기를 갖는다. 명쾌함과 부드러움, 엄밀함과 친근함, 반듯함과 자잘함 등의 양면적 분위기가 그러한 독특함의 내용이다.

공간적 리듬감

현암사의 공간은 리드미컬하다. 리듬감은 이완과 긴장의 연속과 반복에서 나온다. 편안한 세 개의 직육면체 매스를 보면서 이완감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곧 동굴 같은 출입구로 접어들면서 긴장감이 시작된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현암사

긴장감은 배가된다. 좁은 협곡 사이에 끼어있는 듯한 긴장감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한 줄기 숨통은 트여있다. 유리의 투명함을 통해 비치는 밝은 빛이 그것이다. 하늘빛과 햇빛이 들어오고 그 옆으로 넓은 실내 광장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인다.

그러나 이조차도 다시 긴장감으로 바뀐다. 빛을 쬐이면서 잠시 한숨을 돌려보지만 이번에는 극도의 분산적 긴장감이 나타난다. 협곡의 양쪽 유리 면을 오가며 빛은 난삽한 교차를 반복한다. 반사는 반사를 낚아 분산된다. 현란함까지 느껴진다. 자연 재료인 나무와 벽돌이 주재료로 사용되면서 만들어내는 안정감과 대비되는 역동적 불안감이 넘쳐난다. 이완과 긴장은 잘 짜여진 반복 작용에서 일탈하여 교차하며 혼재하고 있다.

실내에 들어와서도 이완과 긴장의 교차적 혼재는 반복된다. 무엇보다도 천장까지 뱅 뿜린 큰 진공이 비워져있다. 출입구를 진입하면서 겪었던 극도의 긴장감은 순식간에 탁 풀어진다. 그러나 각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긴장감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계단은 긴 거리를 쉬지 않고 오른다. 혹은 꺾어지며 밑으로 떨어진다. 보이지 않는 좁은 구멍 속으로 빨려들어 가기도 한다.

계단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공간의 분절 자체가 그러하다. 공간은 크게, 그리고 다시 작게 나누어져 있다. 고층 건물의 장쾌함에서 오브제의 아지지기함까지 스케일이 교차하고 있다. 브리지를 건너고 골목길을 지나 각 방으로 흩어진다. 공간이 분절될 때마다 3-4단씩의 계단 변화가 따른다. 10평 짜리 큰방이 단독으로 있다가 0.3평 짜리 작은 방 세 개가 급하게 반복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공간적 리듬감은 서울 골목길의 공간 구조를 은유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서울의 골목길은 넓어졌다 좁아지고 막혔다 꺾이는 리듬감으로 가득 차 있다. 능선 위의 골목길은 경사를 타고 앉아 상승과 하강의 리듬감까지 추가로 갖는다. 그 리듬 또한 급하다가 늘어지는 등 다양한 변화의 연속이다. 이 모든 것들은 서울이라는 주변 환경이 갖는 물리적 맥락적 특성을 이룬다. 현암사의 공간적 리듬감

은 이러한 특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수평-수직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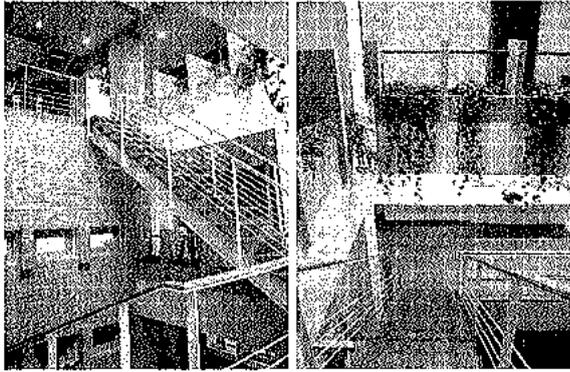
현암사는 수평적이다. 한 층의 크기와 연건평을 비교해볼 때 수평 비례를 갖는다. 건물 규모도 크지 않다. 수직 구도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런데 수직적 느낌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혼재는 매우 의도적이다. 수평 요소와 수직 요소가 단계를 달리하며 교차하고 얽혀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건물 전체의 수평 비례가 결정된다. 이것은 곧 수직 비례로 바뀐다. 수평 방향으로 넓직한 매스를 굳이 셋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나누어진 각 매스는 수직 비례를 갖는다. 건물은 수직 비례를 갖는 매스 세 개가 병렬한 형국으로 구성된다. 수직성이 건물 전체의 느낌을 주도한다. 그러나 본래의 수평성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수평성과 수직성의 혼재이다.

참 처리는 외관에서의 이러한 혼재를 돕는다. 세 매스 가운데 새로 덧붙여진 가장 오른쪽의 매스에서는 수평성만이 쓰이고 있다. 3층에 걸쳐 수평선 세 겹이 반복되면서 강한 수평성이 형성되고 있다. 창에 덧붙여진 처량은 수평성을 보강한다. 밑에서 올려다보면 마지막 층의 처량은 지붕처럼 보이기도 한다. 창이 만들어내는 수평성은 매스 전체의 수직성과 혼재된다.

중간 매스에서의 혼재는 더 독특하다. 하층부에는 수평 방향의 창이 쓰이고 있다. 하층부의 접지적 특성과 합쳐지면서 수평성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에 상층부에는 수직 방향의 창이 쓰이고 있다. 상층부의 양천적 특징과 합쳐지면서 수직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직 방향의 창 한 가운데에서 발코니가 공중에 길게 돌출하고 있다. 이 발코니는 물리적으로는 수평선을 만든다. 그러나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발코니는 심리적으로는 수직적으로 읽힌다. 묘한 전환이다. 수평-수직의 혼재는 더욱 복합적으로 읽힌다.

실내에서도 혼재는 계속된다. 출입구를 면한 한 쪽 면은 전면 유리로 처리되어 있다. 이 유리면은 수직 방향의 멀리온으로 분할되어 있다. 분할 방향 자체가 일단 수직성을 만들어 놓는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할은 고층 오피스 건물에서 쓰이는 전형적 처리이다. 고층 오피스에 대한 강한 연상 작용을 갖는다. 모습 자체가 갖는 형태상의 수직성에 연상 작용을 통한 수직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수직성은 강조된다. 작은 공간에서는 느끼기 힘든 수직성이다.

멀리온을 이용한 수직 분할 모티브는 복도 난간과 불락이 책꽂이 등 실내의 다른 곳에서 반복된다. 이 사이를 수평선이 가르며 지나간다. 전면 유리로 처리된 면을 접한 옆면에는 수평 방향의 창이 뚫려있다. 수직벽으로 구획



현암사

된 복도 난간에는 수평선이 한 줄 그어져 있다. 굵은 줄 한 줄이 굵은 일획은 강한 수평선을 만들어낸다. 반면 계단 난간은 여러 겹의 얇은 수평선으로 구성된다.

수평선과 수직선의 이러한 혼재 역시 주변 환경에 대한 맥락적 해석의 의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때의 맥락적 해석이란 현암사가 놓인 주변이라는 미시적 환경 단위일 수도 있고 서울이라는 거시적 환경 단위일 수도 있다. 현암사 주변의 아현동을 보자. 이 일대 골목은 아직 1980년대 이전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1980년대 이후의 변화가 섞여 나타나고 있다. 수평선과 수직선의 혼재는 이런 변화의 산물로 아현동 골목 속에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까지 형성된 소형 환경들은 수평선으로 구성된다. 반면 이후 형성된 소형 환경들은 수직선으로 구성된다.

이런 혼재 현상은 넓게 보면 서울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다시 한국 현대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수평선으로 대표되는 전통 문명이 수직선으로 대표되는 산업 문명으로 바뀌어 가는 중첩 현상이 그것이다. 물론 한국의 현대화는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첩보다는 파괴 혹은 급속한 대체를 그 특징으로 갖는다. 파괴나 급속한 대체는 흔히 한국 현대사의 부정적 현상으로 얘기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중첩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 현대사를 대표한다기보다는 부정적 현상에 대한 대안의 의미를 갖는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현동 골목은 혼란스럽고 지저분하다. 아직 옛날 골격이 유지되는 가운데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그 사이를 비집고 가능한 한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다. 혼잡과 불편함은 가중된다. 급격한 재개발에 익숙해진 눈에는 아현동 골목 속은 재래 골격의 후진성으로만 느껴진다. 그러나 아현동 골목의 혼재는 한국 현대사의 부정적 현상에 대한 대안이라는 또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 이것은 기능이나 효율과는 다른 문제이다. 아현동 골목의 혼재는 곧 중첩이다. 1960년

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몇 십 년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중첩의 기록이자 물리적 증거이다. 현암사의 수평-수직 혼재는 이러한 기록과 증거에 대한 맥락적 해석이다.

디테일과 맥락적 단서

현암사는 맥락주의 건물이다. 맥락주의는 맥락과의 연속성을 기본 입장으로 갖는다. 이때 연속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맥락 속에 형성된 물리적 특징에서부터 정신적 상징성에 이르기까지 건축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모두이다. 현암사를 둘러싼 맥락은 수평성과 수직성이 혼재된 특징을 갖는다. 이에 대한 현암사의 건축적 해석은 두 단계로 일어난다. 첫 번째 단계는 그러한 혼재를 중첩으로 읽어내는 해석이다. 앞에서 살펴본 수평-수직 구조의 주제가 그 내용이다.

두 번째 단계는 혼재 가운데에서도 특히 수평선의 강조를 통해 맥락적 상황에 대한 시대적 해석을 내리고 있다. 수평선의 강조는 디테일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 현암사에는 세 가지의 대표적 디테일이 쓰이고 있다. 첫 번째는 건물 몸통의 모서리를 끼고 두 면에 걸쳐 나있는 창이다. 이때 차양이 덧붙여지면서 수평선이 형성된다. 두 번째는 판재의 단면이 수평 방향으로 노출되면서 선형으로 얽히도록 한 처리이다. 이 선형은 강한 일획의 수평선아 된다. 앞의 첫 번째 수평창의 차양 역시 이러한 처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교차점의 디테일을 가능한 한 없앤 처리이다. 일단 부재 자체를 잔손질이 최소화된 가장 단순한 상태로 쓰고 있다. 목재의 경우 단조로운 각목이 반복되고 있다. 벽돌의 경우에도 내어쌓기나 들여쌓기 등의 단쌓기가 억제되고 있다. 부재와 부재가 만날 때도 교차점의 디테일이 최소화되어 있다. 단순한 잇기나 덧대기에 가깝다. 있다고 해도 약간의 관입 정도가 고작이다. 건축가가 직접 디자인한 몇 개의 가구 역시 잔손질이 최소화되어 있다.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각목의 투박함이라는 나름대로의 멋이 있다.

물론 모든 건물들의 디테일이 화려하고 과다한 것은 아니다. 현암사만큼의 디테일이 없는 건물도 부지기수이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디테일이 없는 경우이다. 이것은 다시 디테일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즉 디테일을 조형 어휘로 삼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에 반해 현암사에는 디테일에 대한 고민이 있다. 디테일도 있다. 다만 그 정도가 최소화되어 있다. 이것은 현암사의 디테일만이 갖는 특징이다.

이런 디테일 처리는 건축에서의 산업 이미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것은 다시 현대 건축의 강박 관념 가운데 하나인 구조적 종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 현대 건축에는 성기 모더니즘에서 구조주의 그리고 다시 후기 모더니즘으로 이어지는 공통적인 강박 관념이 하나

있다. 구조적 종속이 그것이다. 한국의 현대화 과정 역시 이런 강박 관념이 제3세계에서 정치 경제적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현대화 과정은 이와 같은 강박 관념의 산물이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보았을 때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다. 세계 전체의 현대 건축에서 보았을 때 구조적 종속의 강박 관념은 두 가지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한 가지는 디테일의 과다이고 다른 한 가지는 디테일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는 경우이다. 전자는 주로 고급 양식 운동에서 나타났고 후자는 소위 집장사 집에서 나타났다.

한국의 현대화 과정은 후자가 비정상적으로 번성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변을 가득 채운 무표정한 단순 육면체 건물들이 그것이다. 디테일은 철저히 지워져 있다. 디테일의 부재는 효율이라는 물신을 숭배한다. 디테일의 과다가 건물의 높이를 보장해주는 것과 반대적 의미에서 동의어이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한국적 상황 아래에서 디테일의 과다는 디테일의 부재와 동의어이다.

디테일의 부재와 디테일의 과다 모두 구조적 종속이라는 강박 관념의 부산물이다. 이 강박 관념은 압축 현대화를 지향한다. 수직선은 그 이면에 숨은 조형 욕구이다. 이 조형 욕구는 산업 이미지를 통해 나타난다. 현암사의 디테일은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 억제되어 있던 디테일을 다시 불러들임으로써 디테일의 부재를 불식시킨다. 그러나 디테일은 과다하지 않고 최소화되어 있다. 디테일의 부재와 동의어인 디테일의 과다를 함께 견제한다. 이같은 현암사의 디테일은 수직선의 조형 욕구를 거부한다. 이것은 결국 수평선을 지향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이처럼 현암사의 조형 어휘를 구성하는 대표적 세 가지 디테일은 모두 수평선을 지향한다. 이 세 가지 디테일은 모두 주변 환경에서 따온 것이다. 혹은 리노베이션되기 전 옛날 집에 있던 것일 수도 있다. 첫 번째 디테일은 현암사를 마주보고 서 있는 오래된 낡은 집에서 관찰된다. 두 번째 디테일은 그 옆의 집에서 관찰된다. 1층 바닥 슬래브를 노출시켜 수평선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 디테일은 이 집의 담에서 관찰된다.

주변 환경에서 찾아지는 이 세 가지 모티브는 이처럼 현암사를 구성하는 조형 어휘의 디테일을 결정한다. 이것은 곧 세 가지 디테일이 주변 환경에 대한 맥락적 해석의 입장을 대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 가지 디테일이 수평선을 지향함으로써 건축가의 맥락적 입장 역시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디테일은 맥락적 단서를 제공하며 이 단서는 건물 전체에 나타나는 맥락주의의 출발점을 이룬다.

수평선이 강조되었다 함은 잃어버린 전통 가치의 연속을 지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직선과의 일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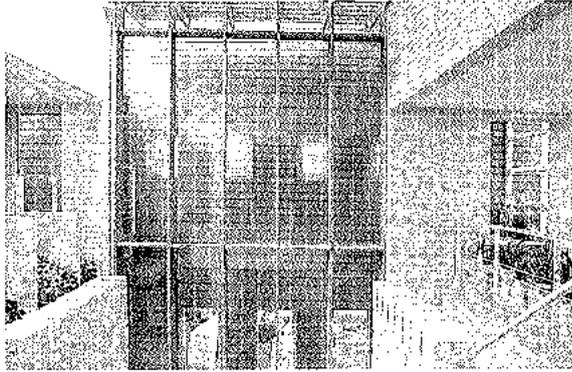
현암사

혼재가 유지된다. 이것은 수직선으로 상징되는 발전 제일주의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포한다. 역사 전개를 이끄는 동인으로서의 발전 지향성이 갖는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겠다는 타협적 시대관을 의미한다. 맥락주의에 내포된 과격한 회귀성을 조심스럽게 중화시켜보려는 조형 의도이다.

현암사의 맥락주의가 갖는 의미는 이처럼 미묘하다. 끊임없이 관찰되는 양면성은 건축가의 의도를 감추고 있는 듯 하다. 보기에 따라서 현암사의 맥락적 연속성은 너무 순하기도 하다. '숨숨하다' 고까지 할만하다. 원래 맥락주의에는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이 오히려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역설이 있다. 지독한 역설일 수 있지만 맥락주의의 양식학적 중요성은 이러한 역설에서 나온다.

현암사에서는 이것을 피하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수직선의 상징성을 안정하겠다는 기본적 시대관이 있다. 맥락적 연속성은 이렇게 인정된 수직선이 수평선과 어울리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수직선의 상징성이 갖는 현실적 당위성을 인정하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온화한 모습으로 중화되어 있다. 이러한 어울림은 한국 현대사를 혼재와 중첩 사이의 대응 개념으로 풀어낸 의미를 갖는다. 혼재로 상징되는 한국 현대사의 부정적 측면에서 중첩의 가능성이 읽혀지고 있다. 이것은 다시 혼재로 전환되어 건축 어휘로 표현되고 있다.

현암사의 출발점이 된 1970년대 양육이 갖는 시대성이 있다. 서울의 현대화 과정을 담당했던 조형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다. 아현동 골목길도 이제 90년대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직도 군데군데 1970년대의 모습이 남아있다. 현암사는 이것을 디자인 모티브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제 1970년대의 흔적도 사라질 것이다. 그 흔적은 현암사에서 1990년대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있다. 1970년대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 현암사는 그 모습이 어떠했다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



현암사

Metaphoric Contextualism

Hyunamsa is an old building, yet new. But in fact, it's old. As a renovated work of a western style house from the 1970s, it is old, but since it is now hard to trace its original form, it is as good as new. But then, it succeeds to allude to its past appearance through indirect speech or metaphors, so we can again say it is old. The renovation of Hyunamsa is metaphorical. There isn't a single scene that directly manifests its previous form; they are merely traceable through the spatial frames. Total destruction of the old house must have been out of the question, so the overall skeleton of the organization remains, but its exterior skin bears no visual signs of its history. In a sense, it could be beyond the usual definition of renovation - at least in the sense we define it in terms of design, which is the process and work of planning that is based on and partially preserves the formal features of the existing object. The qualities of the old can either be introduced into the new, or, in other cases, inverted or parodied. Hyunamsa, however, has not preserved any appearance of the old house. But this does not mean that its story is thoroughly distilled - it is delivered through the method of contextualism. The keys to reveal the work's secrets in design are in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not the old house. The presence of the old is metaphorically manifested - without direct import of certain elements, but through subtle atmosphere. This is metaphorical contextualism.

Hyunamsa is a typical building of contextualism. Its first sight from the approaching road certainly does not impress the viewer as a brand new building - it's more like a building undergone a major facelift. Even when one recognizes that it is a new office building, there isn't much area where it actually feels new. Material, color and form - the major elements that define the facade of a building - are all linked to those from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t is apparent that contextual continuity played a great part in the overall design. The contextualism of Hyunamsa, however, is not only that of physical similarity with its surrounding environment - which characterizes the majority of its kind - but also that of metaphorical continuity. The media with which such continuity is established are spatial rhythm, horizontal-vertical composition, and detail.

Sense of Rhythm in Space

The space of Hyunamsa is rhythmical. A sense of rhythm comes from the alternation and repetition of tension and relaxation. Hyunamsa starts off by relaxing the viewer with its three volumes, easily laid out on the site. However, tension starts to build up as one steps into the cave-like entrance. Looking up to the sky, the stress becomes apparent, as one would feel when trapped between a gorge. There is still a room to breathe, in the bright light penetrating the transparency of the glass. Next to the views of sky and sunlight is a sight of spacious indoor plaza.

But even this is transformed into tension. Our

relaxation is brief, and is followed by an extreme and dispersing tension - bouncing out of both sides of the glass alley, lights create reflection upon reflection, inducing even vertigo upon the visitor. This schizophrenic dynamism creates a sharp contrast to the settled atmosphere stemming from the use of dominant natural materials such as wood and bricks. The repetition of tension and relaxation breaks away from the well-staged play of these emotions and become intersected and mingled. This alternating play extends to the interior, primarily through the grand void that reaches up to the ceiling. The oppression one felt in the entrance space is suddenly loosened up, but not for long - tensions return in the process of reaching its various rooms, and in walking up the stairs that mercilessly extends itself to the destination without interruption. The articulation of space also follows the principle of the stairs. Spaces are cut down in all sizes from large bulks and minute scales. It simultaneously has the grandness of a skyscraper and the sweet charm of small objects. Circulation crosses the bridge, passes the alley and finally disbands into the rooms. Whenever a space is articulated, three to four steps of level shift follows. Large rooms are abruptly broken into a set of three small spaces. This spatial rhythm is a metaphoric reading of the alleys of Seoul - they are full of rhythms that alternate between wideness and narrowness, bending and blocking. In the hillock regions, they are further added with rhythms of ascent and descent. These rhythms are full of abrupt changes, with both speed and sluggishness. They create the physical, contextual characteristic of its surrounding - i.e. Seoul. The sense of rhythm manifested in the space of Hyunamsa succeeds in a metaphorical expression of this dynamism.

Horizontal-Vertical Compositions

Hyunamsa is for the most part horizontal - its single floor stretches along the site. Since it is not spacious, there is no room for the vertical to bud in. Strange, that it still manages to provide a sense of verticality as well. This mixture is thoroughly intended, as elements from the two directions cross each other in various phases. In the first basic step, the horizontal proportion of the overall mass is decided, which directly translates into vertical proportion. The flat volume is cut into three, now each with vertical dimensions, juxtaposed one after another. A sense of the vertical now dominates the scene, but the primary horizontal aspect leaves its vestige. This is the mixture between the horizontal and the vertical. The windows from the outside enhance this combination. Among the three masses, the one on the right - the newly built portion - only has strip windows, in all three stories. This horizontal aspect is reinforced by the window shades that stretch along the window, and creates an interplay of axes with the verticality of the volume.

This blend is also apparent in the volume in the middle, whose ribbon window in the lower level adds to the horizontal orientation directed by its relation to the ground, while the vertical windows in the upper story enhances the direction towards the sky. Plus, along the vertical window is projected a balcony which physically creates a horizontal line, when its view from the ground dramatically turns it into a vertical element. The complexity of such mixture is thus achieved. The interior can be read in a similar manner, with elements such as mullions used to construct the complex mixture between the horizontal and the vertical. This mixture also seems to be intended as a contextual analysis on its surrounding environment, which can be either the microcosmic town where it is located or the broader context of Seoul. First let us look at the district of Ahhyun-dong. Although the basic structure of the old alleys remains, many modifications have been made since the 1980s. The blend of horizontal and vertical elements can be pointed out as a result of such development, since the former can represent those physical environments constructed until the 1970s, while the newly built generally has the quality of the latter.

This is not a phenomenon limited to this town - it is virtually shared in all parts of the metropolis, and even bears symbolical meaning within the process of Korean modern history. The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the horizontal) has been eclipsed, penetrated, and superimposed by the industrial civilization (the vertical). Since our modernization had gone through an intense process, it would be safe to say that destruction or rapid replacement is more appropriate for its description than juxtaposition. But such aggressive expressions are arguably used in a negative sense, and in this respect, if there is a trace of overlapping, it would be a counterproposal for our recent history, not its representation. The alleys of Ahhyun-dong is somewhat incomprehensible and grimy - within the traditional fabric, new additions make full use of its space and the permitted height, ultimately degenerating the overall living condition. To the eyes accustomed to redevelopments that prefer to start over in clean slate, such mixture definitely seems to be behind the times. But it is also important as an alternative choice against the negative phenomena of contemporary Seoul. This is not a matter of function or efficiency. The mixed facets of Ahhyun-dong's alleys are a record and physical proof of superimpositions that had been in play since the 1960s to the 1990s. The mixture of the horizontal and the vertical in Hyunamsa is then a contextual reading of this record and physical proof.

Details and Contextual Clue

Hyunamsa is a work of contextualism, which is based on the object's continuity with the context. There can be many criteria for the judgement of continuity - physical characteristics generated through context, mental symbolism, or anything that can be subject to architectural interpretation. The context surrounding Hyunamsa is a mixture of the horizontal and the vertical, and the understanding of Hyunamsa can follow two steps: first, reading it as a superimposition of this assortment, ala the composition of the horizontal and the vertical analyzed above; and second, emphasizing the horizontal aspects within the mixture and implementing a historical analysis on the condition of the surrounding context. Stressing the horizontal can be found in its details, which can be categorized in three: first, there are the windows spanning two sides of the building's main body. The addition of sunshades forms the horizontal line. The second is the plates, whose sections are exposed in the horizontal direction. This creates a strong line along the horizontal axis, the effect of which is also achieved by the above-mentioned sunshades. The third concerns the crossing parts, where details are as much repressed as possible. The basic elements themselves are primarily reduced to the most simplistic form - wood, for example, are used repetitively as baulks. Brickwork also follows simple bonds, and the detailing of crossing points between elements is usually reduced. Some pieces of furniture the architect himself has designed also have minimized details. Simple and rough, they have idiosyncratic features of their own.

This does not mean that most buildings share an extravagant obsession with details. There are certainly many works that have less detail than Hyunamsa. But those are mostly without details from the very start, without taking it into account as a formal vocabulary. Hyunamsa, however, has details and displays the builder's great concern for them. There are simply minimized, and this is what sets it apart from other detail-less buildings. These details have the effect of oppressing the industrial images from the field of architecture. It also represents a freedom from the structural subjection, which is one of the obsession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 one that can be linked from late modernism, structuralism, and high modernism before it. The modernization of Korea also experienced this state of mind, especially when it fell into place with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of the Third World.

As our process of modernization was a result of this

obsession, architecturally there is a negative connotation to it. Approaching this issue from the world scene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the structural subjection produced two unfortunate results: one is the overindulgence on detail, and the other, its total negligence. The former has taken place in the so-called style movements, while the latter proliferated in numerous buildings that were not deemed as Art.

The modernization of Korea was an extraordinary case where the latter phenomena were dominant. What we now have surrounding us are endless rows of faceless boxes that, in the name of efficiency, have erased details. The fact that excessive details secure the height of the building is its synonym in the wrong sense. In this respect, at least in our condition, extravagance of detail is synonymous with the absence of detail. Both absence of and overindulgence in details are byproducts of the obsession of structural subjection that endorses condensed modernization, whose formal expression is the vertical line. Its will to form is manifested in industrial images. The details of Hyunamsa, however, reject them all. The repressed details are returned only to wipe out the absence of detail. But they are never overdone, since that would be no different from its absence. The details of Hyunamsa stand against the will to create vertical lines, which ultimately results in enhancing the horizontal.

Hence the three representative details of the office building aspire to become horizontal. All three have been extracted from the neighboring environment, or from the old house before the renovation. The first detail can be found in an old house that sits across the street from Hyunamsa; the second in its neighboring house, which exposed the slab of the first floor to emphasize its horizontal line; and finally, the third in the fence of this house. These three motifs from the surrounding determine the details of Hyunamsa's formal language, and represent a contextual understanding on the environment. As the details follow the horizontal line, the contextual stance of the architect can also be understood similarly - details provide a contextual clue, which in turn sets the base point for contextualism displayed in the overall building. Its emphasis of horizontal lines alludes to its will to restore our traditional values. But this is implemented within its interplay of mixture with the vertical, and what it symbolizes - the firm belief in progress - hasn't been totally denied. It is a sort of eclectic stance, neutralizing the radical regressiveness inherent in contextualism by its forms. The contextualism of Hyunamsa is thus subtle and complex. Double-faced aspects continuously found in this work seems to be obscuring the intention of the architect. In a sense the contextual continuity of Hyunamsa even seems too mild. There is a paradox in contextualism that a continuity from the surrounding environment may at times feel shocking. It is through this irony that contextualism bears its importance in the history of styles. Hyunamsa deliberately denies this. Its basic reading of the world confirms the symbolism of the vertical in our modern history. The contextual continuity is set within the boundary where the approved verticality becomes harmonious with the horizontal. This settle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read our history in terms of interaction between mixture and superimposition. In the negative aspect of our modern history represented by mixture, a possibility of superimposition is read. This is then translated to mixture again and expressed as an architectural vocabulary.

There is that period color of the western style house built in the 1970s, which now became the outset for Hyunamsa. It is part of the various formal phenomena that progressed the modernization of this country. The alleys of Ahhyun-dong, redeveloped in the last decade yet still left with vestiges of the 1970s,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the design motifs for Hyunamsa. Now the remaining tracks will also disappear, but leave their mark on Hyunamsa in 1990s style. When all things of the 1970s vanish, Hyunamsa will be there to tell their story.

전통건축의 교훈

Learning from Traditional Architecture

건축사 / 권문성(건축사사무소 이플리에17)
 대담자 / 전봉희(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일시 / 2001년 3월 8일 오후 7시~9시
 장소 / 현암사 1층 북카페 '세상으로 열린 집'



대담장면 (왼쪽:전봉희, 오른쪽:권문성)

건축가 권문성과의 대담은 현암사의 1층에 자리한 북카페 '세상으로 열린 집'에서 진행되었다. 이곳은 현암사 가족들에게는 외부인들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고, 또 주변의 지역민들에게는 동네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대담은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그 전에 작가의 안내로 현암사의 이곳저곳을 비교적 자세히 구경하면서 작품에 대해 그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전봉희___ 반갑습니다. 그간 틈틈이 뵈기는 했어도 이렇게 정식으로 건축이야기를 놓고 마주한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 전 건축사지로부터 대담 의뢰를 받고 잠시 의아하게 생각되기도 하였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져온 분이라 한번 만나고픈 욕심에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나섰습니다. 혹시 제가 눈이 어두워 잘못 본 점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또 때로 조금 실례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사실 크게 여쭙고 싶은 것을 두 가지 정도 정리해왔습니다만,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조금 돌아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죠. 우선 한국건축가협회상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이 처음 수상하신 것인가요?

권문성___ 95년 10월에 사무실을 시작했고 첫 작업이 '일산22393주택'입니다. 그 주택으로 '1996년 경기도 건축문화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봉희___ 그 외에도 일산주택을 몇 개 하셨죠?

권문성___ 단독주택은 두 채이고, 그 외에도 다가구 주택까지 포함하면 서너 채 더 했습니다.

전봉희___ 큰 일보다는 작은 규모의 작업들을 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어느 정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실 규모는 어느 정도이신지?

권문성___ 매년 평균 세 개 정도의 건물을 작업했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3~4명을 유지해오다가 작년 이후 한둘씩 늘어서 현재는 정식 직원이 저까지 7명입니다. 작은 일을 하면 좋은 건, 작은 일은 작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통 수주에서 완공까지 일년을 안 넘으니깐 그 다음 일에 대하여 사고가 연속되어 넘어 갑니다. 뭔가 실험을 하고 실수를 한 것이 그 다음 프로젝트에 그대로 반영되니까 그 점이 작가에게 좋은 것이지요.

전봉희___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말씀해 주신대로 홈페이지(www.a-17.com)를 들어가서 그간의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수박 겉 핥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작품들이 워낙 다양해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더군요. 그 하나는 내부와 외부의 문제, 다른 말로 하면 피막 혹은 경계와 개구부의 조정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통로와 광장이라고 하는 건축적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권문성___ 동의합니다. 특히 내·외부의 관계는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봉희___ 현암사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긴 하지만 작품들을 살펴보면 공간을 매우 철저하게 조형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 건축가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현란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권문성___저 스스로는 사실 공간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뭘 만들어내야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설계하는 일은 생활을 중심으로 놓고,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먼저 설정되면 공간은 그것을 실제로 완성하는 장치로써 덧붙여지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길 하나 만들어 놓고 생활을 거기에 집어넣는 방법, 부속시키는 방법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여기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간이나 건축적인 완성도에서는 오히려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하나의 건물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건축가의 일이겠지만, 아직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봉희___생각하고 실제하고, 그리고 작가의 의도와 보는 사람의 느낌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조금 구체적으로 현암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중심의 보이드 부분, 즉 내부 중정의 경우 이 건물의 전체 규모나 기능으로 볼 때 지나친 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문성___우선 그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큰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집이 기존의 주택이 가지고 있던 평면질서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그 크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집은 1970년에 지어진 붉은 벽돌의 평범한 이층집을 출판사로 쓰면서 부분적으로 개수하였고, 그것을 이번에 다시 전면적으로 개축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지의 북쪽 마당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북카페가 들어있는 비정형의 매스를 덧대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구조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을 뿐입니다. 기존에 있던 매스에 하나를 덧댄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트리움 부분은 원래 거실이 놓였던 부분이라 자연히 그 구조 스펠이 조금 크게 되어 있었고, 이를 비워버린 것이지요. 또한 여유 있는 쪽의 복도에는 책장을 만들고, 또 아트리움 쪽으로 핸드레일을 겸하는 플랜트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증축에 대한 고려입니다. 대지

의 남쪽으로 30평 남짓되는 대지에, 지금은 작은 식당으로 쓰고 있는 오래된 주택이 하나 있는데, 장치는 이 땅 역시 사들여 증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곳에 또 다른 매스가 하나 더 들어가면 이 보이드 부분의 크기는 전체 건물 크기에 대하여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출입로비 앞을 가로질러 1층 회의실로 이어지는 남북의 통로 축 역시 그러한 증축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전봉희___충분한 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 가지의 큰 주제를 이야기할 때, 통로와 광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비단 현암사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의 너른 공용 공간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수직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통로는 권소장님의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다른 작가와 구분하자면, 광장의 개념은 많은 작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것이고, 통로에 특별히 비중을 많이 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공간을 가로지르는 계단, 시시각각으로 전망이 달라지는 복도 등 말입니다.

권문성___사람이 지나 다니는 통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암사 입구에서 현관까지의 통로를 보더라도 양쪽이 번갈아 열리고 닫히고, 내부에 난 창으로 안을 느끼기도 하며, 상부로 닫히기도 열리기도 하여 거의 매 발걸음마다 전혀 다른 느낌의 공간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암사 식구나 방문자들은 무심코 이곳을 지나다 어느 순간에 특정한 공간경험을 특별한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날의 날씨나 경험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기분까지를 고려한다면 그리 길지 않은 통로에 존재하는 구분될 수 있는 공간경험의 가짓수는 무한할 수도 있겠지요. 이와 같이 하나의 통로에는 수많은 공간경험이 숨어있고, 사람들은 이를 헤치며 뚫고 다닌다고 생각하며 하나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현암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니는 출입구 부분이어서 더욱 다양한 공간경험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전봉희___그것이 공용공간에서 극대화된다는 말씀이지요?

권문성___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공간과 달리 공용공간에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자연과 교류하는 공간이겠지요, 이를 건축화하여 체험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자연스



미당으로 연결되는 거실 데크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계단

1층 복도

2층 복도

럽게 이를 느끼게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봉희___현란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격이 신 것 같은데요? (웃음) 하지만 아직은 건축가다 하면 마스터 빌더 즉 형태를 주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고, 또 건축공간의 소비 행태에 있어서도 각 건축가는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축가를 선택하는 순서가 아닌가요?

권문성___제가 생각하는 건축가는 건축주나 그 집을 사용하는 사람들 위에서 생활을 제시해주는 마스터 역할을 해야 하기보다는 건축주의 옆에서 그들의 생활과 건축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통건축을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건축요소와 재료를 갖고 그 집에 사는 사람과 그 집이 지어진 땅에 집중하여 놀라운 수준의 건축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바로 건축가의 것이 아닐까요.

전봉희___저 역시 동감이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전통건축들을 가보면, 구조, 재료 그리고 시스템이 모두 고정되어있는 상황에서 단지 미묘한 지형과 프로그램의 차이만을 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건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 때의 목표는 건축주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건축주의 원하는 바를 듣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열망으로 버무려서 최종적인 물건을 만들어내지요. 건축가가 전통건축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셨다면 저로서는 무척 놀라운 일이고 또 제 생각과 같습니다.

권문성___건축사가이신 전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정말 고맙고 힘이 납니다. 전통건축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이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엄청난 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건축이 갖고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라 생각합니다. 전통건축을 과거의 것으로만 여기고 건축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여기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그걸 워으려 노력하는 것에, 남들이 덜 주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신나기도 합니다.

전봉희___조금 구체적으로 디멘전의 문제를 거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암사의 경우 기존건물의 리노베이션이라는 제약도 있었고, 또 기구까지를 함께 디자인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수직적 비례랄까 즐겨 사용하는 디멘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권문성___전 절대적인 치수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사무실 도면의 치수를 보면 끝자리가 0으로 잘 안 떨어지는 것이 흔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영역, 그 한계 내에서 어떤 비례로 나누어 이쪽으로 얼마하는 식이기 때문에 비례에 대한 느낌뿐이지 절대적인 크기는 없습니다. 물론 미니멈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봉희___현암사의 경우, 작은 건물임에도 매우 넓게 보입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매우 큰 건물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사무실 등을 보면 아주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권문성___현암사가 크게 보이는 것은 역시 중앙에 있는 아트리움 때문입니다. 그것의 평면적 크기는 기존 주택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다시 지하층에서부터 2층, 지붕까지 특 터진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겠지요. 처음 건축주 요구는 170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협의하면서 조금 늘어나 206평이 되었습니다.

아트리움이 필요했던 이유를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면적을 만들기 위하여 조적조의 기존 주택을 수직 증축하기 어려웠고, 옆 마당에 덧붙여 짓더라도 면적이 부족하여, 기존 건물의 지하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만한 지하공간을 만들려는 해결방법이 아트리움입니다. 경사지 언덕의 흠에 묻혀 있는 지하를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야 했지요.

전봉희___건축주를 설득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권문성___현암사는 오래도록 출판업을 해왔고, 이 사회의 문화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건축가를 문화인으로 대우하며, 저의 의견을 언제나 존중해주고 필요한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제시하여 협의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좋은 건축주가 좋은 건축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봉희___규모의 과장이 단순히 아트리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보다는 사진을 찍을만한 앵글이 많이 나온다는지, 서로 표정이 다르다는지 하는 부분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권문성___여러 곳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면에서는 낮은 핸드레일이나 유리면이나 벽면이 모두 동일한 선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공간이 잘게 분할되어 있어 보이지만, 각각의 장소마다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카페에 앉아있는 우리의 시선은 출입구의 통로와 아트리움을 지나서 건너편 복도와 그 너머의 방에 있는 책장까지를 한 번에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 인지하면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의 공간이 저 너머로 증폭되어 교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벽으로 끝나 막힌 것하고 계속 관계를 맺어 증폭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봉희___자연히 이제 내부와 외부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두 가지의 질문

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외부와 내부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느낌이 무엇일까 하고 여러 번 생각하였는데, 나누어서 질문하자면 한가지는 우선 내부공간하고 외부공간하고 만나는 방법, 말하자면 경계라고 해도 좋고 표피 혹은 피막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피막을 만들고 그것에 적극적인 구멍을 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구멍을 내는 것도 적극적이지만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경계를 만드는 것에도 열심이지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구멍 즉, 연결이나 소통이라는 것이 적극적인 것이 지나치다는 느낌도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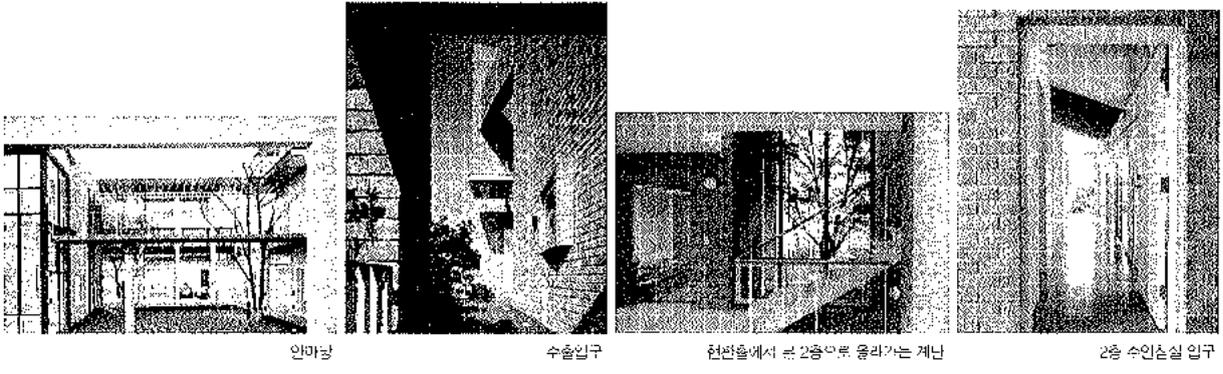
그 다음에 한가지는 외부공간자체와 내부공간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외부공간은 굉장히 내부공간화시키려는 노력이 읽혀집니다. 벽으로 좁힌다든지, 실내적인 조명을 한다든지, 위에도 뭘 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반대로 내부공간은 외부공간처럼 느끼게 만들어줘요. 아까 광장이라고 표현한 부분처럼 중심의 공용공간에 외부공간적인 성격을 많이 넣고 있어요. 재료 사용도 그렇고 디테일도 그렇고. 그래서 외부공간과 내부 공간을 이렇게 서로 잡아 당겨서 중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권문성___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람 사는데 좋은 건 전부 외부공간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항상 외부공간에 살기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집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가, 이것이 제가 만드는 사람 사는 집, 공간에 대한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통건축 한옥을 그 예로 말씀드리면, 한옥에서 보면 대청마루에 앉으면 기분 좋다고 합니다. 그 좋다는 게 왜 생기느냐, 그건 마당하고 대청마루가 같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청만 있어서는 그 느낌이 안 납니다. 대청마루가 좋은 느낌이 나는 건 마당하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간간의 관계가 대청마루하고 안방에서 다시 반복되고 집안 곳곳에서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부공간하고 외부공간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있는 것을 '안마당과 대청마루의 두 공간이 열싸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안고 있을 때 단순히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증폭되고 새로운 느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관계를 단순히 대청마루와 안마당,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 한정하지 말고 조금 더 확장하면 모든 공간에 미세하여도 상대적인 내부공간, 외부공간이 있다

● 일산22412주택



안마당

수출입구

현관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2층 수인실 입구

고 생각됩니다. 중간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뭐든지 상대적으로 외부에 가까운 것, 내부에 가까운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늘어서 내부와 외부가 만나서 얼싸안으며 끊임없이 증폭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봉희___ 모든 좋은 것은 외부에 있다...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전통건축에 대한 뚜렷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부연해 말씀해 주시죠.

권문성___ 전통건축이 왜 기분 좋게 느껴지는가를 건축적으로 설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전통건축을 우리에게 익숙해진 서양건축을 정의하는 요소들도 당연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좋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다면 전통건축이 현재 우리가 하는 건축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겠지요. 좋다는 것을 건축적으로 설명하면서, 실제 건축으로 실험하면 전통건축의 기분 좋게 느껴지는 어떤 가치들이 현재형으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봉희___ 아까는 건축가의 역할을 목수에 비유하시더니 이제는 작업의 참조로 전통건축을 거론하십니다.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지난 2월 말 한국과 일본의 건축사학자들이 20명 가량 모여 연합세미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참석하였던 일본인 건축사학자 중에 젤노 야스시라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아시아 건축과 일본건축을 강의하는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그 양반 강의에 아시아 각국에서 유학온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는데, 매 학기마다 과제로 각자 자국의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관계에 대하여 리포트를 써오라고 하면,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열이면 열 모두 '마당'으로 써온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한국학생들에게는 마당을 뺀 나머지 주제로 써오라는 주문을 한다고 하여 모두들 웃었습니다.

웃기는 웃었는데, 사실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건축사가 결국은 디자인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간 건축사학자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 마당이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마당만을 붙잡고 있다. 혹시 그간 건축사학자들이 자신의 좁은 울타리에 갇혀 디자인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닐까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권소장님으로부터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를 듣고 반기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습니다.

마당 그 자체로도 집합주택을 하든지 할 때 여전히 유효하지만, 실제로 이런 단일 매스로 된 이런 건물들을 지을 때 조금 힘들어지죠. 때문에 마당이 아닌 내부, 외부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즉, 커로 생각한다면 단순히 마당이 공간들을 엮어준다든지 하는 배치계획적 관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현대건축에 붙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문성___ 많은 사람이 쉽게 마당을 이야기하는데, 제 관점에서 볼 때는 비워놓은 외부공간을 그저 마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마당을 하나의 건축 요소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독립된 요소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당이 어떻게 집의 다른 부분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하는 관계 맺기에서 정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전통건축의 마당은 스스로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비어있는 건 별판이

지 마당은 아니지요. 마당을 이렇게 관계 맺기로 정의하면 마당은 자연히 내·외부 공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 되겠지요.

전봉희 _____ 권소장님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마당은 관계 맺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적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한옥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비일상적 행위, 다시 말해서 관혼상제와 같은 특별한 의식이나 행사 등은 모두 대청과 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개개의 방들은 매우 압전하게 일상적 생활 즉, 매일같이 반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은, 그러나 재미는 없는 행위들을 위하여 예비 되어 있지요. 현암사의 아트리움 특히 천장으로 빛이 들어오는 지하마당과 개실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보여 집니다.

각 부분에 대한 의장에 있어서도, 마치 한옥의 대청에서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사천장을 써서 공간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중심주를 굵은 원기둥을 써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아트리움(다른 주택에서는 거실)의 천장을 높이 만들고 경사를 주고 계단을 걸고 오픈된 복도를 둘러싸서 에너지가 집중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가 말한 서브드 스페이스와 서빙 스페이스 중에서 오히려 서빙 스페이스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권문성 _____ 저는 좋은 게 모두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중요한 외부공간을 먼저 정의하고 설계합니다. 하나의 건축에 어떤 외부공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설정합니다. 그리고 내부공간을 생각합니다. 주어진 실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이 외부공간, 마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에 실내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론 생각 하지만, 항상 외부공간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 위주로 풀어낸 다음에 이와 만나는 내부공간을 생각하고 상대적인 외부가 상대적인 내부와 만나는 방법으로 전개합니다. 현암사 뿐 아니라 작년에 완성한 '부천 에스피반도체 공장'이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안성맞춤박물관' 같은 곳에서도 가장 집중하여 생각했던 것은 주어진 영역 안에서 외부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외부공간에서 출발한 공간의 흐름이 또 다른 외부공간으로 또 내부공간으로 어떻게 전이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설계하며 생각하는 순서였습니다. 조금 전에 내·외부 공간의 말씀을 하실 때, 내부공간의 퍼블릭 스페이스를 보면 외부공간의 어휘들, 재료와 느낌들

이 계속 살아있다고 하셨는데, 관계를 맺으려면 그 속성을 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관계 맺기를 위하여 건축 외부에서 주로 사용되는 요소들이 내부공간에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또 그런 것들은 주택의 침실이나 개인적인 작업공간과 대비되어 외부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실내의 다른 부분과 비교하면 상대적인 외부의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이 사용하는 사무실, 회의실 같은 방들은 내부공간으로서 은밀한 느낌을 주고 싶고, 스케일은 조금 더 작아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를 먼저 생각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조금 작아지기도 합니다. 저는 작은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봉희 _____ 결국 통로와 광장, 천통과 목수의 모든 이야기가 내·외부 공간으로 모두 모아지는군요. (웃음) 그러면 처음 이야기하였던 현암함으로 한번 화제를 돌려보지요. 권소장님의 작품들 현암사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을 보면 특히 개구부의 위치, 크기, 형태 등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스 등의 큰 분절이 있기 때문에 통일감을 잃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감각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권문성 _____ 그것은 어찌 보면 저의 작업방법이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현장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결정되어 그려진 도면대로 현장에서 건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저는 아직 그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계하며 모델을 집중하여 만들지만 현실의 일대일 스케일과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결국은 최종 결과물을 도면이나 모델로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다면 현장에서 건축을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은 제 경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며 살게 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결정하는 것이 많으니 전체 건물을 하나의 질서에 맞게 엄격하게 조정하는 것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봉희 _____ 그렇군요. 사실 치수가 0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미세한 차이를 갖는 형태 같은 것들은 현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설계안과 실제로 지을 때 바뀌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산22412주택



2층 보릿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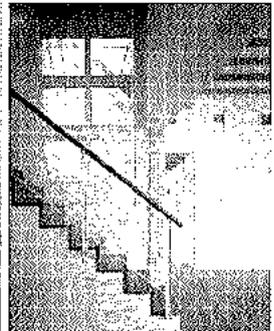
●일산314412주택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외부계단



3층에서 내려다본 외부계단



거실에서 사재로 올라가는 내부계단

권문성 ___ 큰 생각을 바꾸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다시 고만하고 새롭게 결정해야 할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업이 집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봉희 ___ 그게 항상 장점이진 않을 것 같은데...

권문성 ___ 글썽요. 제 설계가 완벽하고 경협이 많다면 많은 부분들이 도면에서 끝나겠죠. 현장에선 진짜 몇 가지만 체크하면 완성된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겠지만, 아직 그 수준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니 현장 와서 할 수밖에 없지요. 결정이 늦어지니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가 봅니다. (웃음)

전봉희 ___ (웃음) 아니 그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 조금 아프게 말씀드리다면, 현장에 강하단 소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좋게 들리지만 또 나쁘게 들리면 현장에 강한 만큼 개념에 약한게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권문성 ___ 전 뭐 개념 이런 것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집은 완성된 실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봉희 ___ 어려운 질문을 잘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현암사의 완성도는 스스로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권문성 ___ 그간 우리 사무실에서 한 작업과 비교하면 현암사는 많이 정려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족할 만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전 작업과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하였으니 또 다음 작업은 이 현암사보다도 조금 더 좋게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봉희 ___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서, 현암사가 권소장님에게 느끼게 하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권문성 ___ 아직 여러 가지 시도가 있을 뿐 정려가 된 느낌이 아닙니다. 특히 형태에 대해서도 작업하는 도중에 멈춰 서서 끝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또한 재료에 대해서도 목재나 벽돌, 유리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것은 저와 우리 사무실의 한계를 드러낸 것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봉희 ___ 조금 쉬어가는 질문입니다. 사장실 옆에 있는 한실, 그 사랑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권문성 ___ 그 사랑방이 저는 아주 반가웠어요. 현대 건축 속에 필요에 맞는 한실이 하나쯤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이곳에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역시 문인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들과 오랜 연분을 맺고있는 사장이 가볍게 차도하고 또 기분 내키면 밤늦게 술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텃밭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권문성 ___ 그것은 건축주가 요구한 것이었

습니다. 너무 고맙죠. 사실 이런 이야기가 건축가로서는 조 심스러운 제안 일 수밖에 없는데 먼저 이야기해주니까 너 무 기분 좋은 거죠. 이 집을 보면 공간을 쓰는 방법에 대하 여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저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도 많아지고 다양한 만큼 복 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하나하 나 집중하다보면 이야기가 좀 많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습 니다. 어떤 하나의 질서 시원하게 쪽 밀고 나가는 것 같은 접근은 달리 이 집은 여러 이야기가 담겨있는, 어떻게 보면 시끄러울 수 있는 집이죠. 하지만 이 집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끄럽게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집을 설계하는 입장의 사람이나 이 집을 통해서 한번 에 모든 것을 이해하며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요소 를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읽어 내지만, 실제로 이 집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자기 가 쓰는 부분만 보고, 느껴며 나머지는 그저 배경처럼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봉희 ___ 이번에 건축가협회상 발표하면 서 같이 나온 심사평을 한번 봤어요. 현암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언급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나는 리노 베이션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 맥락과의 관 계를 지적하면서 재료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새로 만든 매 스의 적삼목 싱글이 주변이랑 잘 어울린다는 의미로 말이 예요. 동의하세요?

권문성 ___ 재료는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 입니다. 이 집의 주재료로 처음에는 1970년에 지어진 주택 에서 사용되었던 붉은 벽돌을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손 대지 않은 부분의 외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으로 취약한 도로 쪽 구조를 정리하여 새롭게 외관을 정리 하면서도 기존의 벽돌을 사용하려 하였지만, 기존의 벽돌 이 부족하여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고령토벽돌을 주문해서 사용하였지요. 새로 덧 붙여 지은 건물부분의 재료인 적삼목 싱글은 고령토 벽돌 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결정된 것입니다. 당초 붉은 벽돌이 라면 원래의 적삼목 색깔이 좋겠지만 밝은 고령토벽돌이 어 서 이에 어울리는 오일스테인색을 결정하였습니다.

전봉희 ___ 선호하는 재료가 따로 있으세 요?

권문성 ___ 이제까지는 벽돌에 관심을 많

이 가졌었습니다. 벽돌이 가장 흔하고 싸게 쓸 수 있는 재 료이면서도 시간에 대해서 검증받은 재료입니다. 벽돌 은 인공재료이면서도 자연재료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또 벽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하고 익숙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배에서는 어렸을 때부 터 집 하면 벽돌로 만들어지는 걸로 당연히 생각을 했잖아 요. 그런 점들, 아주 익숙한 재료를 그 재료가 가진 속성을 잘 이해하고 부분 부분에 맞게 다른 면이 있다는 것도 잘 드러내면서 쓰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봉희 ___ 색상에 대해서는? 벽이나 가구 등에서 흰색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권문성 ___ 저는 흰색은 색이 아니라고 생 각합니다. 마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흰색을 한번 덧칠 하고 그리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암 사 같은 경우는 실내공간에 책이 많이 있는데, 요즈음 책은 그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책 장이라든지 다른 요소들이 색으로 드러나면 안되고 바탕 으로 존재하면서 책 자체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 을 하였습니다.

전봉희 ___ 처음에 스터디 모델은 월로 만 드세요?

권문성 ___ 폼보드로 만드니까 집이 반듯 반듯하죠. (웃음)

전봉희 ___ 스케일은?

권문성 ___ 일단 1/100으로 시작을 합니 다. 1/50은 대부분 만들고 현암사의 경우는 1/30 스케일 까지 만들었습니다. 1/30모델 만드는 일은 공사에 가까운 작업입니다.

전봉희 ___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권문성 ___ 평당공사비는 대략 300만원 정도입니다. 결과를 보면 많지 않은 예산으로 좋은 시공이 었다고들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전봉희 ___ 시공자가 칭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구비까지 포함해서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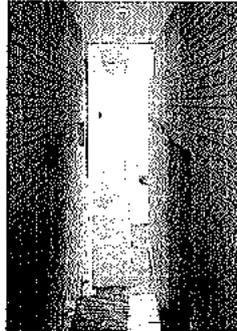
● 연희동공동주택



인마당



C세대 3층 거실



C, D세대로 올라가는 외부계단



A세대 1층 거실에서: 타리본 출입구

권문성___ 가구비 포함하면, 평당 32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봉희___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좀 대중적인 이야기로 가서, 뭐랄까 건축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듯해서….

권문성___ 개인적으로 어떻게 수련을 했느냐는 말씀인가요?

전봉희___ 그게 어려우시면 영향을 준 선생님을 들자면?

권문성___ 유길 선생님께서 고속철도 천안역을 작업하시는 것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길 선생님의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방법, 작업하시는 태도와 같은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건축 스승은 무엇보다도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초 혼란한 사회환경으로 당시 대학에서는 학교를 못오게 하는 일이 흔했지요. 정상적인 수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주로 전통건축을 보러 다녔는데, 저는 어디가 느낌이 좋으면 거길 다시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가기 어려운 곳이어도 마음에 들어 10번 이상 간 곳도 있습니다.

전봉희___ 어디예요?

권문성___ 그 중 내소사가 생각납니다. 변

산반도에 있는 내소사는 서울에서 가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자주 가면 재미있게도 갈 때마다 다른 것이 보입니다. 이전에 본 거 말고 다른 것이 보이니까 이번에는 나에게 무얼 보여줄까 그것을 궁급해하며 자주 가게 됩니다. 또 장기간의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여행가기 전의 내가 있고 다녀온 후의 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전봉희___ 누구는 나를 키워준 건 8할이 바람이라고 하더니만, 권소장님의 경우는 8할이 여행인 모양인데요. 그것도 변산의 내소사.

권문성___ 내소사는 긴장감과 여유가 함께 느껴지는 완성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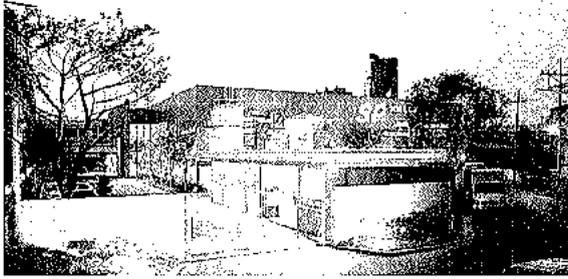
전봉희___ 그런 건축을 보면 재료의 절제에서 오는 자유로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나 구조방식들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음으로 해서 통일성 같은 건 기본적으로 얻어지잖아요? 그렇지죠? 그게 역설적으로 자유를 준다고 생각되거든요.

권문성___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재료, 구법, 디테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이미지 매치가 되도록 이미 정리 되어있다 할 수 있겠지요.

전봉희___ 그건 역사를 통해서 정립된 것이거든요. 실험된거고…

권문성___ 사실 그것도 자세히 보면 조금 시끄럽다고 느껴질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얹혀집니다. 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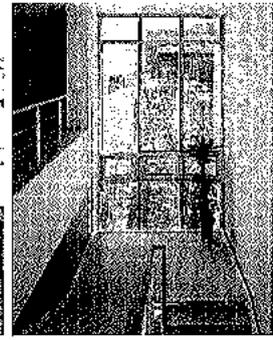
● SP반도체공장



이경



주출입구



내부 계단실

제 작업을 보시고 '현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전통건축도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끄러운 이야기를 지붕으로 딱 눌러 버리니까 형태적으로 그 속에서 조금 시끄러운 이야기가 벌어지는 것은 용서가 되는 것이지요. 시선을 꼭 잡아 단번에 정리해 버립니다.

전봉희___제가 대담자라서 그런가요? 현암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전통 건축으로 갔는데 그것으로 마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암사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우선 역사에 대한 태도이었습니다. 1970년에 지어진 붉은 벽돌의 2층집이 30년의 세월 후에 지금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비록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때의 벽돌을 그대로 남긴 채로 말입니다. 역사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땅에 달라붙어 있는 기억들을 유지하는 힘이 놀라웠습니다. 현암사는 물론 다른 권소장님의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내·외부 공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흥미로웠습니다. 비로소 전통건축이 갖는 형태나 공간이 아닌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하는 과정이 특히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건축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건축을 한다는 행위자체를 어떤 일로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배워야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여 반가웠습니다.

다소 어울리지는 않지만 건축가 권문성을 목수 권문성으로 불러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문성___저 역시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건축에 관해서 제가 중요한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건축을 하고 싶은 만큼 다 하면서도 생활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사는 생

활을 중심으로 건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건축이 생활과 유리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읽혀지는 부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생활에 집중하고 또 주어진 평범한 조건만으로 이만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으로 전통건축에 놀라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건축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평범한 생활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특별한 것을 가지고 특별한 것을 연출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도 모든 것을 해내고 싶습니다.

전봉희___장시간 감사드립니다. ▣



현암사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Arca

건축문화

a+u

신건축

Architecture

2001년 3월

맨하탄에 프랑
스적 감성을
일으킨
Portzamparc
의 LVMH
Tower 등 최근



에 주목을 받고있는 유명건축가의 작품을 다루었다. 한편, 독일의 수도이전으로 각국 대사관의 본에서 베를린으로의 이주 불의 하나로 북유럽 연합대사관을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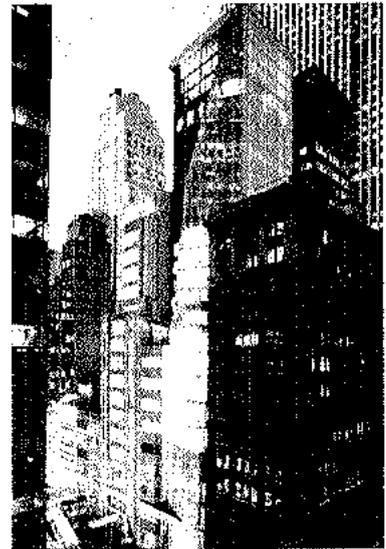
■ 신작소개

▶ SHoP의 V-mall

성 박물관의 설계경기 당선으로 명성을 얻은 SHoP은 디지털기술에 의해 가능한 형태와 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은 보다 현실적인 프로젝트에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있다. 가상성 (Virtuality), 변이성 (Variability), 수직성 (Verticality)이라는 디자인 컨셉에 의해 v-mall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주차기능의 지하층과 지상의 슈퍼마켓, 옥상의 골프연습장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와 홀등은 투과가능한 재료인 폴리 카보네이트, 편창메탈, 유리등으로 마감되어 시각적 상호관입이 가능하다.

▶ Christian de Portzamparc의 맨하탄 LVMH Tower

맨하탄의 고층건물들은 개발업자들에 의해 디자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뿐 아니라, 포화상태의 맨하탄 고층빌딩숲에서 새로 지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새로이 지어지는 이 건물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건축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계단식 매스의 프로토타입을 프랑스 건축가인



맨하탄 LVMH Tower

Christian de Portzamparc은 느슨한 천으로 감싼듯한 형태로 탈피하였다. 이 건물을 통해서 크리스찬 디오르, 루이비통등을 거느린 다국적 패션기업인 LVMH는 그들의 힘을 스타일로서 과시한다.

▶ Jose Rafael Moneo의 Houston, Beck Museum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미술품들은 소장하고있는 이 미술관은 보지르식 건물의 구성방식을 따르고 있다. 유사한 비례를 가진 천창들이 병렬배치되어 각 전시실은 우피치미술관이나 루브르 미술관같은 분위기를 만든다. 고가의 브론즈나, 포르투갈산 라임스톤 그리고 붉은 참나무 바닥재는 이러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외관은 매우 절제하여 단순화시키는 동시에 내부지향적인 건물을 추구하고 있다. 건축의 본질은 내부공간에서 찾아진다는 Moneo의 말을 이를 뒷받침한다.

▶ Eric Owen Moss의 캘리포니아 Culver City, The Umbrella

한때 군수산업의 중심지였던 Culver City를 시각예술의 Workshop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건축주의 노력으로 이 도시는 필름 및 각종 디자인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건축의 연금술사 Eric Owen Moss는



The Umbrella

Culver City에 또 하나의 놀라운 건축적 실험을 하였다. 건축의 경계를 음악으로까지 넓혔다고 그는 언급하면서, 창고건물의 코너에 유리로된 "우산"을 설치하였다.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Green Umbrella" 시리즈에서 착안한 이 구조물은 야외 콘서트의 무대로 가능하다.

이외에 ▶Barkow Leibinger의 코네티컷주 Trumpf Customer and Technological Center ▶베를린 북유럽 5개국 합동 대사관이 소개되었다.

■ 문화

▶동식을 생태의 분석을 통해 경제학을 풀어 쓴 "The Nature of Economies"를 최근에 출간한 Jane Jacobson와의 인터뷰 ▶ 생태디자인 개념으로 계획되어진 Tucson시의 사례를 토대로 새로운 어버니즘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등을 다루고 있으며 그밖에 ▶시간으로서 "A House Like Me"가 소개되었는데, 바닷가 절벽 끝에 드라마틱한 광경을 이루며 서있는 Casa Malaparte는 작가인 Curzio Malaparte의 이념의 변화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Malaparte는 이 책에서 그의 문학, 언론, 정치활동들과 깊은 관련을 갖는 집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 기타

▶ 1932년에 지어진 Radio City Music Hall이 Hardy Holzman Pfeiffer Associates에 의해 7개월에 걸친 개보수를 통해 새롭게 단장된 소

식과 ▶미국의 인테리어디자이너와 건축가간의 활동영역에 대한 논쟁에 대해 다루었다.

Architectural Record

2001년 2월호

특집으로 유행의 중심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지방색이 짙은 건축 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가 6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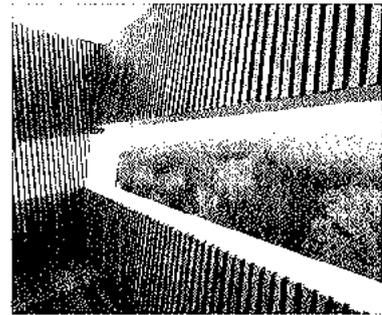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그룹들의 작업은 최근의 컴퓨터 렌더링에 의한 작업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장소성에 의해 풍부해진 작품들로서 재료와 기억으로부터 생성된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사례연구로는 지역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밀접형 초등학교를 다루었다.

■ 유행의 너머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건축잡지나 저널에 등장하는 글과 건축들은 대부분 뉴욕과 LA(또는 런던, 암스텔담, 베를린, 도쿄)에 집중해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축가의 대다수가 그 이외의 지역에서 살며 실무를 하고 있다. 지방의 건축가로서 공무원들이나 건축주들과 협의하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한편,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여기에 소개된 Marlon Blackwell이나 Ray Huff 등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영감을 얻고 자연환경으로부터 아름다움과 안정을 추출해낸다.

▶ Marlon Blackwell의 Keenan Tower House

이 마을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망루



Marlon Blackwell의 Keenan Tower House

와 같이 생긴 이 주택은 평범해 보이지만 시적인 표현을 읽을 수 있다. 방문자는 개방된 계단실을 통해서 Mies의 주택에서 볼 수 있는 파노라마 뷰를 가진 거실에 다다른다. 이곳 주민들은 처음에 이 건물을 반대하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물이 시각적으로 해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건축가는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신탑이나 제분타워와 마찬가지로의 구조물로서 봐달라고 이해를 시켰다. 지금은 이 지역 특유의 환경을 만들어낸다. 값싸고 대량의 것을 추구하는 Wal-Mart식의 사고에 경도되어있는 이곳의 건축풍토에서 그는 작지만 뛰어난 건축을 추구할 것을 지역의 개발업자들에게 설득하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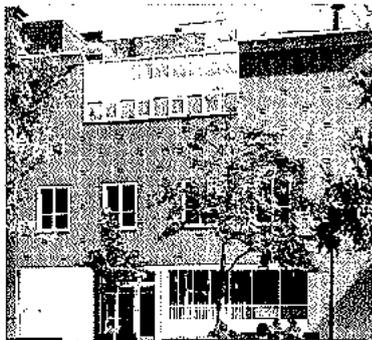
그밖에 Nova Scotia에서 활동하고 있는 Brian Mackay-Lyons, South Carolina의 Ray Huff & Mario Gooden, New Mexico의 Bart Prince, Colorado의 Elizabeth Wright Ingraham, North Carolina의 Frank Harmon등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 사례연구-커뮤니티시설로서의 초등학교

미국의 건축가들과 교육자들은 마을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스쿨버스로 통학하는 일반적인 학교들에 대해 비판적 논의를 일으키고 있다. 비교적 싼 대지에 짓기 위해 학교는 마을의 중심

에서 멀어지게 되고 자연 학생들은 어른들과 거리를 두고 생활하게 되어 교육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받게된다는 것이다. 학교를 지역사회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제시된다. 이는 학교의 시설을 지역사회의 어메니티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한편, 지역의 어메니티시설이 잘되어있는 지역의 경우는 학교가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Tenderloin 구역은 빈민층과 마약중독자들로 유명한 지역이었으나, 학교설립을 통하여 과거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평생교육학교, 의원, 가족상담센터가 함께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치유와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실제 사례로 ▶ Daly Genik Architecture의 LA Camino Nuevo Academy ▶ Simon Martin-Vague Winkelstein Moris의 캘리포니아 Community Day School ▶ Herbert Newman and Partners의 코네티컷, William Hall 고등학교 ▶ 1100 Architect의 뉴욕 Little Red School House 등이 소개되었다.



1100 Architect의 뉴욕 Little Red School House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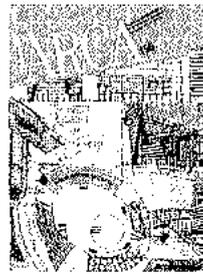
▶ Samuel Mokbee와 그가 지도하는 Rural Studio의 학생들이 8년에 걸쳐 디자인하고 시공한 마을회관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가 Alabama의 Hale County에 지어졌다. 이로인해 그는 MacArther상의 수상자가 되었으며, 특집으로 그와의 인터뷰를 실었

다. ▶조명특집으로 Los Angeles 공항 입구 조형탑, 뉴욕 Tribeca Hotel 조명디자인을 소개하였다.

l'Arca

2001년 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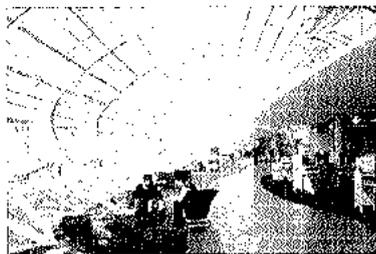
눈에 띄는 건물과 인테리어를 원하는 건축주의 요구를 Richard Hywel Evans의 독특한 방법으로 수



용한 Swindon Cellular Operation 본사사옥과 일상적인 공간을 새로운 경험으로 전환시키고자한 Mahler G nster Fuchs의 Heilbronn, 주차빌딩 등이 소개되었다. 이태리 도시의 강한 컨텍스트를 새롭게 해석한 Mimma Caldarola의 Sassuolo 시청도 자세히 다뤄졌다.

■ 근작소개

▶ Richard Hywel Evans의 Swindon Cellular Operation 본사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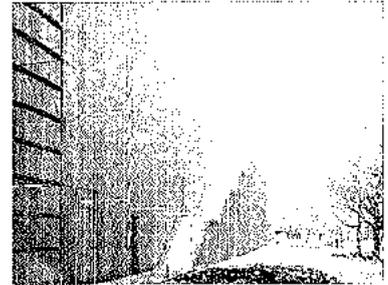


Richard Hywel Evans의 Swindon Cellular Operation 본사사옥

주변환경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내부환경을 제어하는데 초점을 두고 건축의 형태는 결정되었다. 이 건물은 형태논리에 의해 구성되었다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

인다. 미래의 요구와 과거의 사고를 조율하면서 Evans는 합리주의와 하이테크 건축의 경계에 있다.

▶ Mahler G nster Fuchs의 Heilbronn, 주차빌딩



Mahler G nster Fuchs의 Heilbronn, 주차빌딩

주차빌딩을 다루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다른 건물로 위장하거나 지하에 묻듯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또다른 방법은 일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조적 사고의 기획을 제공하는 것이다. Mahler G nster Fuchs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였다. 주차빌딩은 종종 장소성이 없는 도시조직의 취약한 부분으로 인식된다. Ballard는 종종 일상생활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되는 무대로 주차장을 선택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더 이상 None place가 아니다.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려 모였다가 세심한 디테일로 걸구된 재료와 개구부의 유희로 신선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되는 곳이다. 즉 활력을 주입받는 곳이 될 수가 있는 곳이다.

그 밖에 ▶ 역사적 도시컨텍스트 안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얻은 Mimma Caldarola의 Sassuolo 시청 ▶ 베를린 프로젝트중의 하나로 완공을 앞두고 있는 Murphy&Jahn의 Berlin Sony Center ▶ Medium Architekten의 Film and Television Training School ▶ Alessandro Scarpa의 베니스 수영장 ▶ Arep의 베이징 Xizhimen 역 ▶ Samyn & Partners의 Leuven 역 ▶ Studio Valle의 로마 Music City 등이 소개되

었으며 실험적 프로젝트로서 ▶ Kolata/Mac Donald Studio의 실험 주택 ▶ 예루살렘의 도시발전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 시설을 제안한 Jafar Tukan & Partners의 계획안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건축문화

2001년 2월호

이번 호에서는 르 꼬르뷔제 '백과' 특집으로 꾸며졌다. 2001년 새로운 세기의 첫 장으로 지난 세기의 거장인 르 꼬르뷔제를 통해 새로운 세기의 건축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의도이다. 세기의 전환점에서 시대의 변화를 읽고 '20세기의 고전'이 될 건축작품과 이론을 제시한 르 꼬르뷔제. 그의 이러한 탐험정신을 새로운 세기를 맞아 하는 건축가들이 가져야할 태도로 제시하며 17명의 필진이 쓴 그의 건축에 대한 69개의 에세이들을 소개하고 있다.

■ 특집: 르 꼬르뷔제 백과

▶역사의 전환점에 비상(飛翔)하는 르 꼬르뷔제 (글: 五十嵐太郎)
21세기의 막이 올랐다. 이 시점에서 르 꼬르뷔제를 다시 돌아보는 것은 단지 그가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긴 건축가이어서라기 보다는 새로운 건축과 건축가상이 요구되었던 시기에 그에 적합한 비전을 제시하고 확고한 이론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20세기초의 절박했던 사회적 변용, 즉 도시인구의 급증과 2차세계 대전으로부터의 부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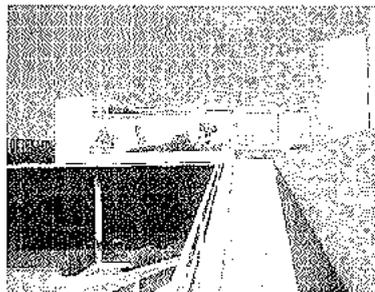


이라는 상황에서 근대건축가에게 새로이 요구된 것은 도시문제의 해결이나 개인 혹은 집합주택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는 종래의 아카데미한 건축가들이 많아오지 않았던 분야로서, 근대건축가가 종래의 건축과의 단절을 추구한 것은 비단 양식상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현대 그의 이론이나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의 태도는 되새겨볼 만 한 것이다.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었던 보자르나 아카데미에 그가 대항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존의 제도와 조직에 의심을 갖고 새로운 건축가상을 수립해야 할 지도 모른다. 이것은 새로운 일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기술의 변혁기에 그 가능성은 19세기 에펠이나 팩스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건축 외부에 있는지도 모른다. 20세기의 고전이 된 르 꼬르뷔제는 사상·문화계의 고전인 플라톤이나 셰익스피어처럼 어느 시대에도 새로운 해석을 받고 있다. 1970년대에는 네오 꼬르뷔지양 양식을 추구한 건축가들이 있었으며, 포스트 모던시기에는 그의 양의성(兩義性)이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는 미디어론과 젠더론의 시점에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꼬르뷔제의 작품은 그 시대의 거울로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인 존재가 되었다. 르 꼬르뷔제가 세상을 떠난 지 35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는 지금 새로운 생명을 획득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69개의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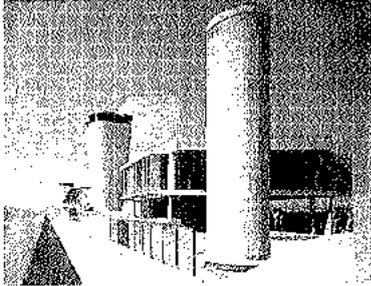
69개의 꼬르뷔제에 관한 에세이는 모두 17명의 저자가 집필하였다. 이들은 건축사를 전공한 교수, 건축가, 미술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이 집필한 에세이의 테마들은 색, 신체, 촉각성 등 추상적인 건축에 있어서의 화두로부터 그의 대표작들, 그리고 큐비즘과 퓨리즘, 오스카 니마이어, 콜린 로

우 등 그와 관련을 맺은 사항들에 대해서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즉 르 꼬르뷔제 백과란 특집의 제목에 걸맞게 그를 중심으로 언급할 수 있는 건축사, 건축론의 주제들을 골고루 다루고 있는 것이다. 각 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백과사전의 형식을 빌어 일어의 가나순으로 배열하였다. 1.색 2.의학 3.인터넷셔널 스타일 4.바이센 호프지들롱 5.베네치아의 병원 6.에스 프리누보 7.볼룸 8.오장광 9.음악 10.온듀라트월 11.카펜터시각예술센터 12.글래스 13.기능주의 14.큐비즘과 퓨리즘 15.기하학 16.콕크주택 17.쿠르체트주택 18.공간장치 19.현대프랑스건축 20.결정적 순간 21.국제연맹본관 22.고대 23.사보아주택 24.국립서양미술관 25.주택구성의 4가지 유형 26.CIAM 27.사키구라 준조 28.젠더 29.주거 30.자율주택 31.촉각성 32.신체 33.스위스학생회관 34.호세 루이 셸트 35.소비에트공전 36.슈타인주택 37.섬유직물회관의 건물 38.저작 39.센트로소유즈 40.찬디갈 41.철근콘크리트 42.테크놀러지 43.더 스타일 44.지각의 시(詩) 45.쥬세페 데라니 46.도시계획 47.오스카 니마이어 48.생(生)의 사실 49.뉴욕 파이프 50.파트론 51.파시즘 52.프랑 오류 53.필립스관과 크세나키스 54.페삭의 주택지 55.문다네움 56.샤를롯 빼리앙 57.문헌히 성장하는 미술관과 아메다바드의 미술관 58.모듈러 59.모놀형 연속주택과 시토로양형 주택 60.유니테 다비따시옹 61.미디어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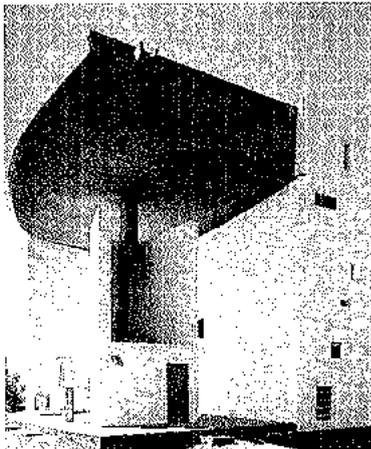


시보아주택

라 쇼드 풍의 작품 63. 吉阪隆正 64. 라 쇼드 풍 시대 65. 라투레뜨수도원 66. 라로슈-잔네르주택 67. 여행 68. 룡상의 교회당 69. 콜린 로우



유니버설 빌딩



룡상의 교회당

a+u

2001년 1월호

이번 호에서는 OMA의 유니버설 빌딩(Universal Building) 프로젝트를 특집으로, 전면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다. 유니버설 빌딩은 MCA 그룹의 새로운 본사 건물이다. 전형적이고 반복적인 오피스 부분과 비 전형적인 4개의 탑으로 구성된 이 건물의 설계일지, 설계과정에 나타난 스튜디오 모델들,



디테일 도면,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일상을 모형사진을 통해 표현한 'A Day in Life'가 소개되었다.



A Day in Life

■ 특집: OMA: Universal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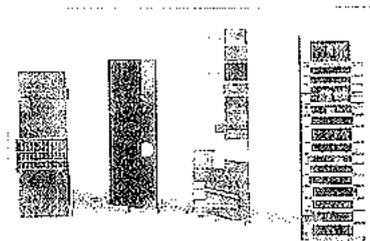
▶ Universal Building 프로젝트의 시작 시그림의 CEO인 에드거 브론프만 주니어(Edgar Bronfman Jr.)는 1995년 6월 일본 akWMS이다 전기로부터 57억불에 MCA 주식의 80%를 매입한다. MCA는 MCA뮤직,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니버설 TV를 비롯 LA와 올랜도에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 헐리우드'를 소유한 기업이다. 1995년 12월 OMA에 LA의 유니버설 시티안에 새로운 본사건물을 의뢰하게 된다.



본사 건물

▶ 건물의 구성과 컨셉

건물은 전형적인 부분인 오피스 부분과 비 전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4개의 타워로 구성된다. 4개의 타워는 각각 '실험실(Laboratory-like)', '고



4개의 타워

대로마풍(Roman)', '도시와 현대(Urban and Contemporary)', '침착하고 사려깊음(Sober and Descreet)'이라는 독특한 이름이 붙여졌고 이는 반복적이고 무미건조한 오피스 공간에 변화를 주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고안된 것들이다. 각 탑의 역할 및 프로젝트 구상시의 주력점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콜하스의 말을 직접 빌어 알아보도록 한다.

▶ 램 콜하스의 본 특집에 대한 서문(일부)

▷사명

정말로 건물은 창조력을 복돋울 수 있는가? 창조력에는 질서와 혼돈, 불변성과 일관성 등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 혼합비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이 건물에는 유니버설의 신(新)·구(舊)사업부문이 입주하게 된다. 이 부문을 위해 정보교환을 위한 토대, 발명을 위한 실험실, 회의실을 위한 탑, 그리고 휴식과 집회를 위한 장도 마련된다. 이 기업활동의 무대에서 그룹들 간의 결성, 해산, 재편성이 벌어진다. 진실을 말하는 실물크기의 스토리보드, 헬스클럽, 허브.

▷건물

우리들의 관심은 무미건조한 오피스에 갇힌 직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야심찬 기획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건축, 공학기술, 랜드스케이프를 복합하여 점적적이고 엄밀한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 건물에는 2종류의 시설이 있다. 건물의 3분의 2를 점하는 전형적인 오피스 공간은 어떠한 형태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각 층의 균질함을 해소하는 것은 4개의 중요한 '기점' 즉 4개의 탑의 존재이다. 오피스 공간을 관통하는 이들 타워들은 특수한 환경이나 단조로운 플로어 플레이트에는 수용되기 힘든 것들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실험실(Laboratory-like)'은 버츄얼

한 것을 담당하고, '고대로마풍 (Roman)'은 동선을, '도시와 현대 (Urban and Contemporary)'는 모임을, '침착하고 사려깊음 (Sober and Descreet)'는 관리적을 위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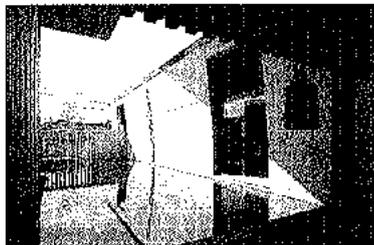
신건축

2001년 1월호

이번 호의 작품 소개에서는 목조건물을 새롭게 선보인 안도 타다오(安藤忠雄)의 코묘오지(光明寺), 하야카와 쿠니히코(川村邦彦)건축연구소의 키리시마(霧島)아트홀, 오바야시구미(大林組)본점설계부의 오때몽(追手門)학원 식당등 등이 소개되었으며, 새로운 연재 코너인 좌표를 찾는다 제1회:건축이 나아갈 방향 이 아소자키 아라타와 이토오 도요의 대답으로 꾸며져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 작품

▶ 안도 타다오(安藤忠雄)의 코묘오지(光明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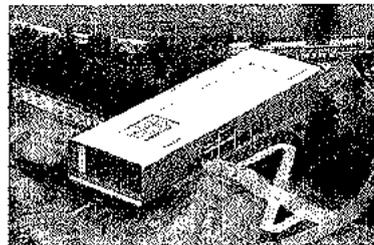


코묘오지 光明寺

이 작품은 안도가 목조건물이라는 그에게는 새로운 형식을 실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코묘오지는 일본 에도시대 이래 이어지고 있는 浄土眞宗

사원의 재건축이다. 연못으로 둘러싸인 정방형 평면을 갖는 목조 본당을 중심으로 객당, 예배당 등 부속건물이 둘러싸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목조로 된 본당의 형태에 대해 안도는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지의 말에 대한 대응으로 빛이 충만한 목조의 본당을 생각해 냈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과거 기존 건물의 형태를 답습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목조로 한 것은 오랜 역사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야 어쨌든 목조건물은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도임에 틀림없다. 그는 일본 목조 건물의 본질에 대하여 '조합되어 결합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여러 개의 부재가 한데 엮여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의 이번 작품의 목조 부분이 이와 같은 특징을 살려내려 노력하고 있다. 본당은 4면을 목조 루버로 둘러싸 빛이 충만한 공간을 만들고 루버 사이로 본당을 둘러싸고 있는 연못의 물을 바라보게끔 하고 있는데, 두터운 콘크리트 벽이 목조 루버로 된 반투명의 막으로 교체된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그의 기존 작품들에서 흔히 보여지는 수법이기도 하다.

▶ 하야카와 쿠니히코(川村邦彦)건축연구소의 키리시마(霧島)아트홀
거대하고 네모난 알루미늄 파이프 한 토막을 잘라놓은 듯한 형태. 내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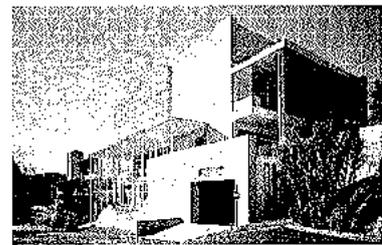


키리시마 霧島 아트홀

에서도 이러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전시에 필요한 부속공간들은 벽면 쪽에 정렬하여 거대한 축벽을 형성시켰고 그들에 의해 둘러싸여진 가운데

공간은 비워내고 있다. 그러나 축벽에 크게 뚫려진 개구부와 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천창 등은 기본적인 건물의 형태에서 기대되지 못한 요소로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문제와 함께, 잘려진 파이프의 형태가 '열려진 미술관'을 표방했던 건축가의 의도를 표현하기에 과연 적합한 형태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 오바야시구미(大林組)본점설계부의 오때몽(追手門)학원 식당등



오때몽(追手門)학원 식당등

원형기둥,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조형언어, 백색의 벽면과 기둥, 창틀, 1970년대의 네오 고르뷔지앙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건물이다. 거대한 식당홀과 주방이 거의 전부인 4층 높이의 거울에서 그 기능의 단순함과는 대조적으로 다양한 공간구성을 통해 건물의 외부·내부에서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있다. 중심공간인 식당홀의 3개 층에 걸친 오픈 스페이스는 건물의 다른 부분에 비해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이지만 다양하게 마련된 테라스 공간에서는 캠퍼스 주변의 자연을 감상하며 식사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부전동농협 / 74

특성화(애니원)고등학교 / 79

굴화고등학교 / 83

화암고등학교 / 87

부전동농협 Bujeon Nonghyeop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농산물 종합물류 뉴타운을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지난 2월 26일 서강종합건축사사무소(김신재, 류광홍)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부산진구 부전동 옛 부전공판장 부지에 설립될 농협복합타운은 900여 평의 대지에 각종 판매시설을 비롯해 금융기관, 문화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우수작으로는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안이, 가작으로는 세진종합건축사사무소 안이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총 공사비 400억원을 투입, 오는 10월 착공해 2004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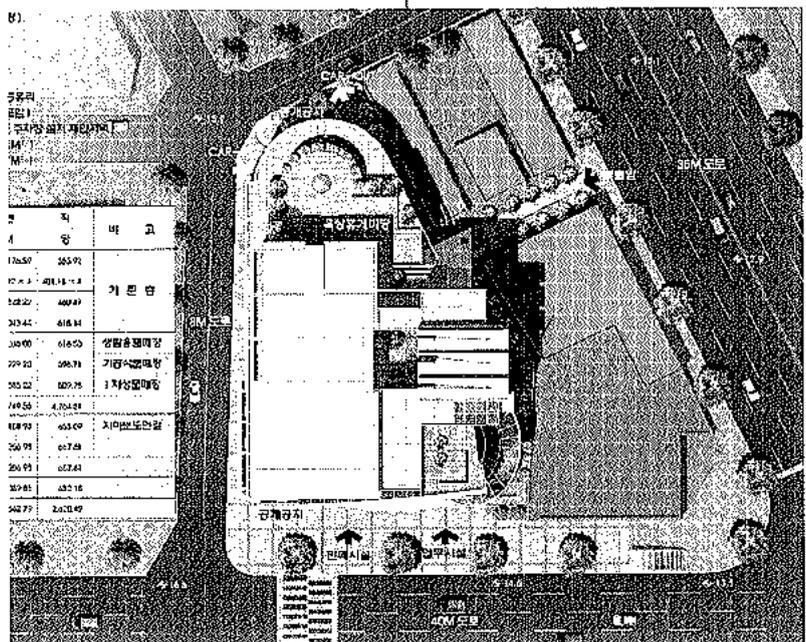
▶ 당선작 / (주)서강종합건축사사무소(김신재, 류광홍)

설계참여 이상현, 정재환, 공부성, 석성관, 박수강, 최준수, 양해주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3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최저고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용도	판매 및 업무시설
대지면적	2,905.40㎡(878.88평)
건축면적	2,228.33㎡(674.07평)
연면적	24,412.34㎡(7,384.73평)
건폐율	76.70%
용적률	542.09%
구조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4층, 지상10층
외부 마감	법랑페널, 반강화 컬러복층유리
주차대수	110대(장애인전용주차 4대 포함) 법정 : 112개~100대(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조경면적	346.53㎡(법정 : 290.54㎡)
공개공지	306.33㎡(법정 : 290.54㎡)

상황과 미래

부산의 도시발전축은 기존도심-서면도심-동래구도심을 연결하는 대상형으로 부전역세권이 속한 서면도심이 중앙부에 자리잡아 부산 도시성장의 핵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행정·금융·상업·문화 기능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재래시장은 감퇴하는 반면 대형백화점과 전문화인점의



배치도.



등장으로 유통시설의 고급화, 대형화 추세가 촉진되고 있으며, 기존도심에 집중되었던 상권이 일부 부도심권과 지역중심권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부산시 교통의 중심축인 서면지역은 유통인구의 증가와 복합유통시설의 건설로 지속적으로 기존상권을 유지하면서 그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이에, 서면지역이 부전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부산상권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에 대비하여 이 지역에 농산물 전문판매장과 금융시설 그리고 농협 부산지역본부 시설을 포함한 복합건물이 제시되었다.

변화와 대응

부전역세권 개발계획안은 확정되어 있으나, 그 시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노후된 저층 상업건물군이 밀집되어 있어 향후 이 지역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첫 번째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우선 예측 가능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단서로 부전역세권 상징가로 조성계획안에서 제시된 전면 40M도로의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입체적 접근방식을 통하여 건물의 접근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부전역세권 상징가로 조성시 선권광장과 지하층의 연계를 위해 별도의 선권을 마련하고, 다시 아뜨리움을 계획하여 단순한 동선의 연결만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휴게와 머무름이 있을 수 있는 장소

로 기여하는 지하공간을 계획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부전동 지하철역에서의 접근을 고려하여 대지측면에 지하출입구를 마련하여 매장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교통체계변화에 대한 예측도 건축계획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전면도로에서의 차량혼잡으로 전면도로에서의 차량동선유입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계획대지의 북서측 이면도로를 통한 차량 진출입 동선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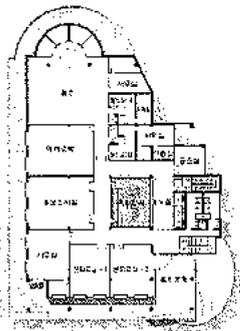
인접대지에 대한 변화요소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 설계경기에 제시된 프로그램의 분석결과 인접한 대지에 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업무시설이 일조와 조망에서 큰 영향을 받을것으로 판단되어 중정의 마련이 제시되었으며, 코어는 인접대지에 면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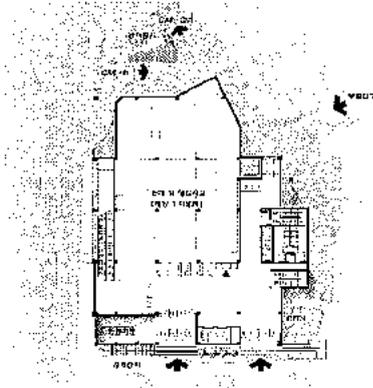
1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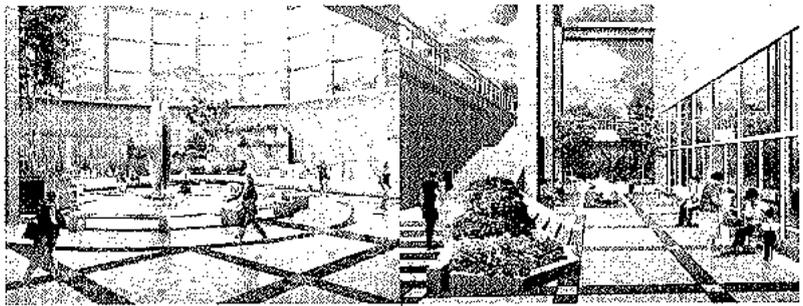
6층 평면도



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계획의 전개

계획부지는 부정형대지로 매장 레이아웃(Layout)구성상의 난점이 있었으며, 농수산물 전문매장임을 감안해볼 때 무빙워크(Moving Walk)의 설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코어를 부지의 좌측에 배치하였으며, 장방형의 매장구성을 통하여 매장 전용면적을 극대화 시키고 동시에 코어의 반대편에 무빙워크를 설치하여 매장 동선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단면구성에서 매장과 금융시설의 위치가 상충하여 어떤 기능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가가 문제가 되었는데, 매장의 경우 접근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 지상1층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금융시설의 경우 선권을 통한 진출입동선을 마련하여 접근성에서의 취약함을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동선계획에서는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의 엄격한 분리를 위하여 건물 전면으로는 보행자 진입을 유도하였으며, 건물 후면에서 차량 진출입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매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판매시설 이용동선과 업무시설이용동선을 분리 배치하여 동선의 혼재를 방지하였으며, 부전동 지하철역에서의 진출입동선과 대중교통이용자 동선을 감안하여 대지 동측 선형부지를 이용하여 직접 지하철역에서의 진출입이 가능한 동선을 마련하였으며, 지상에는 꽃길을 조성하여 인지성이 약한 부출입구로의 진입동선을 유도하였다

업무시설의 평면구성에서는 중정을 중심으로 코어와 사무실을 분리하여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충분한 옥상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쾌적한 사무 환경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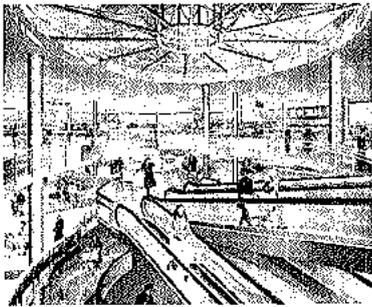
조형계획상의 주안점으로는 복합적인 기능을 표현하는 매스구성을 통하여 복합건물로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과 농협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이었는데, 판매시설에서는 원형 아트리움을 도입하여 시각적 인지성을 부각하였으며, 친근감있는 색채계획과 재료를 선택하여 매장으로의 동선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업무시설에서는 매스의 분절을 통하여 입면의 깊이감을 부여하고, 기능의 분절을 표현하여 복합기능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또한 상징적 의미로서 옥탑 부분에는 순풍의 뜻을 형상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농협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투명함이 강조된 입면구성을 통하여 투명한 농협이미지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이며 첨단적인 이미지가 형상화 되도록 하였다.

▶ 우수작 / (주)일신설계종합건축
사사무소(이용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53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최저 고도12m지구(일부), 1층 미 관지구(일부)
대지면적	2,905.4㎡(898평)
건축면적	2,405.0㎡(728평)
연면적	25,560.0㎡(7,732평)
건폐율	82.7%
용적률	526.9%
규모	지하4층 / 지상12층
최고높이	64.5m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조경면적	지상 - 320㎡, 옥상 - 858㎡
공개공지	350㎡
주요마감	알루미늄 페널 / 컬러복층유리



건축(건축물)은 인간활동의 수용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건물이 수용하는 용도에 충실한 기능성과 건물을 사용하는 여러 이용자들의 편의성, 그리고 이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성을 우선 갖춤이 건축의 최고의 선(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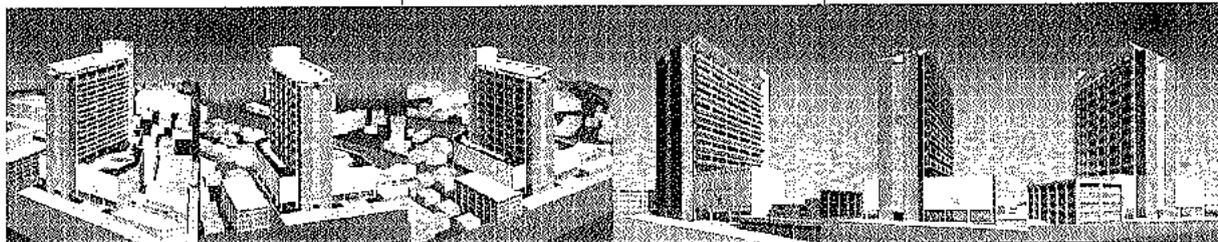
계획대지는 서측으로 40m의 광로와

접하고 남측으로는 부산의 중앙로변에 위치하여 정면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팀원들간에 많은 논란을 하게 하였고 향후역세권개발지역이라 개발 전·후에도 기능의 유지와 identity의 확보를 고려하여야만 되는 조건을 갖고 있다.

요구하는 용도 또한 세 가지(판매, 업무, 금융)의 복합기능을 요구하고 있어 각각의 기능 확보와 상호간의 연계, 분

리 무엇보다 이러한 요소들을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배치는 서측 40m도로로 주진입방향을 설정하여 진입에 의한 정면성을 부여하고 업무시설부(고층부)는 남측 중앙로로 정면성을 주어 향의 확보와 함께 중앙로를 향한 정면성을 주고자 하였다. mass계획은 넓은 기준층 면적을 필요로 하는 판매장과 고층부의 업무시설부로 크게 구분하고 각각이 요구하는 기



서울리미언

능을 우선하여 디자인하여 mass형태에서 그 기능을 솔직히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 주개념이었으며, 두 개의 mass를 고층부의 core가 축이 되어 결합되어 전체mass의 조화를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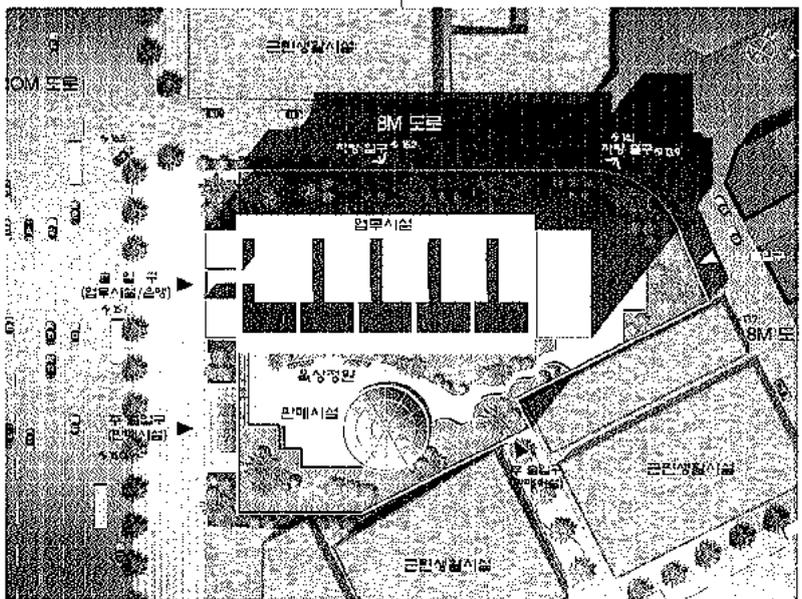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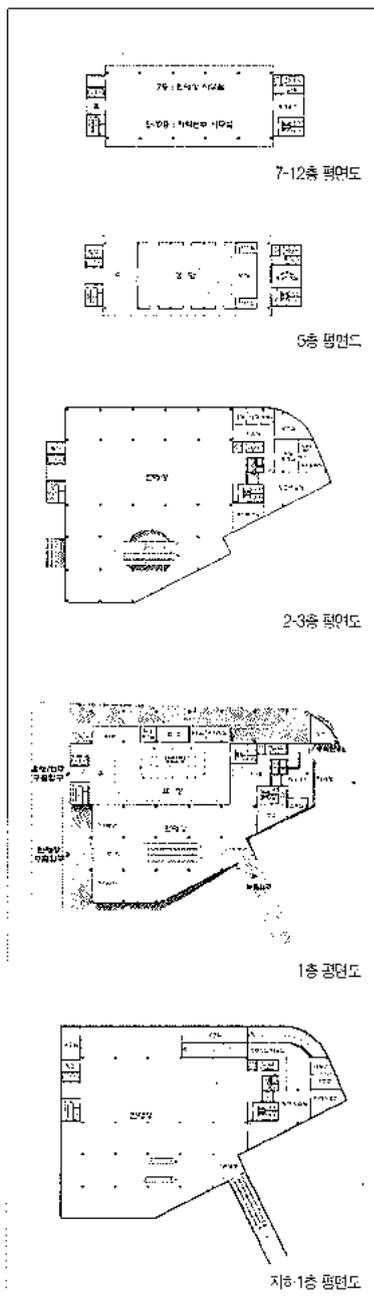
복합건물에서 중요한 core계획은 경제성을 중시하여 동일 core를 이용하면서 E.V의 구성계획을 통해 동선의 단절과 연계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판매장의 평

면계획은 One-stop Shopping개념으로 하되 외부와 출입층에만 계산카운터를 설치하여 최소화하면서도 관리가 용이한 동선계획에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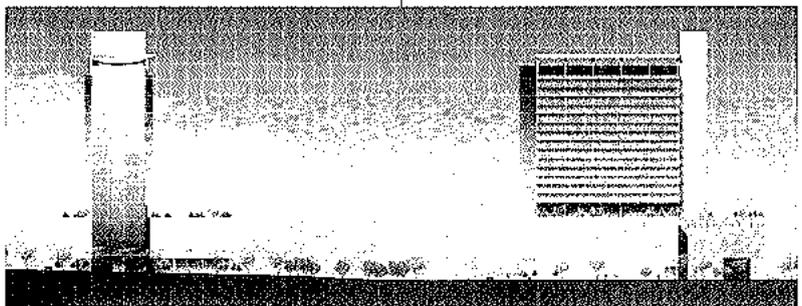
업무시설은 16m span의 무주공간으로 계획하여 용도에 따라 open space 또는 중복도형의 사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형적인 업무시설형태를 의도하였으며 기준층의 면적은 경제성확보를 위한 250 ~ 300평 규모로 계획하였

다. 입면은 저층부의 판매시설을 알루미늄 패널로, 고층부의 업무시설은 그린컬러의 커튼월로 계획하고 결합축인 동측 core는 콘크리트 박스로 디자인하여 전체 mass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디자인보다는 개념과 기능이 전체 디자인에 솔직히 반영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개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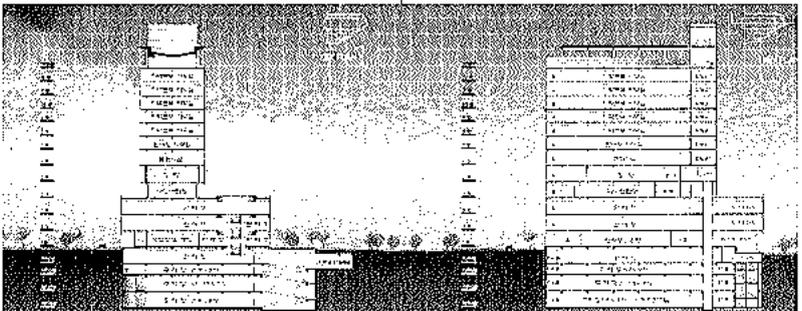


배치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중단면도

정남면도

특성화(애니원)고등학교

Specialized(Anyone)
High School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특성화(애니원) 고등학교 교사건축 건축설계 현상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7개 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지난 2월 21일 심사를 거쳐 심이건축사사무소(심재익)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우수작은 (주)건축사사무소 모람(김홍수·손두호)안이, 가작은 두안건축사사무소(곽경석) 안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는 전성덕(울산시교육청), 강석봉(울산대), 김규인(울산건축사협회), 김상본(울산시교육청), 김장배(울산시교육위원회), 배시화(교육시설학회), 양급석(한국교육환경연구원), 오인환(경상대), 우세진(울산과학대), 이규성(교육시설학회), 정의용(영남대), 조성기

(부산대), 조용수(동아대), 조원석(한국교육환경연구원), 황선길(한국애니메이션고) 씨가 맡았다.

▶ 당선작 / 심이건축사사무소 (심재익)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성안 2지구 66B 1L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최고 고도 지구
대지면적	13,200㎡
용도	교육 연구 시설(고등학교)
도로현황	북측, 남측 - 8m 도로 동측, 서측 - 10m 도로
건축면적	4,749.38㎡
연면적	15,650.0㎡
건폐율	84.35%
용적률	41.35%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외벽 - 교사/관리/실습실 등 : A.L 패널 기숙사동 : 토석 벽돌 치장 쌓기 체육관동 : 징크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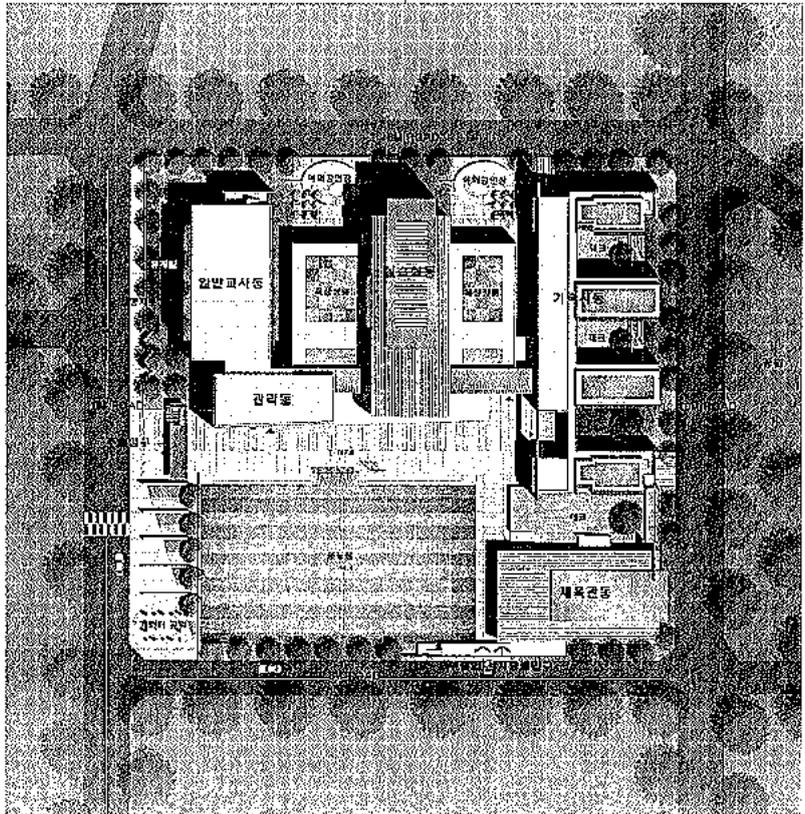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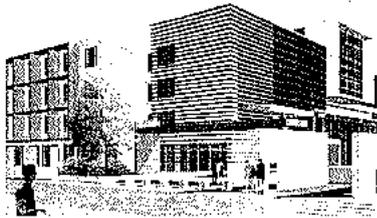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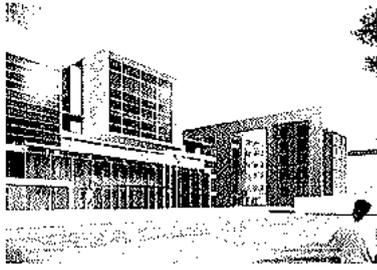
유리	파스텔 복층유리
주차대수	53대(장애인 주차 1대 포함)
승강기	승객용(장애인 겸용) 2대, 15인승 90m/min
기계설비	열원설비 : 냉열원 - 흡수식 냉온수기 온열원 - 노통연관식 증기보일러
공조설비	CAV, 히터 펌프시스템, 바닥 패널+FCU
전기설비	수전용량 : 500KVA 수전전압 : 3/4W 22.9KV-Y

교육청의 교육지표인 "새천년, 새가치, 새사람"의 이념과 설계경기에서 주어진 프로그램을 풀어가게 생각의 시작점을 다음에 두었다.

외부공간

· 옥상정원(새천년)
공간의 네트워크를 상징하는 옥상정원은 캐릭터 디자인실을 중심으로 교사동과 기숙사 동 사이의 공간에 형성시킴으로써 구성원들간의 행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의 역할을 수행한다.





배치도

· 휴게림(새사람)

새천년의 주역들인 청소년 개개인의 재능과 역량의 발전을 성장시키는 수목들에 상징하는 마당을 조성한다.

· 캐릭터공원(새가치)

끊임없는 개발에 의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캐릭터와 이미지들의 형상화에 의한 결과물들을 남서측 보도에 보행자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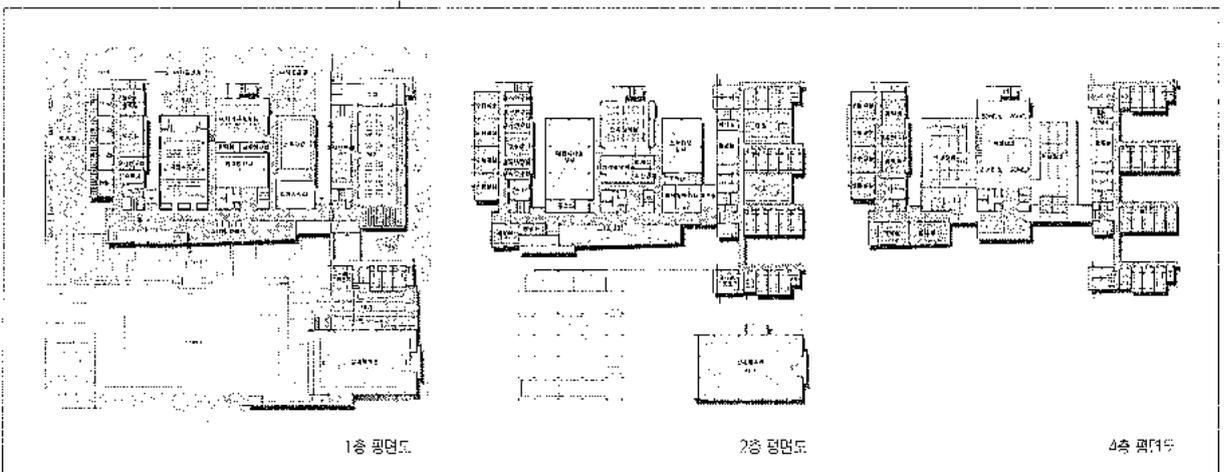
위한 공간에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작 열의를 높이는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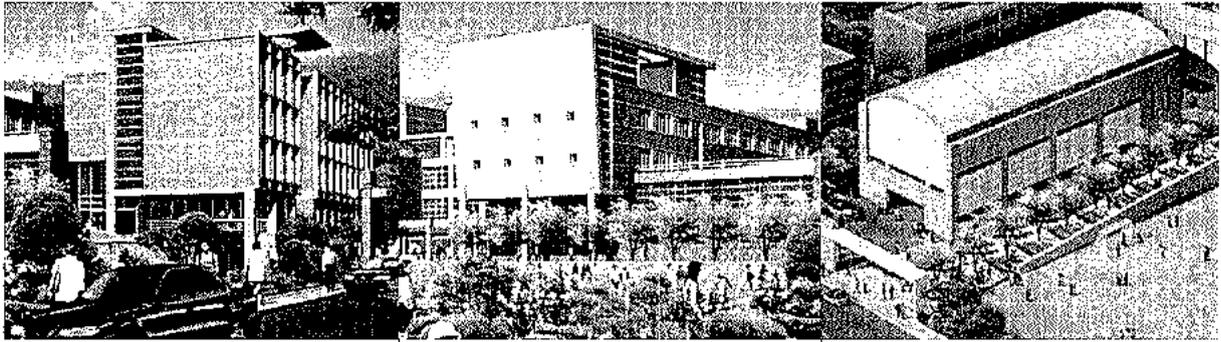
내부공간

특성화 학교가 갖는 개개의 기능간의 특성에 맞도록 Zonning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고 확장된 로비와 공용공간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내부공간의 구성을 도모한다.

건물의 형태

건축적 언어 요소를 질제속에서 분절하여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개성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기능적 요구에 의하여 GROUPING된 내부 기능을 평면상에 배치함에 있어 분절된 이미지를 가지도록 한다.





· 지역사회의 배려

-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동장시설과 체육관 및 강당시설의 인식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

· 에너지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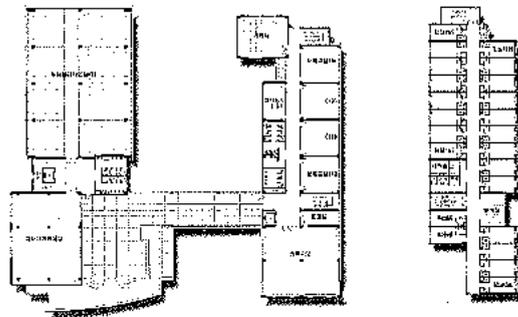
- 일반교실의 남향배치로 향, 소음,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계획
- 가능한 통풍과 채광에 유리하도록 오픈 스페이스의 적절한 배치

· 친환경적 요소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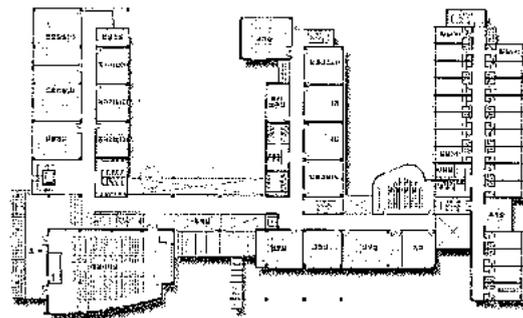
- 남측에 운동장에 배치하고, 남북의 공원의 녹지축을 학교까지 끌어들이며, 녹색 공간을 적극적 유입함
- 건물 사이에 다양한 중정을 배치하여 이 공간을 휴식공간, 자연학습의 장, 정원 및 마당으로 활용함
- 대지의 고저차를 고려한 체육관 및 매스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
- 기존의 도시조직의 방향성 및 경관을 연계한 배치계획

· 심미적인 특성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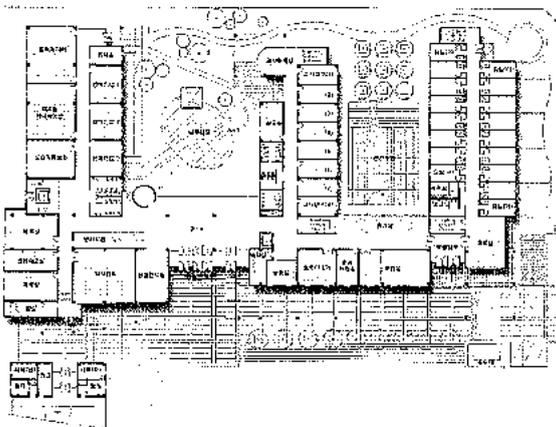
- 학생들의 미감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매스들의 조합으로 흥미로운 입면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실내는 적극적인 채광과 밝은 톤의 색채를 사용하여, 명랑한 분위기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굴화 고등학교

Gulhwa High School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굴화고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실시, 총 9개 작품이 응모한 결과 (주)포스에이씨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심성보)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지난 2월 22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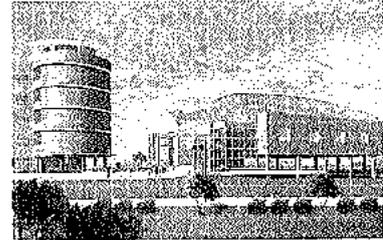
우수작은 상현건축사사무소(표상권)안, 가작은 (주)태경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노진홍)안이 각각 선정됐다.

실사는 전성덕(울산시교육청), 김상본(울산시 교육청), 김상본(울산시 교육청) 김정재(경북대), 노진달(울산시교육위원회), 박동구(울산과학대), 박문

철(울산건축사협회), 서유석(창원대), 유호천(울산대), 윤희철(대진대), 이상호(연세대), 이재훈(단국대), 정랑부(동의대), 조홍정(부경대), 지종환(대송고), 한동욱(남서울대) 씨가 맡았다.

▶ 당선작 / (주)포스에이씨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심성보)

대지면적	12,198㎡
지역여건	일반주거지역, 학교시설결정지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면적	2,749.24㎡
연면적	10,950.06㎡
건폐율	22.54%
용적률	84.22%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교사동), 철골조(다목적 체육관), 스틸스터드경량벽체구조(간막이 내벽)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유리 - 파스텔 북층유리



학급수 24학급
주차 총 50대(장애자 2대 포함)

계획의 주안점

-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 계획
- 제7차 교육과정을 위한 다목적홀(홈 베이스) 설치
- 가변형 칸막이 사용으로 다양한 학



습실 조성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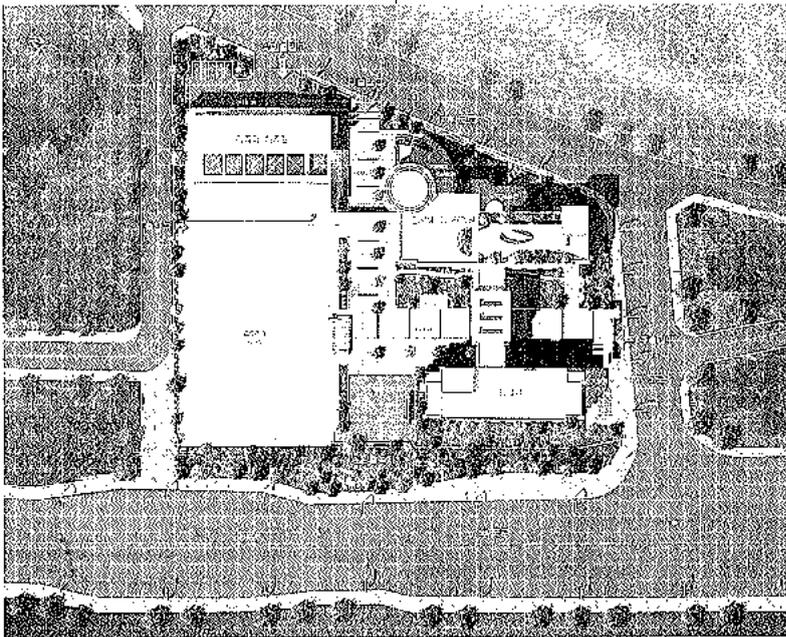
- 행정관리등은 한곳에 밀집시키고, 교사연구실은 소규모단위로 분산배치
- 정보화와 관련된 멀티 미디어실, 컴퓨터실, 시청각실 기능강화
-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방 설치

· 다양한 옥외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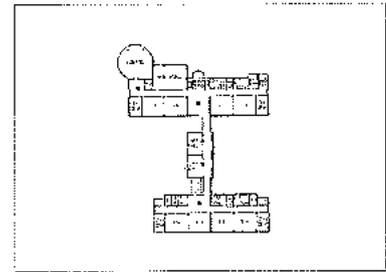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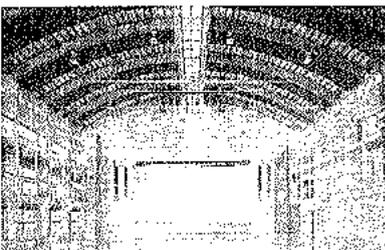
- 외부공간을 정적 & 동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기능적으로 연계
- 부지의 형태를 이용한 Sunken Garden 설치로 쾌적한 식당 및 휴게공간 조성
- 옥외 휴게공간과 소운동장을 교육공간과 긴밀히 배치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
-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방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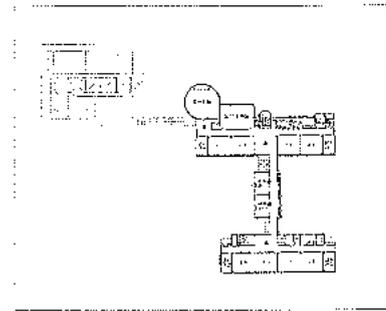
- 지역사회 연계시설 확충
- 학교시설을 지역문화 센터로 지역민에게 개방 가능토록함
- 운동장, 다목적실(체육관), 멀티 미디어실, 컴퓨터실, 시청각실 등의 연계동선을 확보
- 이용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통한 지역주민과 학생간의 활동동선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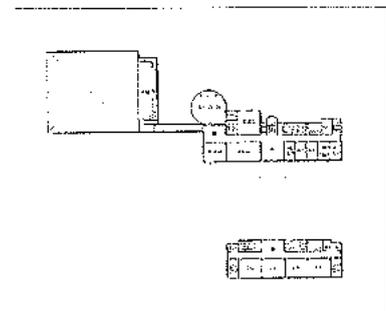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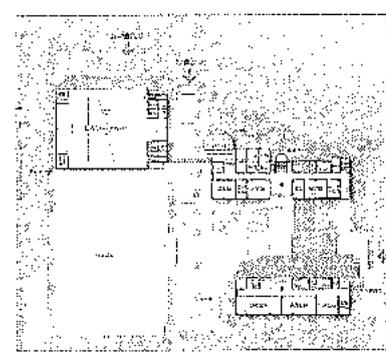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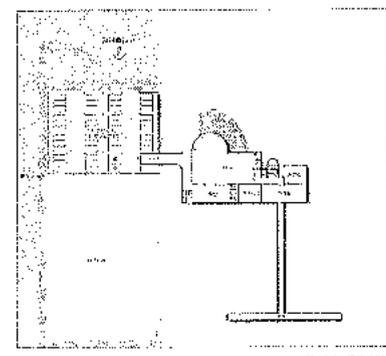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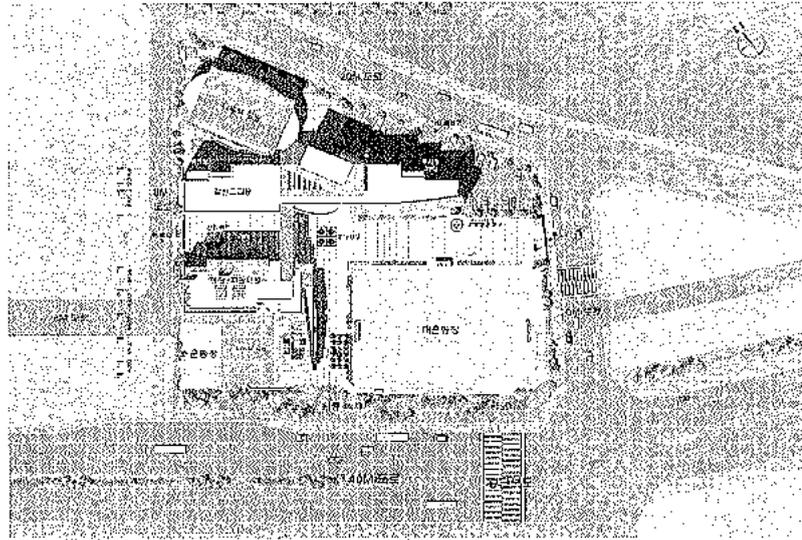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 우수작 / 상헌건축사사무소
(표상권)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무거골화 2택지지구
지역지구	일반주거 지역
용도	교육연구 시설
대지면적	12,198.00㎡
도로현황	40m, 20m, 8m 도로
연면적	10,391.86㎡
건축면적	2,892.73㎡
건폐율	23.71%
용적률	85.19%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상 5층
학급수	학년별 8학급(완성 24학급)
외부마감	외단열 시스템, T16 컬러복층유리
주차대수	40대(장애인 주차 2대 포함)
조경면적	2,195.00㎡

계획의 목표

교육은 그 나라의 100년지 대계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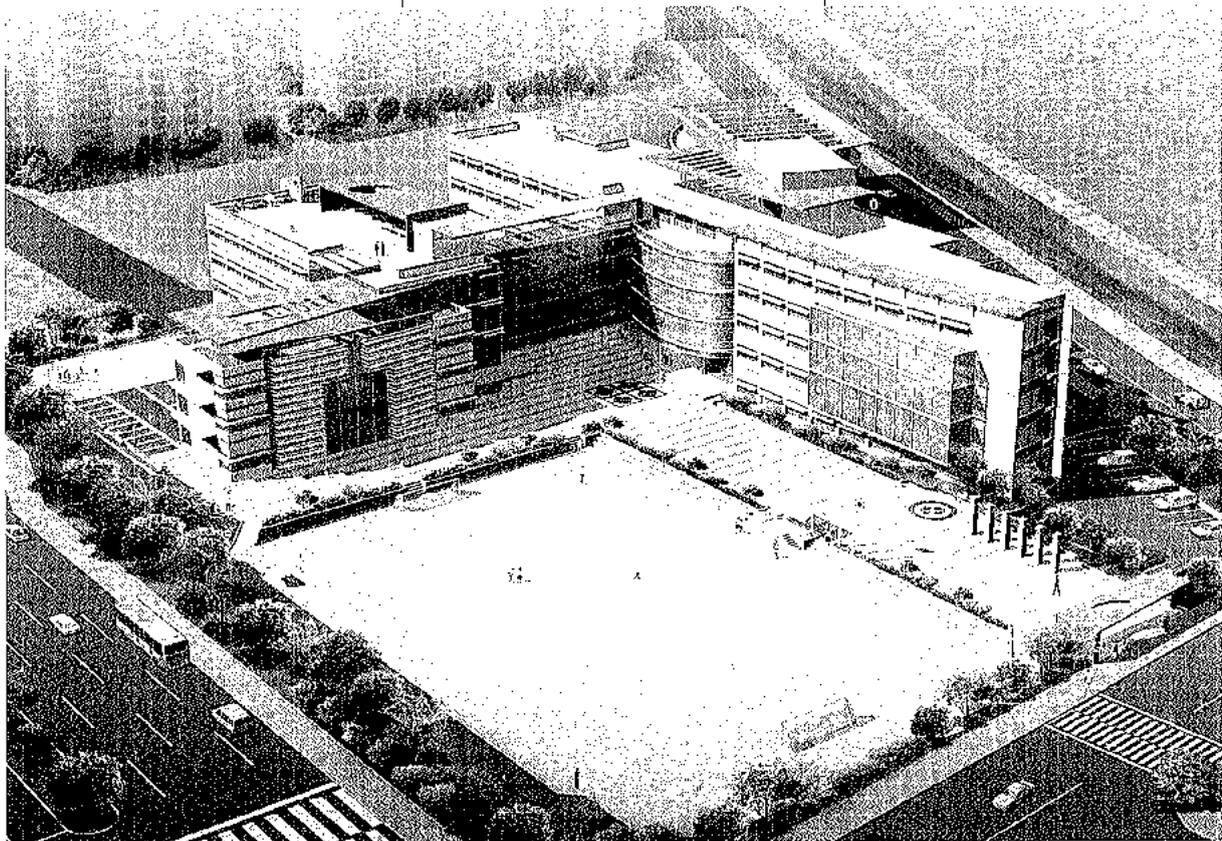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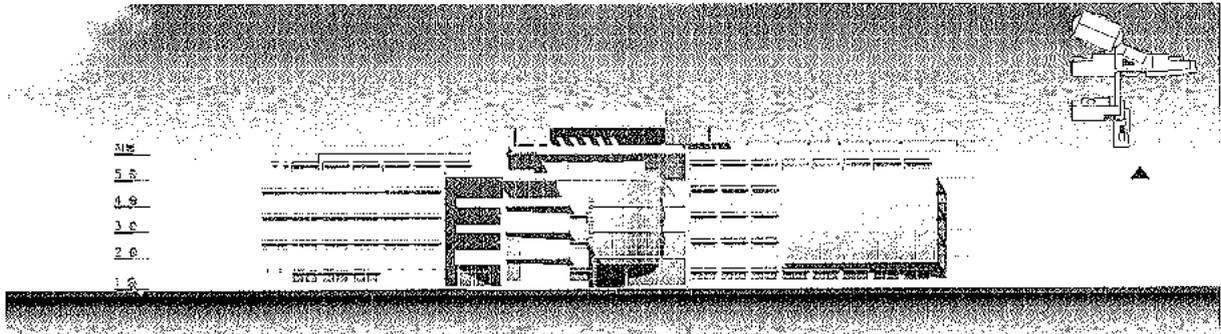
바차도

말처럼 그 중요성은 그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다. 학생들의 자유분방함과 끝없는 흥미, 동기유발의 관심을 뒤로한채 획일적인 교육으로 일관된 과거의 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이끌어 내고 각자의 개성을 합리화하고 창조적인 사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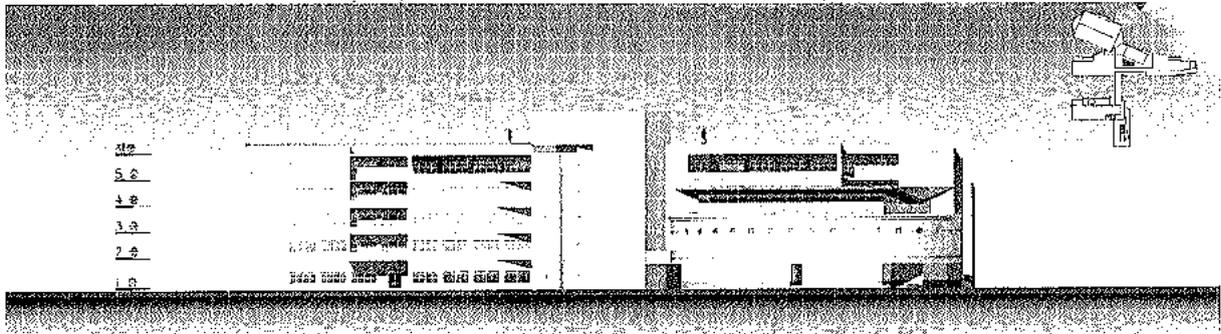
야 한다.

이 계획은 7차년도 교육방침을 고려하여 교수학습형태, 운영체제 및 내·외부 환경을 학생들에게 맞게 조성하고 학생수용에 효율적이며, 지역설정에 알맞고 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하여 인근 지역 내에 COMMUNITY 시설로서 기여할





남측면도



북측면도

수 있게 한다.

기본구상 및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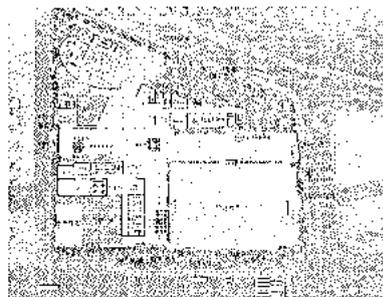
- 열린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공간
- 학교는 시대와 사회환경의 변화, 교수학습형태 및 운영체제의 변화에 합당하도록 공간의 변경 가능성을 통하여 융통성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 근린주구내의 COMMUNITY 시설로서의 융통성
- 학교는 더이상 학교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 속의 학교로 변화되어 지역 주민의 여가 충족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학교내 학교

- 학교라는 커다란 공동체 조직을 허베이스를 중심으로 몇개의 교실군으로 세분화 함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심도있는 학생지도 및 자문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



1층 평면도



2층 44면도



4층 48면도

화암고등학교

Hwa-am High School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화암고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실시, 총 9개 작품이 응모한 결과 우원건축사 사무소(이무준)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지난 2월 22일 발표했다.

우수작은 씨에스 건축사사무소(김진한) 안, 가작은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정태석) 안을 각각 선정했다. 심사위원은 골화고등학교 심사위원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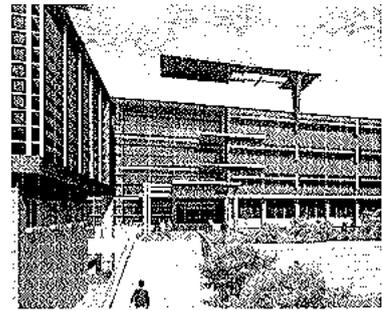
▶ 당선작 / 우원건축사사무소 (이무준)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053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6,098㎡ (공용용지 1,280㎡포함)
도로	서남-12.0M, 북동-6.0M도로
용도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건축면적	2,960.44㎡
연면적	10,334.53㎡
건폐율	18.39%
용적률	58.2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개요	실계상-39대(장애인 주차2대) 별상-35대
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실형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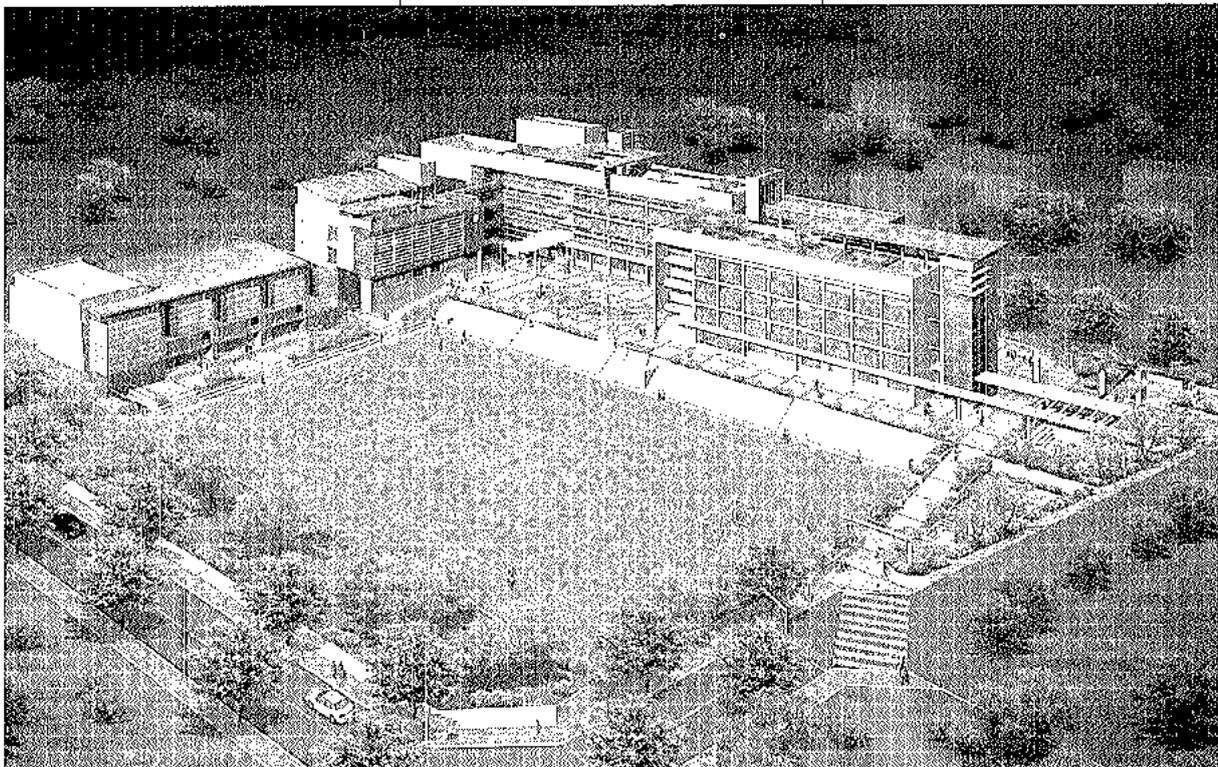
- 능력별 수업, 토론 및 개인 보충학습 등 다양한 학습과정에 따른 교과교실형 학습
- 다양한 교과수업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호환성있는 시스템 : U+V형과 V형의 상호 전환가능
- 가변형 칸막이의 조정으로 다양한 규모의 학습실을 조성하여 능력별 수업
- 컴퓨터를 이용한 일반교과 학습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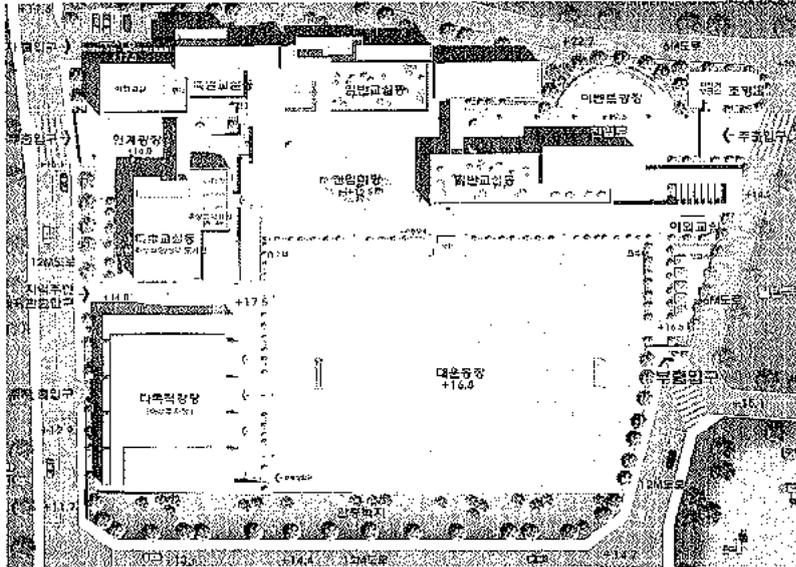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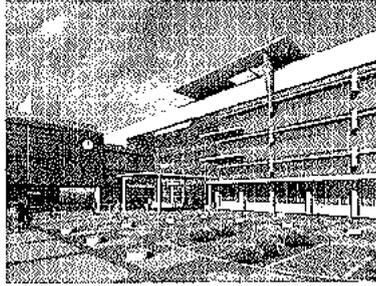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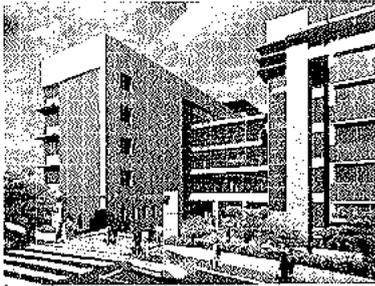


- 의 구축 및 정보화, 멀티미디어 교육
- 첨단 정보설비를 이용한 실기학습체계 구축
-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옥외학습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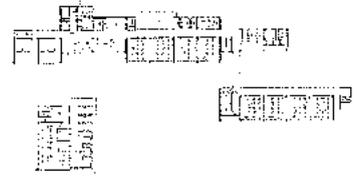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건축계획

- 기존의 획일적 수업형태를 지양한 다목적/다기능적 공간 창출
- 이동수업에 대응하는 동선체계 및 이동거점(home base)의 제공
-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목적 교실형태의 지향
- 팀티칭(team teaching)이 가능한 융통성 있는 가변형 파티션 시설 및 전문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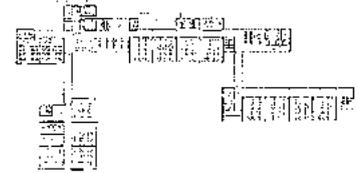




배치도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실의 적정배치

교육시스템의 적용과 건축적 특성

- HOME BASE : 개인적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활동(common activity)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동선의 주요 결정지점에 구성
- 다목적성 및 융통성 개념의 교실모듈
채용 : 8.2m×8.2m
- 인터넷코너의 설치 :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곳에 인터넷코너를 설치

다양한 옥내의 공간 계획

- 외부공간을 정적 & 동적으로 구분하여 시각적으로 연계하고 부지 외부 자연 요소를 학교내로 도입
- 컴퓨터실 및 교사실에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 설치
- 최첨단 시설의 중앙집중 제어화(전문

실기실, 대(소)강의실, 컴퓨터실) 및 대강의실 미디어 교육화

지역사회 연계시설 확충

- 지역 사회인의 학교시설 이용계획 반영(체육과, 식당, 컴퓨터실, 시청각실의 연계동선 확보)
- 이용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통한 지역 사회인과 학생간의 활동동선 구분

기능의 합리적 구성

- 특성별 조닝화로 공간 구성에 의한 이용의 편의성 도모 및 과목별 연계성 있는 실기실의 배치
- 고가장비실, 전문실기실 : 환경 및 통제관리를 위한 상층배치
- 최적의 층고 설정으로 경제적 구조계획 및 학교 건축물의 Mc작용
- 색채계획요소를 내&외부 공간에 계획 반영

학생들의 교외활동 욕구충족

- 개인별 활동의 종류에 따른 필요공간 및 인원, 성별, 연령대를 고려한 공간의 형태와 규모 설정
- 충분한 휴게공간 및 오픈 스페이스 확보

장애인을 위한 공간구성

- 장애인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공간 구성
-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공간 구성 및 장애인 설비의 적극 반영(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 우수작 / 씨에스건축사사무소
(김진한)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053 번지 일대
대지면적	16,098㎡ 14,818㎡(학교신설부지) 1,280㎡(공공용지)
지역여건	학교시설결정지
용도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건축면적	3,184.6㎡
연면적	10,624.4㎡
건폐율	19.78%
용적률	59.57%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부분 철골조)
학급수	24학급
주차	총 47대(장애인주차 3대 포함)
외부마감	적벽돌쌓기 + 알루미늄시트 + 화 감석버너구이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교시설 계획

1.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춘 시설 계획
 - 일반교실 + 특별교실형으로 운영되
는 현재의 학교운영방식을 신교육 체
계(제7차 교육과정) 및 미래의 교육
과정 변화에 맞춘 수준별 이등 수업이
가능한 교과 교실형으로 계획
 - 제7차 교육과정에 입각한 수준별 수
업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크기
의 실들이 필요하므로 대강의실, 중강
의실, 소강의실의 3가지 강의실로 계
획간 조성

2. 재량 활동실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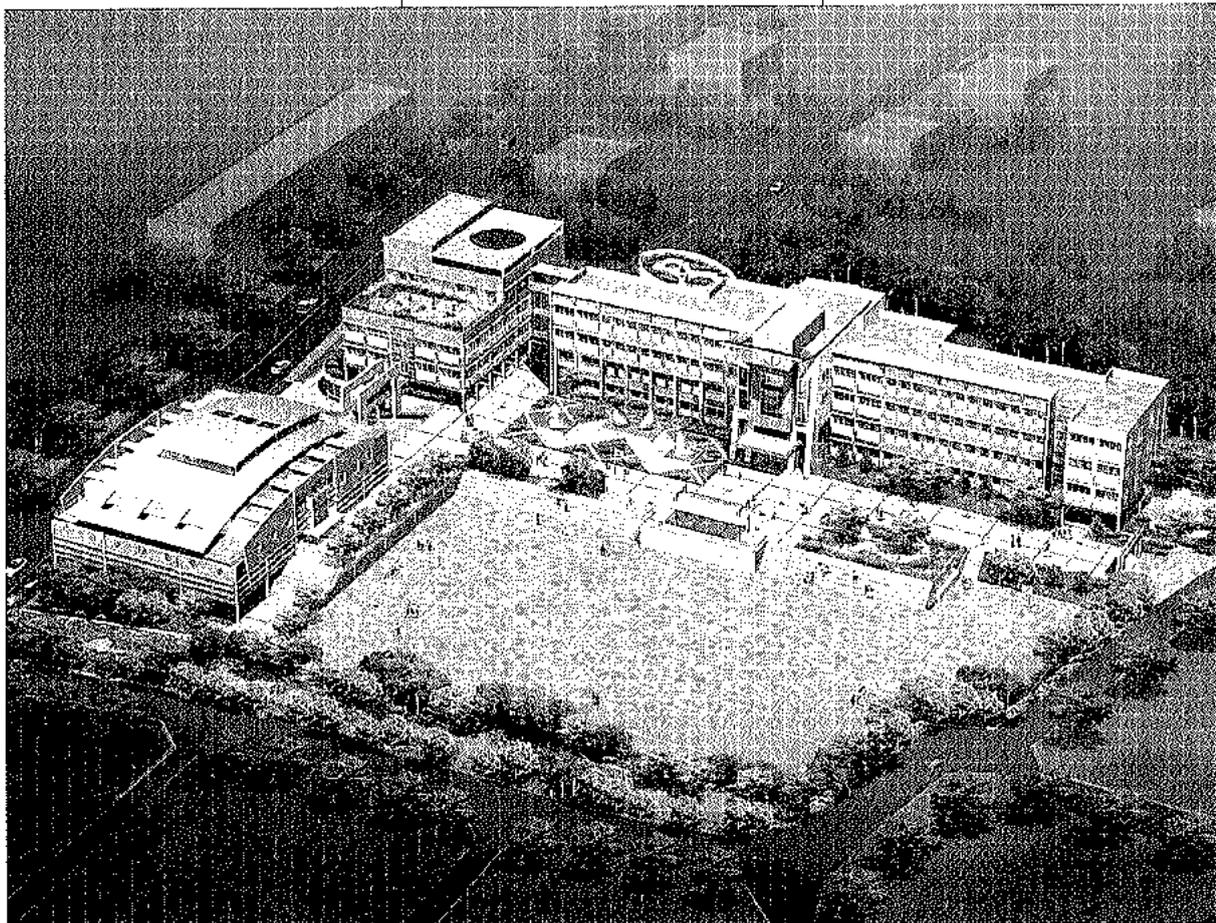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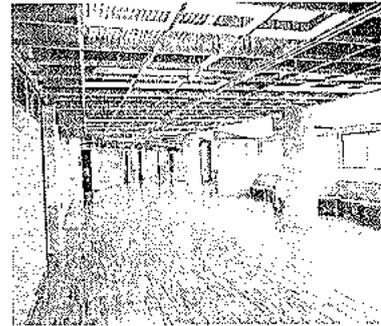
-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
시키기 위한 다양한 특별교실 및 지원
시설의 계획
- 정규 교과 학습활동 외에 다양한 활
동이 가능한실(동아리 활동실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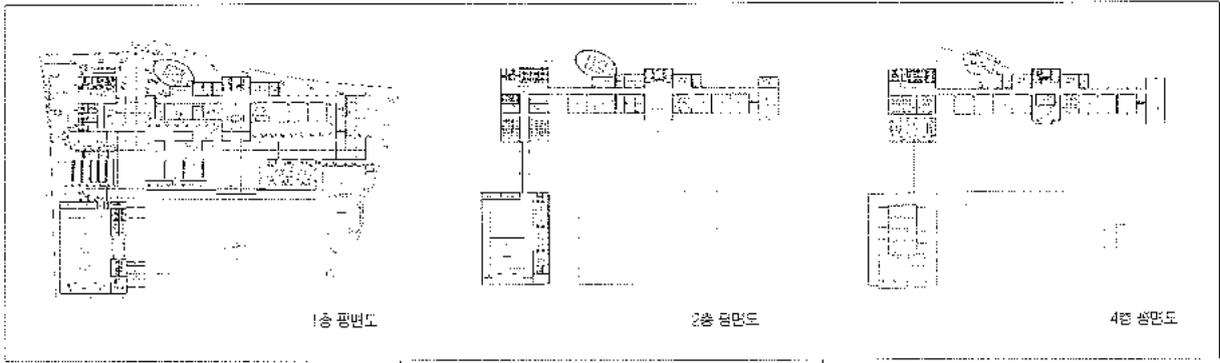
계획

- 팀별 교육을 위한 소규모 교실의 계획

주변환경과의 연계

- 건축물을 북측에 배치하여 남향을 바
라보게 함으로써 남측의 바다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획
- 옥상 조경을 이용한 외부환경과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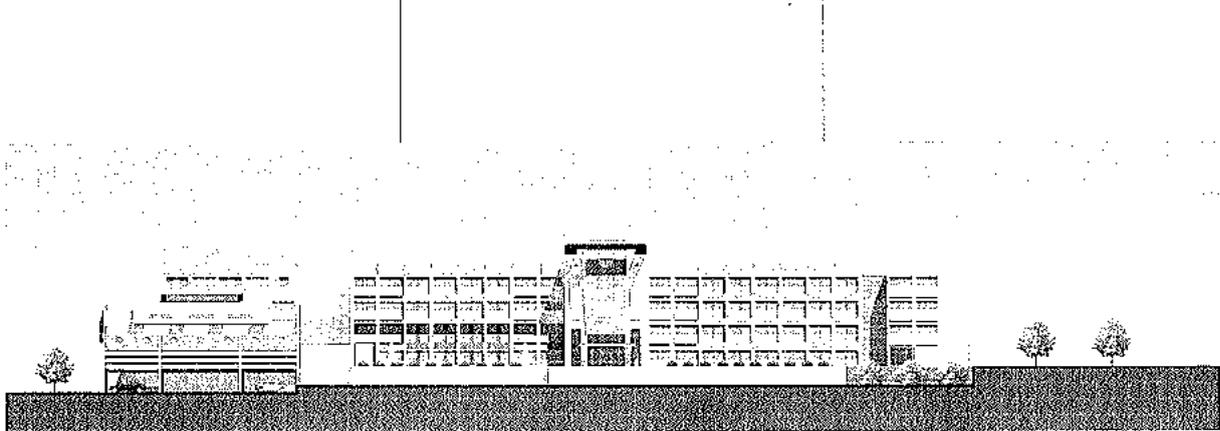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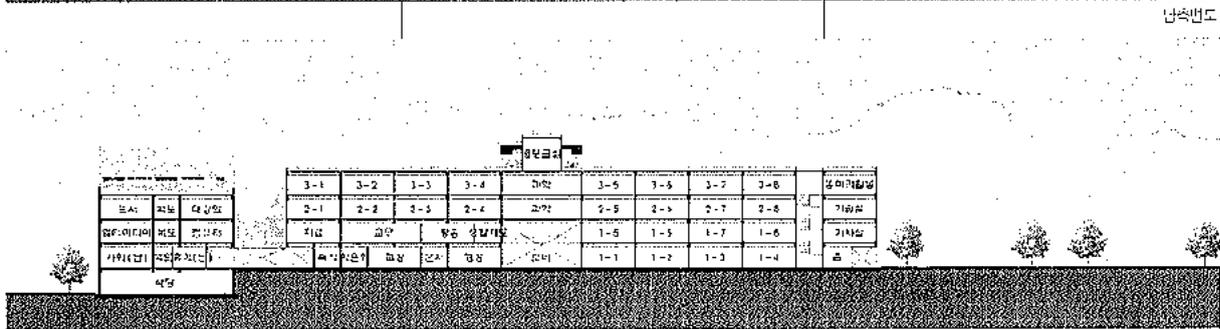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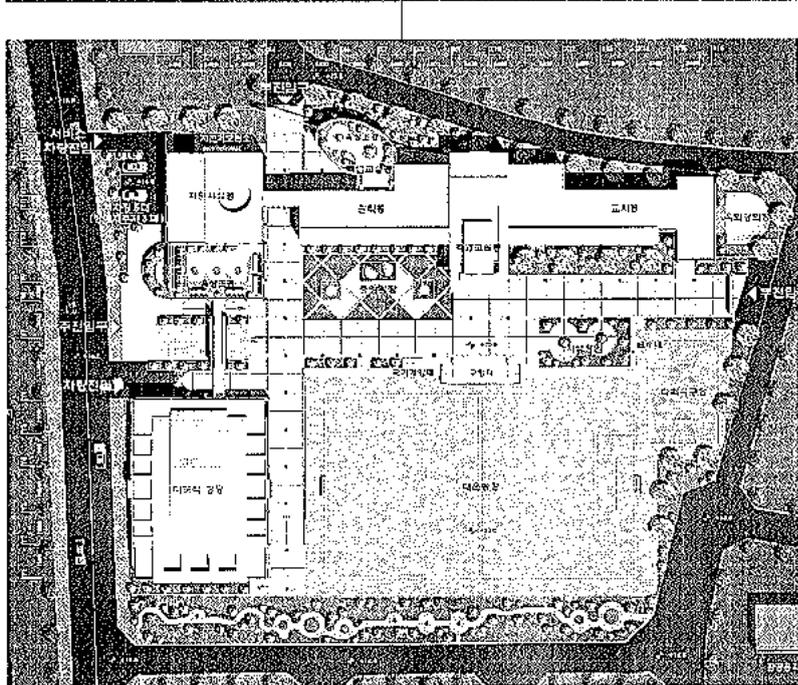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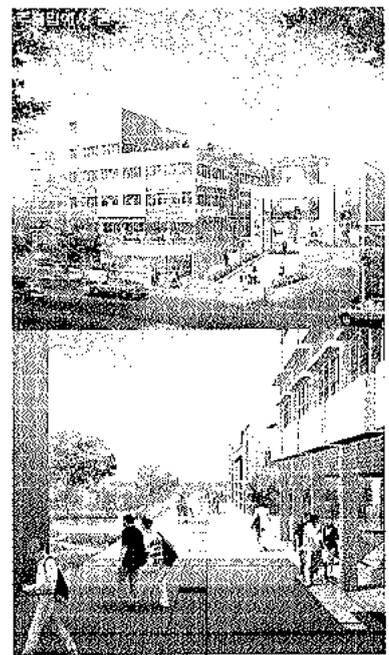
남측면도



북측면도



배치도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1)

The Pleasant Feel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병산서원

김석환 / 터·움건축사사무소
by Kim Suk-Hwan

96년 미국과 멕시코로 루이스 칸과 바라칸 등의 건축 답사를 다녀온 후로,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두루 보러 다녔다. 그동안 가까이 있는 것은 언제건 보겠거니 하고 미뤄 온 터라, 우리 것을 너무 도와시해 온 것 같은 자책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관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답사하면서 이따금 좋은 느낌을 만나 반가웠다. 솔직히 말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손꼽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필자는 건축적 가치의 획득이 고전과 현대 또는 양식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체의 성공 여부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건축의 본질은 변함없으며, 건축에 반영된 시대 상황이 다를 따름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많이 갖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개인의 살림이 넉넉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종묘가 만들어진 것은 정신적 힘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위대한 모습으로 남겨 있는 것이 감사하다. 전통건축은 현대 사유 체계로는 추구될 수 없는 이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건축의 자본주의 행태와 대조되는 교훈도 느낀다. 도대체 우리 선조들에게는 구도(求道)하듯 짓는 어떤 전통이 있었기에 그렇게 훌륭한 건축이 남겨질 수 있었을까? 그 흔적을 나름대로 찾아보고자 한다. (필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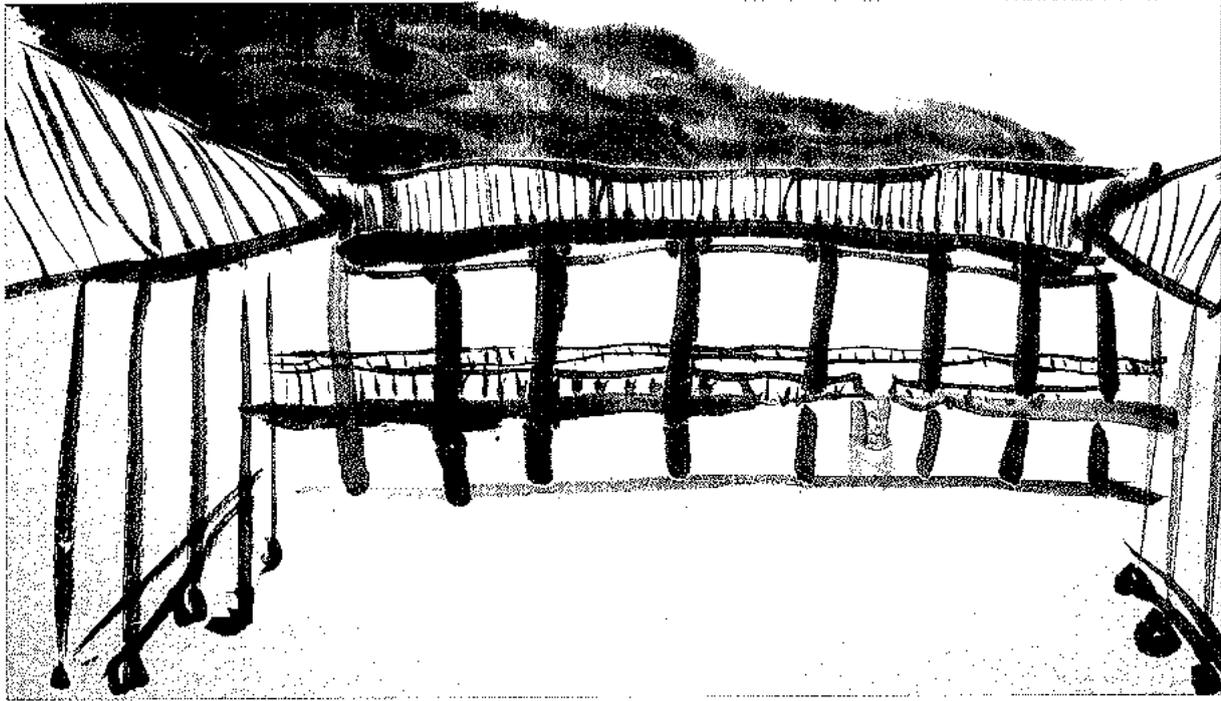
〈 연 재 목 차 〉

1. 병산서원
2. 소쇄원
3. 선암사
4. 화암사
5. 종 묘
6. 창덕궁
7. 부석사
8. 독립당
9. 영선암

서원과 도학적 삶의 체취

넘나들 수 없는 신분사회이고, 그래서 기층 민의 슬픈 희생과 인간적 좌절을 겪게 했지만, 조선의 선비사회는 무모하리만큼 이상주의적인 면이 있었다. 그들은 현실 가운데 도를 실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병산서원에서 느끼게 되는 격조는 바로 그러한 고결한 삶의 태도가 낳은 체취이다.

조선은 건국하면서 성리학을 국시로 삼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상적 우월성보다 정치적 의도가 더 컸다. 정묘전, 조준, 권근 등 조선의 건국 주도 세력들은 신흥 학문인 성리학을 신봉했던 사람들인데, 유교사상에 있는 교화와 덕치주의가 현실에 대한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었으며, 또 그로 인해 구세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치적 의도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이루어진 문화는 격조 높은 상태로 되었고, 우리는 불교문화와 쌍벽을 이루는 수준 높



병산서원 이가지 스케치

은 문화 유산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성리학은 주체세력에 의해 나라를 통치하는 경학(經學)의 역할을 했다. 그것이 시간이 좀 더 지난 뒤 학문 본연의 모습으로서 도학(道學)적 성격을 띠고 정착되었다. 학문이 출세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수양하기 위한 위기지학으로서 자리 잡은 것이다. 선비가 평소 학문을 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대로 살아가기 위한 본연의 자세로 생각했다. 그러다 등용이 되면, 나아가 그 익힌 바를 실천하고자 했다. 실제 삶의 모습은 조금 달랐지만, 그러한 위기지학의 전통이야말로 서원의 성격을 특징짓는 요인이다.

그처럼 선비사회에 도학의 풍토가 생긴 것은 사람의 형성과 관계가 있다. 그 뿌리는 조선 개국의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서, 지조를 지키며 스스로 물러난 사람들



병산서원 정면 전경

에 비롯되는데, 길재로부터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를 거쳐 이언적으로 학통이 내려갔다. 그렇게 재야 사람에서 인물이 자라나 관계에 진출해 활약하기 시작하더니, 선조 때에 이르러서는 이항, 이이, 유성룡, 김성일, 조헌 등 나라의 위기 때 학문한 바대로 실천한 수많은 인물이 나와 절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름 있는 의병장들도 서원에서 도야한 인물들이 많아서 도학을 지향한 선비사회의 정신적 힘을 느끼게 한다.

조선시대 서원의 출현과 기능

병산서원은 임진왜란때 나라를 구한 탁월한 경세가로 칭송되는 서애 유성룡을 배향한 서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은 16세기 중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성리학자이던 안향을 추모하여 세운 백운동 서원이다. 백운동 서원의 운영 방식은 중국의 서원제도와 유사했는데 그 이름까지도 중국의 백학동 서원의 이름을 본받아 지었다. 백운동 서원은 그 후 나라로부터 사액을 받아 소수서원으로 되었다. 소수서원이 생긴 후로 김광필의 유지를 받들어 만든 도동서원을 비롯하여 이언적의 옥산서원, 이항의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 대표적인 서원이 생기며 점차 이 땅에 서원문화가 확산되어 갔다.

서원은 수도원 같은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사찰이 종교적 수도원이라면 서원은 성리학에 통달한 선비를 양성하기 위한 현세의 수도원이었다. 사대부들은



소수서원 인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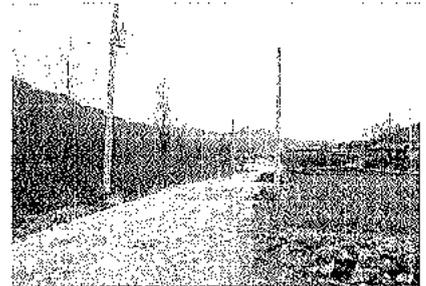
자제의 교육에 커다란 열의를 쏟았는데, 그런 서원의 유생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모에 의해 선발한 일종의 계주자(係走者)였다. 서원에서의 공부는 과거시험에 대비하기에도 아주 효율적인 과정이었다. 출세한 상류층의 정보교류에 의해 이미 시행되었던 풍부한 사례와 시험의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은 향교와 서원인데, 그 중 향교가 비교적 지체가 낮은 중인 계층의 자제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국민 교육기관이라면 서원은 사대부가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이었다. 그 뿐 아니라 서원은 상류층 문화를 유지해 가는 도장이 되었다.

서원의 일차적인 기능은 스승이 유생들을 모아 놓고 가르치는 일이다. 그리고 서원의 교육 방법은 유생들이 입교한 후 일정 기간 스승과 숙식을 같이하는 공부

였다. 입교하는 유생들은 대부분 이미 진사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들이어서 서원의 교육은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한 서원의 여러 건물 가운데 강의하는 곳이 강당인데 병산서원에서는 입교당이 그것이다. 강당의 대청마루에 스승을 보고 제자들이 둘러 앉아 그 날의 공부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스승의 강론을 듣는 토론식 강의를 행해졌다. 강당에는 강학공간인 대청마루에 스승이 거처하는 방과 서재가 딸려 있었다. 그리고 유생들을 위해 기숙사격인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대개의 경우 강당앞 좌우에 두채의 건물을 대청으로 짓고 강당에서 바라보이는 좌측에 있는 것을 동제(東齋), 우측에 있는 것을 서제(西齋)라 하여 동제는 상급생이 쓰고 서재는 하급생이 썼다. 또 서원에는 사당을 두었는데 창시할 때부터 배향한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때마다 제례를 올리며 학문에 임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 뿐 아니라 사당은 서원건축의 공간 형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였다.

서원은 강당을 중심으로 사당이 전면에 놓이는 형식과 반대로 후면에 놓이는 형식 그리고 자유롭게 놓이는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당을 공간적으로 가장 위계를 높여, 부지내에서 지형이 높은 후면에 두는 병산서원과 같은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진입문인 와삼문과 강당, 사당이 중심축을 이루게 하였다. 서원내 그 밖의 건물로는 서책을 보관하는 장서고와 사당에서의 제사를 준비하는 전사청, 그리고 누각을 들 수 있는데 병산서원 건축의 백미라 일컬어지는 만대루는 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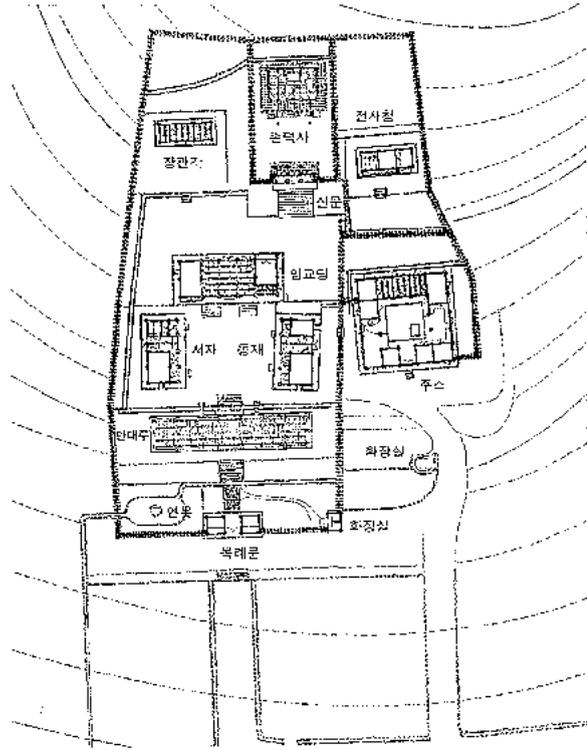


식과 경연에 쓰이도록 지어진 누각 건물이다.

형식적 폐합과 시각적 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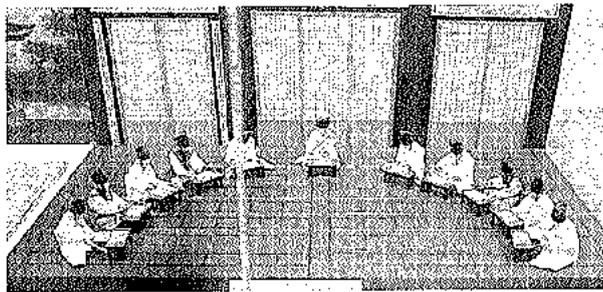
한국전통건축에서 멋이 획득되는 것은 건축 자체의 형태만이 아닌 주변 자연과의 균형여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균형 여하에 따라 건축은 시정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도 하고, 은밀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 시원스런 눈 멧을 접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인위로 다듬어진 건축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에 대한 대비의 인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중 병산서원의 멋은 유별난데 그것은 건물과 배경이 투명한 관계 맺기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산서원의 멋이 최대로 느껴지는 것은 입교당에서 넘겨 보이는 만대루와 병산과의 중첩된 이미지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상태일 것이다.

한국건축 외부공간의 중요성은 많이 예기되었다. 여기에서도 강당과 동서재 만대루로 폐합된 마당을 이루고 있다. 보통 폐합구조로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건물의 뒤편은 보이지 않고 단절된 채 폐쇄된 하나의 영역만을 인식되게 된다. 그에 비하여 어느 한 쪽이라도 고정된 벽체가 없이 트여 있을 때는, 주변과 건물이 공간적 연속성을 갖고 하나로 어우러져 보인다. 하지만 연속적인 상태의 경우에도 그 후면의 대상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면 그 느낌이 부가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외부로 열려 있기만 하면 공간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게 되고 완전히 닫혀 있으면 다른 공간과의 대비를 알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만대루 너머



병산서원 배치도(한국건축의 사물간/김봉원 저에서 인용)

로 병산의 아름다운 산자락이 제대로 보여 그 풍광을 모두 음미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만대루가 입교당 쪽으로 조금더 가깝거나 멀거나 하면 서원영역과 대비된 외부 세계를 제대로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평형을 건축의 위치와 크기가 결정짓고 있다. 입교당에서 볼 때 저만치 떨어져 부유해 보이는 만대루는 하나의 셀타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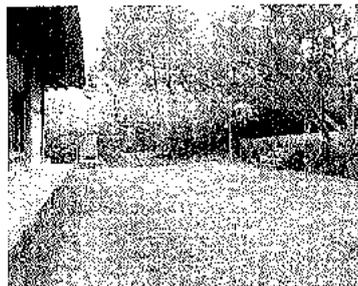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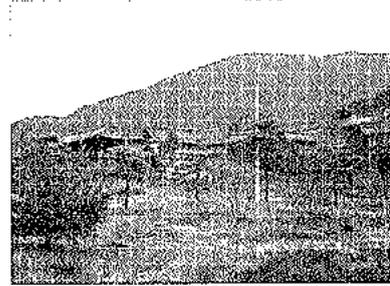
1. 동채마루
2. 만대루 우하에서 본 인교당
3. 병산서원 진입로
4. 의상문인 복레문
5. 주수 전경
6. 서원에서 공부하는 모습
7. 복레문을 열고 들어갈
8. 인교당 뒷마당
9. 복레문 좌측의 연못
10. 복산자락에 숨어들어 있는 병산서원



8



9



10

열린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태가 공간을 다면적이고 풍부하게 느껴지게 한다. 그런데 만약 만대루가 서 있는 지형이 마당의 지면과 연속된 상태로 평평하였다면 또 그렇게 느껴질 수 없을 것이다. 것처럼 만대루의 위치를 정하는 일이야말로 절묘한 감각의 선택이었다. 그러한 지형을 이용한 적절한 배치의 조건에 의해 휴식공간인 만대루는 자신만의 영역으로 존재하고 입교당은 멋의 유혹에 빠지지 않은 채 강화 기능에만 충실할 수 있게 된다.

조선시대의 미학정신

조선시대에 미학은 불교의 화미미학으로부터 성리학의 태극미학으로 변했다. 성리학은 13세기초 중국의 주희에 의해 정리되었는데, 삼라만상의 생성과 그 이치를, 이기(理氣)론으로 규명한 사상이다. 만물이 이(理)와 기(氣)의 작용에 의해 생성되고 변화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 뿐 아니라 인간의 성품과 마음까지도 이기(理氣)론으로 해석하려 했다. 태극 도형에는 그 양면성이 내포돼 있어서, 이와 기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도형이다.

과거 불교사상에서의 미학은, 통일되고 화려한 성격을 지녔다. 건축에 사용되는 재목 공급이 원활하여 장대목 사용, 곧은 나무 이용, 다양한 수종이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었고 풍부한 노동력이 동원될 수 있었다. 그래서 부재 하나 하나에 공에 하듯 많은 공력을 들여서, 배울리기 등 항아리보 쇠서나 우미량 등이 가공되어 쓰였다. 수덕사 대웅전이 대표적인 예로서, 그 건물은 현존하는 목조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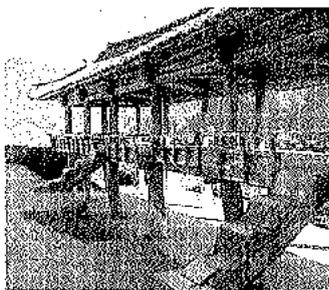


만대루의 얼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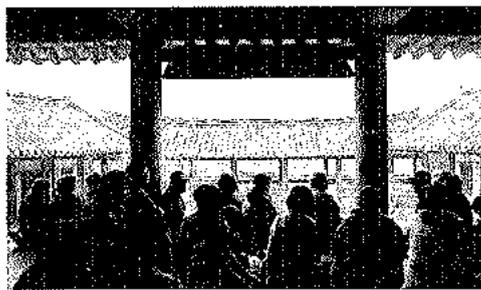
가운데 화미미학의 가장 높은 형식적 완결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태극미학은 기의 흐름을 중시한다. 구조도 뒤틀린 나무를 그대로 써서 형식보다 조화를 중시했으며, 배치상으로도 건축을 위치하는 주변 자연과 마치 태극의 결합처럼 되게 하려 했다. 관념론적 도식성을 벗어나 점차 자연사물과 감각적으로 균형을 추구하였다. 도식성이 강하던 궁궐과 서원 등의 건축에서도 배치상 대칭적 엄격성으로부터 점차 벗어나, 도식성에 바탕을 두되 정서적 감각을 중시했다. 그래서 이 곳 병산서원에서 우리의 인식에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건물과 주변이 한데 어우러지는 정서이다.

또 태극 미학은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억누른 작품이 더욱 아름답게 생각했다. 소박하고 작은 것, 거칠지만 두터운 맛, 대담한 생략, 그리고 빈 여백이 아름다울 수 있다. 고려의 청자는 화려함의 극치인데 비해, 조선의 백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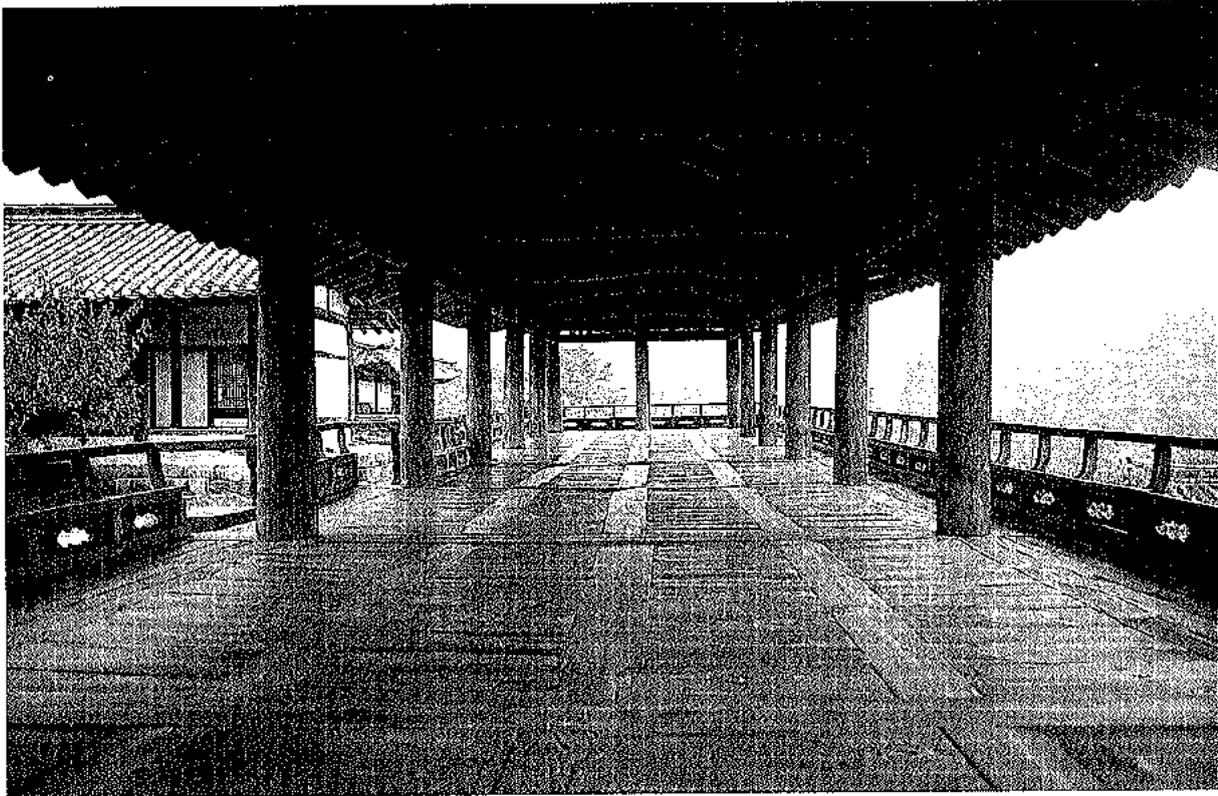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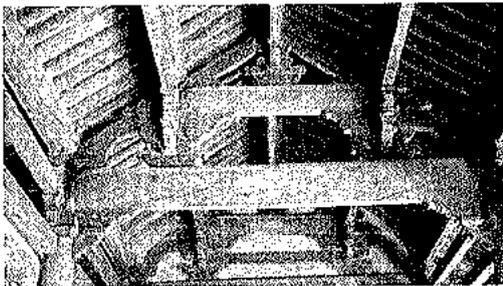


만대루 바루에서 본 일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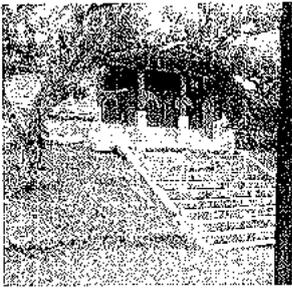
지는 소박 담백한 맛을 보여준다. 만대루에 쓰인 부재도 자연상태의 형상 그대로 담백한 맛을 풍긴다. 그리고 세월을 머금어 고풍스럽게 변한 목재의 무늬결은 더 친근한 맛을 느끼게 한다.

풍광을 드나드는 바람이 머무는 곳

병산서원의 만대루는 풍광을 드나드는 바람이 머무는 곳이다. 아니 그 건물을 자체가 바람처럼 형체 없이 느껴진다. 그것은 마치 형체를 가진 것이 제 형체를 남에게 모두 주고 자신은 몸을 비인 상태의 느낌이다. 기능적으로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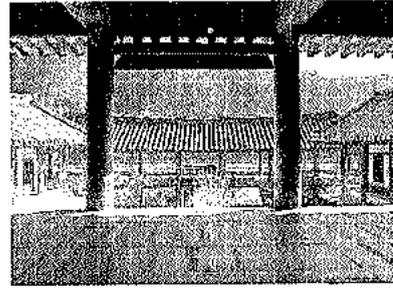
1. 만대루의 마당
2. 일포당 미루에서의 풍경
3. 만대루 우량의 구조
4. 만대루 기둥의 그림자집 모습
5. 수려사 대웅전 내부의 배흘림 기둥
6. 수려사 대웅전의 공간적으로 가공된 부재
7. 서림
8. 풍채
9. 만대루의 조망
10. 만대루 미루바닥



8



9



10



만대루, 동서재 입교남이 폐루를 이루는 마당

만대루는 조망을 위한 대를 쌓은 것과 같다. 그 통나무 계단을 오르는 것은 마치 강 너머를 구경하기 위해 언덕에 오르는 것과 같다. 그것은 조망의 언덕일 뿐 아니라 들떠 있는 구조에 의해, 하늘을 나는 듯한 상큼한 기분이 들 수 있게 된다.

서원 마루에 걸터앉아 만대루의 실루엣 사이로 병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 앞에 이러한 유산이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함과 벅찬 감동을 갖게 한다. 이 건물은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최고의 격조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보는 이의 마음에 시정의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아! 병산서원. 어떻게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낙동강의 비단 물줄기를 애정스레 껴 안고 늘

름하게 서 있는 병산, 그리고 희고 고운 백사장을 넉넉히 비워 두고 은자처럼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 이 수려한 자연의 풍광이 만대루 마루 위에 앉아 보는 이의 마음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이야기한다. 그것은 건물 자체만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잘 다듬어진 건축과 그것이 놓여진 자리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예민한 상태의 균형이 이루어져 나타나는 것이다.

만대루는 동서재의 외벽을 따라 폐합된 운곽선을 따라 놓여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실루엣의 운곽선일 뿐 다른 건물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 건물은 중정의 운곽을 유지한 채 자유로이 독립되어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 형태이지만, 길이가 길어 그 형태가 아닌 단순한 맞배지붕처럼 보이는데, 지붕의 적당한 무게감은 트인 기둥 간 사이와 허와 실의 좋은 균형 감각을 느끼게 한다.

화려하거나 과장되지 않은 진실함, 간결하고 힘찬 글씨와 같은 예지, 그리고 조용하고 신중한 몸가짐에서 느껴지는 인격을 대하는 것과 같다. 그 고고한 조영정신으로 하여 병산서원은 한국건축이 도달했던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져 커다란 시정을 자아내는 이러한 예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안타까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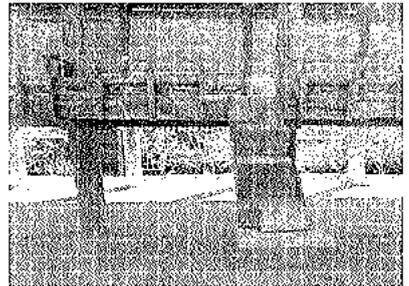
몇년전 이 곳 병산서원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카페처럼 보이는 건물이 들어섰다. 단조로운 한 동의 건



1



2



3



4



5



만대주의 대들보와 인봉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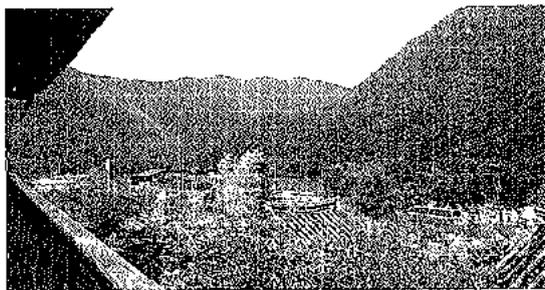
물도 아니고, 여러 덩어리를 올망졸망 연결하여 맴시를 부리려 하였는데 더욱이 표면을 검은색 페인트로 눈에 잘 띄고 있다.

모두다 인정하다시피 병산서원의 멋은 건물 자체에만 있지 않았다. 병산을 끼고 휘돌아 친 강물의 물줄기와 수목화의 여백처럼 여유롭게 펼쳐진 백사장, 그리고 단아한 자태의 고고한 노송 몇 그루가 원숙한 수목화의 필치처럼 멋들어지게 어우러져 학덕을 닦는 서원으로서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근래 전국적으로 중창이다 하면서 본래의 멋이 다 깨져 가던 가운데 남은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첫 방문 때 귀하다 귀하게 여겼었다. 그러던 것이 이 건물로 인해 별천지에서 만나듯 한 그윽함이 손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건물을 지은 사람은 해당 법에 위배

됨이 없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었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항변할지 모른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로부터 200미터이내까지만 규제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건물은 그 한계선밖에 근접하여 위치해 있다. 그러나 누구나 인간이 사물을 느끼게 되는 것은 특정한 거리로 나누인 한계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야에 들어온 주변을 함께 정서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일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은 그 건물을 지은 사람만이 아니고 그토록 자신들의 선조에 대한 경외심이 크고 자존심도 강한 이 지역의 후예들이다. 그들이 이일에 대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왜 수수방관하였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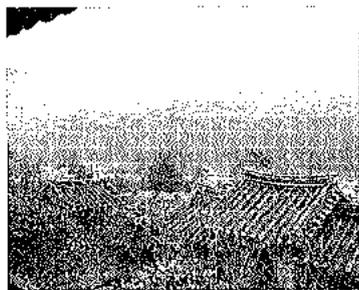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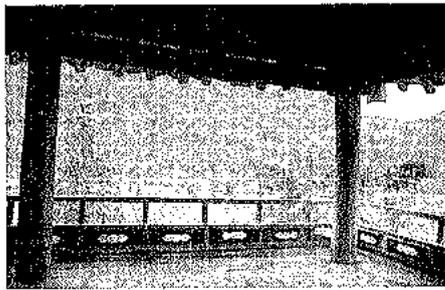


7

1. 만대주의 중랑
2. 침관각
3. 만대주의 동나무 거문
4. 앞마당에서 보이는 만대주
5. 낙동강변 언덕
6. 만대주의 조망(잔인모습의 검은색침원 집이 보인다.)
7. 앞마당에서 보이는 만대주
8. 서재
9. 만대주의 조망
10. 병산서원 주변풍경



8



9



10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7)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of China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어화원

한동수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Han Dong-Soo

중국의 원림건축은 성시건축, 주거건축, 궁궐건축, 사묘건축, 단묘건축, 능묘건축 등과 더불어 중국고전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건축유형도 원림건축 만큼 중국인의 정신세계와 조형세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중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궈낸 한자문화권의 범주 속에서 세나라가 각기 가지고 있는 건축미학의 차별성도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중국 고전 원림건축에 대한 이해는 최근들어 우리 건축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교건축의 시각을 여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와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이 연재는 모두 10회로 구성하였으며 먼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이어서 그 설계원리를 규명해 보며, 다음으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오늘의 중국 현실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필자주)

〈 연 재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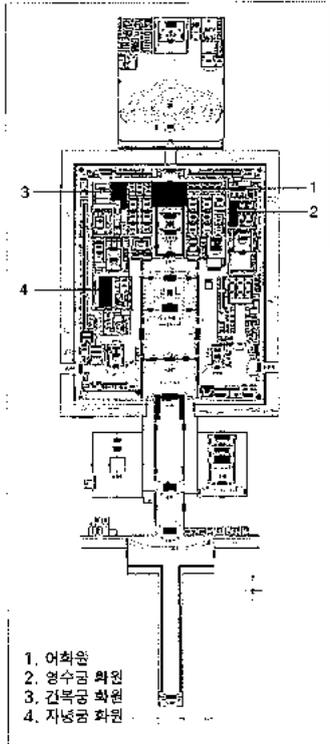
1. 시대적 풍경과 특색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
3. 원림의 경영자와 장인, 그리고 이론서
4.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어화원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화원
9. 원림작품의 분석: 소주의 졸정원
10. 새시대의 정신, 새로운 원림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어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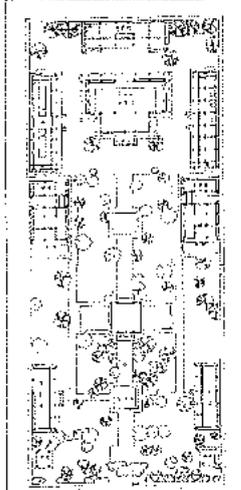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대부분 자신의 궁궐과 부속된 원림을 동시에 건조하였다. 궁궐은 일반적으로 주로 행사를 위한 건축군과 잠을 자기 위한 침전의 건축군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와 더불어 휴식과 오락을 위한 원림이 또 하나의 건축군을 이룬다. 이러한 원림은 황가원림의 한 유형¹⁾으로서 대다수가 궁성의 내부에 혹은 궁전의 맨 뒤,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조성되었다. 특히 명대 기경년간부터 청대 건륭년간까지의 사이에는 상업이 발달하고 물자가 풍부해짐으로써 원림은 기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모두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같은 상황은 황가원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자금성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명청 양대²⁾의 황궁으로서 북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점유

1) 청대에는 황가원림으로 자금성 내의 궁원, 황성 내의 어원, 북경 서쪽 교외의 이화원과 원당실원, 하북 승덕의 세서산정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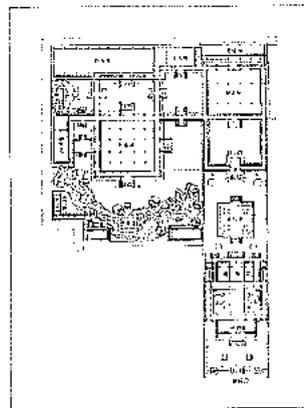
지능성의 전체적인 배치의 주요 화원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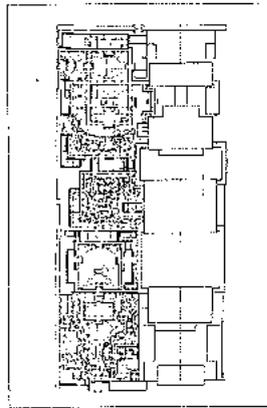
자녕궁 화원의 배치도

면적은 72만 평방미터로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축군이다. 이곳에는 가장 주된 원림인 어화원(御花園)을 비롯하여 건륭 34년(1769

년) 명대 인수궁(仁壽宮)의 옛 터 위에 중건된 자녕궁(慈寧宮)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자녕궁 화원³⁾, 건륭 15년(1750년) 서육궁(西六宮) 서북측에 조성된 건복궁(建福宮) 화원⁴⁾, 6년간의 공사 끝에 건륭 41년(1776년) 준공된 영수궁(寧壽宮) 화원⁵⁾ 등 4개의 원림이 있다. 그 중에서도 어화원은 자금성의



건복궁 화원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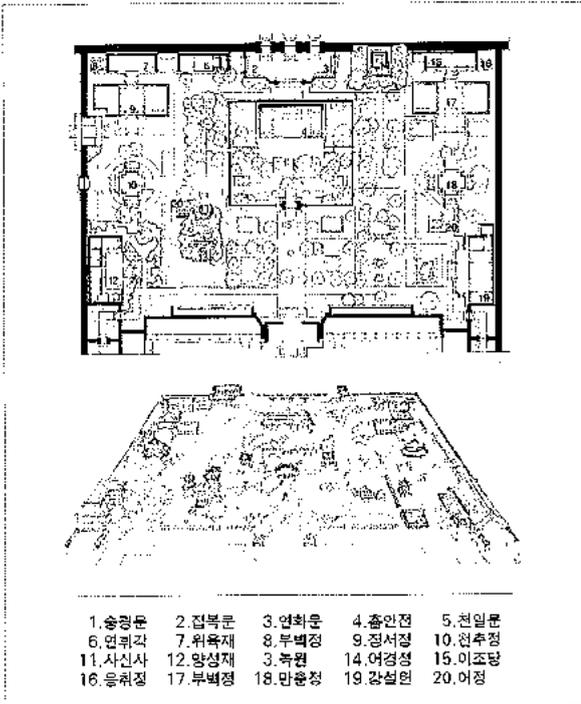


영수궁 화원의 배치도

중축선 가장 끝단에 자리잡고 있어 거대한 건축군의 종결점이 되는 동시에 점유면적이 가장 크다.

7.1 자금성 어화원의 규모와 배치특성

2) 명대는 1368-1644년까지 11명의 황제가 즉위하여 277년간 유지되었고 청대는 1644-1911년까지 10명의 황제가 즉위하여 267년간 지속되었다.
 3) 황태후, 태비·빈들이 휴식을 취하고 예물을 올리던 장소로 사용되었다.
 4) 내경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화원이라고도 부른다. 점유면적은 4000여 평방미터에 이른다.
 5) 규모는 남북 160미터, 동서 40미터 남짓으로 점유면적은 60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원림이다. 건륭황제가 퇴위 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륭 37년(1772년)에 착공되었다.
 6) 일부 책에는 동서 140미터, 남북 80미터로 나와 있는 것도 있으나 여기서는 <고궁사전>(안동주권, 문화출판사, 1995년)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어화원의 조경도와 주요 전각 및 시설 배치명도

명대 영락 18년(1420년) 어화원이 조성될 당시에는 그 명칭이 궁후원(宮後園)이었으나 청대에 들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형태는 정방형이고 규모는 동서 약 130미터, 남북 90미터⁶⁾로 현천상제(玄天上帝)⁷⁾에게 제사를 올리는 흥안전(欽安殿)을 포함해서 1.25 헥타아르(약 11700평방미터)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전체적인 계획은 엄격한 좌우대칭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 자금성이 가지고 있는 중축선의 흐름이 이곳에 이르러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원림 안에는 정교하고 변화가 풍부한 크고 작은 루·대·정·각의 건축물 20동이 하나의 건축군을 이루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대부분의 건축물과 나무들은 명대로부터 전해오는 것들이다. 청대에 들어서도 이곳은 내정의 예불, 꽃과 물고기의 감상, 사슴의 사육과 같은 놀이와 휴식의 장소로 계속 사용되었다.

어화원은 대체로 흥안전(欽安殿)을 중심으로 한 중로(中路)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동로(東路) 및 서로(西路)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동로의 북쪽은 궁성에 맞닿아 있는데 돌을 쌓아 높은 산을 만들었다. 돌의 중앙에는 동굴을 조성하였고 굴 입구의 문 위에는 "퇴수(堆秀)"라는 현판과 그 좌측에 건륭황제의 어필인 "운근(雲根)"이라는 두 글자를 새겼다. 산 정상에는 어경정(御景亭)을 세웠다. 산 밑

7) 현천상제는 도교에서 말하는 천제(天帝)를 가리킨다.
 8) 서적분류의 한 방법으로 김·을·병·정부라고도 하며 이 4개의 부분을 모두 합쳐서 사부(四部)라고도 한다. 경에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비롯한 유교의 경전들, 사는 25사와 같은 역사서들, 자는 주대일 이후 제자백가론 비롯하여 석가, 도가, 천문, 술수 등 여러 가지 학설들, 집부는 사나 산문 등의 문학적품들이 각각 포함된다.
 9) <사고전서>는 청대 건륭황제의 칙명으로 역대 저술 가운데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 수집된 문헌을 수록한 중국 최대의 총서이다.

에는 돌 사자 조각이 있고 사자의 등위에는 석판이 올려져 있으며 석판 위에는 용머리를 조각한 분수가 설치되어 있다. 석산(石山)의 동측에는 건륭년간에 만들어진 이조당(摛藻堂)이 있는데 건물 내부에는 경·사·자·집(經·史·子·集)⁹⁾으로 구분된 서가가 있어 <사고전서회요(四庫全書 摘要)¹⁰⁾를 보관하였다.



취수산의 밑에 설치된 돌 사자 조각과 분수대

이조당의 동쪽에는 응향정(凝香亭)이 위치한다. 그 남쪽에는 연못이 있고 연못 위에 부벽정(浮碧亭)을 세웠으며 연못의 서쪽으로 꽃밭이 조성되어 있다. 연못의 남쪽은 하나의 중정을 이루는데 만춘전(萬春殿)이 세워져 있다. 만춘전의 동남쪽에는 서향을 한 강설현(絳雪軒)이 있고 앞에는 해당화를 심었다. 강설현의 남쪽은 경원동문(瓊苑東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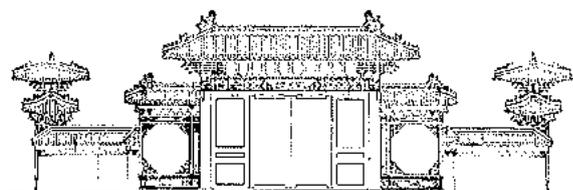
서로의 북쪽 역시 궁성에 맞닿아 있는데 명대에 청망각(淸望閣)이라고 불렀던 연휘각(延輝閣)인데 3칸에 2층 구조로 남향을 하고 있다. 연휘각의 남쪽에는 사신사(四神祠)가 마주보고 있고 위육재(位育齋)는 서쪽에 있다. 이러한 배치는 동쪽의 이조당과 대칭적인 구도이다. 위육재의 서쪽에는 옥취정(玉翠亭)이 있고 앞에는 연못이 있는데 동로와 마찬가지로 연못 위에 징서정(澄瑞亭)이라는 정자를 세웠다. 정자의 남쪽에는 천추정(千秋亭)이 있는데 동로의 만춘정과 같은 해에 개건되었다. 천추정의 서남쪽에는 동향을 한 양성재(養性齋)가 있는데 남북으로 3칸씩 서로 연결된 누각이다. 그 앞의 석산에는 화목이 심어져 있고 양성재의 남쪽은 경원서문(瓊苑西門)이다.

흠안전의 뒷편에는 승광문(承光門)이 있고 좌측에 연화문(延和門), 우측에 집복문(集福門)이 동서로 향해 있으며 승광문의 북쪽은 순정문(順貞門)으로 이 문을 지나 북쪽으로 나가면 자금성의 북문인 신무문(神武門)을 마주 대하게 된다.

7.2 자금성 어화원의 주요 건축

(1) 순정문 일괄

어화원의 가장 북쪽의 끝에 있는 순정문(順貞門)의 남쪽은 3면이 모두 패루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작은



승광문, 연화문, 집복문의 일면

승정으로 꾸며져 있다. 어화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3개의 패루문은 보호벽이면서 안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정문은 승광문(承光門)이라 하고 동문은 연화문(延和門), 서문은 집복문(集福門)이라고 각기 부른다.

(2) 흠안전 일괄

명대 영락 15년(1417년)에 세워지고 청대에 수리가 된 흠안전(欽安殿)은 원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대의 풍격을 유지하고 있다. 흠안전의 앞에는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정(方亭)이 있는데 석조계단의 난간은 모두 명대의 유물이다. 흠안전의 남쪽 정 중앙에는 천일문(天一門)이 세워



천일문의 정경

져 입구의 역할을 한다. 흠안전은 자금성 내의 중요한 도관건축으로 어화원의 전체구도로 볼 때 다른 건물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삼아 좌우 대칭적 구도로 전개된다. 흠안전의 좌우에는 부벽정과 징서정이 있으며 그 앞쪽의 동서에는 만춘정과 부벽정이 서로 마주보고 세워져 있다. 흠안전을 중심으로 한 이 부근의 지역에는 10여동의 건축물이 좌우대칭으로 분산되어 하나의 정제된 패턴을 형성하고 중축선 상의 궁전건축이 가지고 있는 배치특성을 구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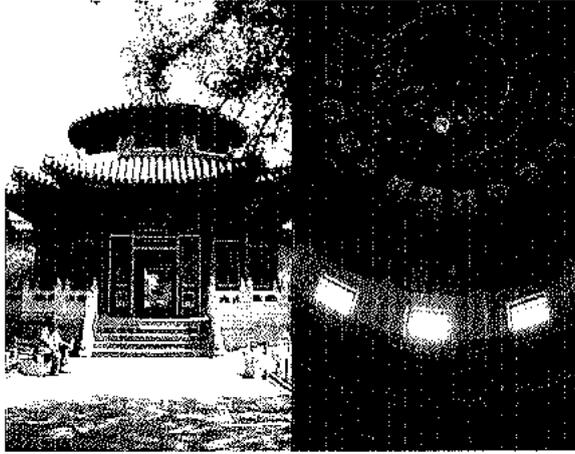
(3) 부벽정과 징서정

부벽정(동쪽)과 징서정(서쪽)은 흠안전의 좌우에 있는 방형의 정자로서 규모와 평면의 형식이 동일하다. 둘 다 동서로 긴 장방형의 연못 위에 석조아치를 만들어 기단으로 삼았으며 외부에 난간을 둘러 사람들이 여기에 기대어 연못 속의 물고기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의 전면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을 한 포화(抱厦)¹⁰⁾가 설치되어 입구의 성격을 명확히 해 준다.

(4) 만춘정과 부벽정

흠안전 앞쪽의 동서에 위치하며 서로 마주보

10) 포하는 경실 또는 딸린 실이라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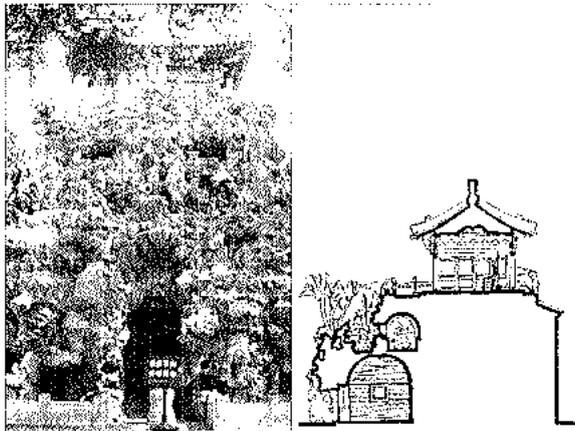


민촌성의 전경과 내부 조경축화

고 있다. 평면은 방형의 십자형으로 점차 축소되어 들어가는 형태를 취한다. 지붕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황색유리와를 올렸다. 하층의 지붕은 평면과 서로 호응하여 십자형의 모양이지만 상층의 지붕은 원형으로 고대의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을 상징한다. 지붕의 꼭대기에는 화려한 보정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정자의 내부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원형의 조정천화(藻井天花)가 있다. 정자의 기단은 한백옥석을 사용하였고 난간에서는 정교한 장식문양이 조각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규모는 크지 않으나 조형성이 뛰어나고 황가건축의 정중함과 원림건축의 활달함을 겸비하고 한 건물이다.

(5) 어경정

어경정은 세심한 고려를 하여 배치한 건축물로 높이 조성한 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 기단은 다른 건물과 달리 인위적으로 돌을 쌓은 뒤 그 위에 건축되었다. 기단은 마치 자연계의 산봉우리가 한데 모여 배어난 경관을 이루는 모습이다. 산 밑에는 문이 있고 문 안에는 동굴이 있는데 돌계단을 따라 돌아서 올라가면 곧바로 어경정에 도달한다. 이곳은 어화원에서 가장 높은 경관점으로 매년 8월 중추절과 9월 중앙절이 되면 황제와 황후가 이곳에 올라와 하늘에 떠있는 달을 감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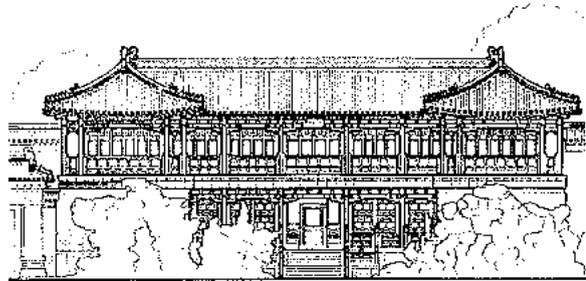


퇴수산과 그 위에 세워진 어경정의 전경 및 단면도

였다. 어경정에서는 멀리 자금성 밖의 풍광을 조망해 볼 수 있으며 가까이는 원림 전체와 궁성 내부의 경색(景色)을 조감해 볼 수 있다.

(6) 강설헌과 양성재

어화원 남쪽의 동서쪽 모서리에 각기 위치한 강설헌(서쪽)과 양성재(동쪽)는 평면의 면적은 거의 같지만 강설헌은凸한 형태이고 양성재는凹한 형태로 각각 다른 평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건물의 높낮이도 달라 강설헌은 단층이며 정면으로 포하를 내밀었고 양성재는 2층의 누당인데 남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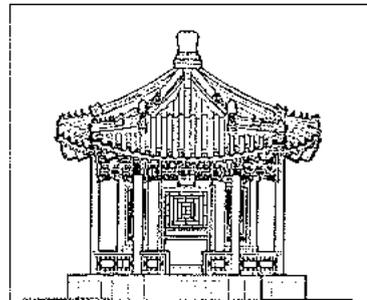
양성재의 입면도

양날개를 펼친 것 처럼 튀어 나왔다. 이 일현일재(一軒一齋)의 건축물은 서로 대칭적인 위치에 배치되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질적인 형상을 취하면서도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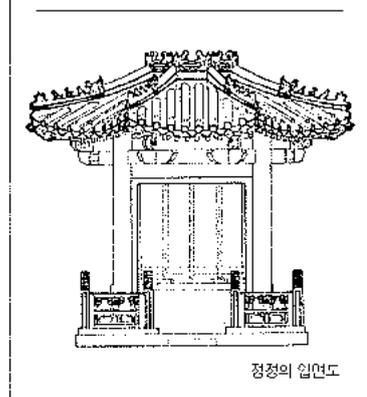
(7) 기타 건축물

인상깊은 원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화원의 설계자는 다양한 건축물과 소품을 다수 이용하여 원림의

구석구석을 돋보이도록 하였다. 앞서 언급한 누·대·정·사·헌 이외에 사신사(四神輔), 정정(井亭), 평대(平臺), 퇴석(堆石)이 바로 그것들인데 배치가 매우 합리적이다. 사신사는 팔각형의 정자로 그 앞쪽에 방형의 작은 현이 붙어 있다. 정정은 육각형의 평면에 녹정형식의 지붕을 올린 작은 정자로서 주위에 한백옥석을 이용하여 만든



사신사의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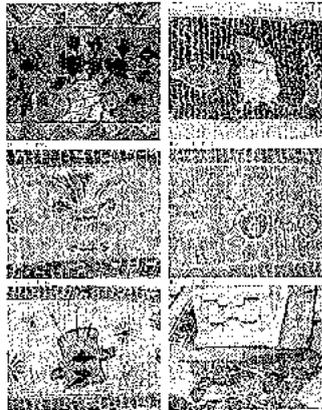
정정의 입면도

낮은 난간이 감싸고 있어 조형성이 뛰어나다. 높고 낮은 평대 위에는 돌로 만든 의자와 탁자가 배치되어 있고 주변에 돌을 쌓아 감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어화원의 서쪽부분은 돌을 쌓아 만든 가산이 집중된 구역으로 어떤 것은 지나가는 길 사이에 놓여 있고 어떤 것은 누대의 옆에 몰려 있기도 한데 이러한 것들은 어화원의 정취를 한층 더해 준다.

7.3 자금성 어화원의 기타 경관 요소

어화원의 길은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설계로서 특히, 남쪽 면의 입구에 있는 동서방향의 옹도(甬道)¹¹⁾에는 중앙에 방형의 전돌을 깔고 그 양쪽에 형형색색의 돌을 이용하여 짜맞춘 다양한 형식의 도안이 있다. 도안의 주제는 경치, 인물, 화훼, 동물 등 매우 다양한데 원림 전체로 볼 때 대략 모두 900여개 정도가 된다. 뿐만 아니라 원림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하여 각양각색의 석물분경을 설치하였다. 이곳에는 전

국 각지에서 수집된 기이한 형태의 돌을 정교하게 제작된 받침대 위에 올려 놓았는데 어떤 것은 형태의 빼어남을 취하고 어떤 것은 돌이 가지고 있는 질감의 특이함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자갈이 박힌 사암 위에 마치 노인이 긴 소매의 옷을 늘어뜨린 채 두 손을



길의 바닥에 장식된 다양한 형식의 도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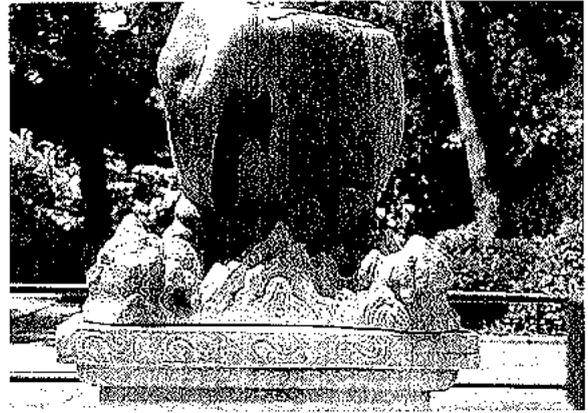
맞잡고 하늘의 북두칠성을 향해 읊하는 모습을 한 것 같은 모양의 석물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형상을 제갈공명(諸葛孔明)이 북두칠성에 배례를 올리는 것으로 연결지었다.

그리고 원림의 주요한 경관 요소 가운데 하나인 식물을 살펴보면 어화원은 식재에도 독특한 면이 있다. 이곳에는 송백나무와 같은 상록수를 위주로 심었으며 낙엽수와 사계절에 따라 꽃을 피우는 화훼류를 그 사이에 적절히 배치하여 강렬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원인은 북

경의 겨울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항상 푸른 경색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백나무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송백은 황가건축의 엄숙한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수종이기도 하다. 입춘이 지나면 화훼류가 정원에 배치되는데 땅에



전국에서 수집된 진귀한 석물의 하나



제갈공명배복두라고 이름 붙여진 석물

심은 모란, 월계 뿐만 아니라 분경에 담겨진 석류, 물푸레나무가 원림의 분위기를 더욱 생기발랄하게 한다.

그밖에 승광문의 남쪽면 좌우에는 청동으로 만들어 금박을 입힌 코끼리 한 쌍이 흠안전 뒷편 처마의 벽체와 한백옥석(漢白玉石)으로 만든 기단의 난간을 바라보고 있다. 이 코끼리 조각은 아주 정교하게 조각된 수미좌의 기단 위에 올려져 있다. 그리고 천일문 앞에는 청동에 도금을 한 기린과 감상옹의 운석대좌가 건물의 위엄있게 만든다.



천일문 앞에 놓여진 도금한 기린상

이상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어화원은 궁성

안에 있는 관계로 다른 황가원림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지 않으나 당대 장인들의 뛰어난 기교가 마음껏 발휘되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진귀한 소품들로 이루어진 중국 고전원림예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오늘날의 어화원은 상당 부분이 퇴색되고 소실된 관계로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당시의 상황을 추적해 보는데는 무리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건륭황제 당시 유럽과의 문화교류를 통해서 수입된 분수의 존재로서 원명삼원의 서양루 지역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건륭황제의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만들어진 이조당 건물을 통하여 원림이 단순히 황제들의 향락과 오락 생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인 수양과 지적활동의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㉔

11) 옹도는 대규모 원림이나 농묘의 주요한 건축물로 통하는 길인데 대부분 벽돌이 깔려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현황과 전망

Present Conditions and Observations of District Plan¹⁾

최찬환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교수

by Choi Chan-Hwan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종전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던 상세계획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로 개편하였다. 새롭게 나온 것이지만 제도 자체는 완전히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닌 종전의 두가지 제도를 통합한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구적 차원의 능동적이고 상세한 계획제도의 도입이다. 그러나 현재 이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에 있어서는 여러 집단의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3회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의 현황과 전망, 계획차원에서 그리고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것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필자주)

1. 지구단위계획의 현황과 전망
2. 계획적 도시정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
3.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합·발전·승계한 것으로 개별 필지 단위의 개별 규제와 도시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안에서 특정한 대상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 여러 도시 구성요소에 대하여 상호관계성과 집합성에 관하여 체계적 그리고 총괄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도시내의 일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토지이용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정비계획 및 관련 계획 등의 취지를 살려 토지의 이용을 구체적이며 합리적으로 하려는 것이다.

1)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정확한 법적 명문장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학계나 여러 분야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명문을 District Unit Plan 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큰 개념의 Urban Design이라고 믿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구단위에 대한 것을 District Plan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구분	상 세 계 획	도 시 설 계	지 구 단 위 계 획
근 거	- 구도시계획법 제20조의3	건축법 제60조~제63조	도시계획법 제42조~제45조
구 역 지 정 대 상 지 역	- 산업단지 - 택지개발예정지구 - 재개발구역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시가지조성사업시행지구 -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 지역	- 산업단지, 농공단지 - 택지개발예정지구 - 재개발구역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 대지조성사업지구 - 주거환경개선지구 -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 - 관광특구 등	- 도시계획상 지구 -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 대지조성사업지구 - 택지개발예정지구 - 주거환경개선지구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관광특구 - GB·시가지조정구역·녹지지역·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 새로 도시계획구역 편입지역 중 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
계 획 내 용	- 지역·지구의 지정·변경 - 도시계획시설 배치·규모 - 街區·劃地의 규모·조성 계획 - 건축물 용도, 간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최저한도 - 건축물 배치·형태·색채 - 대지안의 공지·건축선 - 도시경관조성계획 - 교통처리계획	- 토지이용계획 - 도로·상수도·하수도등설치계획, 에너지공급등 계획 - 기존건축물 처리·대지 정리계획 - 건축물 위치, 규모, 용도, 형태, 색채 - 구역·주변지역 조경계획 - 구역·주변지역 교통처리계획	- 지역·지구 세분 - 대통령령 규정 도시계획시설의 배치·규모 - 가구·획지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용도·간폐율·용적률·높이최고·최저한도 - 건축물배치·형태·색채의 건축선 -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등
입 안	- 시장·군수	- 국가·지자체·주공·토공 등	- 시장·군수(주민 제안)
결 정	- 건교부장관(시·도 위임)	- 건교부장관(시·도 위임)	- 시·도지사
심 의	- 도시계획위원회	- 구역: 도시계획위원회 - 설계: 건축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수 립 시 한	- 구역지정 후 2년 이내 (미수립시 효력규정 없음)	- 구역지정 후 1년 이내 (미수립시 효력규정 없음)	- 구역지정 후 1년 이내 (미수립시 구역 실효)
도 입	- 1991년	- 1980년	- 2000년
현 황	- 전국 327개 구역 194km ²	- 전국 126개 구역 78km ²	도시설계구역+상세계획구역+α

자료: 건설교통부(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도시는 여러 자연요소와 인공구조물로 채워진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면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많은 공간적·시간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금까지 필지를 단위로 한 건축행위(협의의 의미, MICRO - 미시적, 현미경적)와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의 광역적 공간 계획(광의의 의미, MACRO - 거시적, 망원경적)인 도시계획의 중간적(Mezo)·가교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

고 있다.

지금까지의 일반도시계획이 보편적, 획일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평면적인 계획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필지, 가구, 획지(劃地)별 차등을 두어 간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구단위계획은 특정지역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도시계획이며, 건축법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건축규제를 지역의 특수사항을 감안한 보다 상세한 건축규제를 부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 기존의 법규정에서 제외되거나 완화시키는 초월적이거나 이에 대응하는 법규정

이 아니고 기존의 법규정을 준수하면서 별도로 부가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주체에게는 결코 환영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특정지역의 보다 구체적인 도시계획 그리고 상세한 건축규제를 하는 것이라면 관련법에서 융통성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자.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

건축은 인간의 활동을 수용하는 구조물이며 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도시는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거듭한다. 이러한 지속적 성장 및 변화는 도시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설계 및 대지의 건축물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개인의 건축행위나 개발행위에 대한 공공의 간섭과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개개인의 개별적 행위 자체를 도시적인 측면에서 공공성을 갖출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법이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법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다.

현행 도시계획제도와 그 시행에 있어서 도시의 발전적인 측면과 도시운영관리의 측면이 서로 연계성이 미비하고 계획체계에 있어서 각 단계에 있어서의 피드백이 미비하다. 특히 관련된 법에 따라 별도의 법으로 시행되어지는 각종 개발사업끼리도 서로간의 관련을 갖기가 어려우며, 개발사업이 시행된 후 전체적인 것이 아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건축행위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유도,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물론 지금까지 이러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개발지역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제대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건축물은 하나의 필지에서 실마리를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며 건물과 주변환경과의 관계, 건물과 건물의 집합관계, 형태·기능 상호간, 내·외부공간의 연계성, 부분과 전체, 여러 전문분야와의 협조와 조정 등이 요구된다.

단위건물의 단순한 집합으로는 좋은 도시가 될 수 없음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필지 중심의 건축규제로 인해 자연발생적 개발 건축을 해온 결과 앞에서 언급한 집단화에 필요한 많은 부분이 무시된 채 어울림이 부족한 도

시환경을 만들게 되었고 자기중심적 난개발, 무질서, 공공성의 결여, 경제적 사익추구의 극대화, 건축의 본질적 가치와 역할의 상실, 도시기능과 경관의 불량, 사회적 비용부담이 증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공익증진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앞서야 하고 전체가 부분에 우선해야 된다는 논리는 도시관리측면에서 지구단위의 계획과 관리를 해야하는 당위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으로 집단규제가 미흡하였으며 종합적·체계적 연계화가 매우 부족한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현황문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실천 가능성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법상 특정지역의 변화를 관리하는 관리계획의 성격이 주가 되지만, 사업계획을 무시하거나 도외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실천적 방안을 가지고 실현 가능하고 종합적이며 지속적인 여러 사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상하위법, 관련법 등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도시설계, 상세계획에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남발되고 있는 공동개발은 실현성도 적고 집행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유발하며 이로 인한 행정절차(완화심의 등)의 번거로움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소규모 필지의 통합은 건축물의 규모확대, 공지의 통합이용,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 건축물 형태구성의 개선과 도시미관 증진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러나 재산권의 공유화, 지분화 그리고 개발방법과 개발시기의 의견일치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소유권 보호를 중심으로 판결하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이용·관리 측면의 규제는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계획지구의 크기

도시설계, 상세계획 등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은 기성의 도심지역에 공간적으로 넓게 확정되어 있었다. 도심부 도시설계는 집단적으로, 주요 가로변 도시설계는 간선가로를 따라 선형으로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지정되어

있었으며 상세계획도 부도심, 역세권, 재래시장 등에 넓게 지정되었고, 용도, 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대체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지구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면 지구단위계획의 개념인 구체적인 도시계획과 상세한 건축규제가 어려울 수 있다.

단순히 용도지역제의 변경, 용적률 규제 등을 위해서 지역을 넓게 정하고 규제내용이 단순화된다면 실효성이 적어진다. 또한 단순한 용도지역변경 혜택의 인센티브만을 위해서 활용되면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남발하여 과잉 지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건축적 세부요소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범위에서 필요한 지역에 한정화하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와 건축설계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상호 연결하는 중간적 가교역할을 한다. 따라서 상·하위계획의 연계와 절충 및 조화가 필수적이다.

도시계획내용의 지역적 세분화와 보완 등은 기수립된 계획내용을 수용하고 발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면 되지만 드러나지 않거나 미수립된 건축계획이나 건축설계를 포용할 수 있는 규제와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통상 개별 건축물의 건축은 소유권이 미치는 필지나 대지를 공간적 영역으로 할 뿐 아니라 개별 건축물이 최대의 이익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와는 상충되기 쉽고 상당한 마찰이 일어난다.

여러 건물을 대상으로 다루는 지구단위계획의 규제가 하나의 건축물을 상세하게 계획하는 건축설계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건축설계 후 지구단위계획을 조정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이 상위계획이고 그 내용이 건축설계의 전제조건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면 그렇지 못 할 경우의 특수적 예외규정에 대한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 규제는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해야하므로 개별건축행위에서 인내성과 양보, 남을 위한 기여 등을 강요할 수 있으나 계획 자체의 합리성, 형평성, 효율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상·하위계획 상호간 그리고 연관분야와 끊임없이 조정·환류(Feed-Back)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의 규제가 개별 건축물의 창작활동을 크

게 간섭하거나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도시관리 수단으로 유용해야한다는 점이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지정, 높이제한 등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거나 주변지역과의 관계로 보아 일률적 통일성을 가져야 할 사항은 지침이나 기준으로 하되, 배치·형태·색채·진입 등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이 중요시되어야 할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좋고 꼭 규제가 필요한 경우 상호 변경·조정 의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절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시행자에게는 상당한 불편과 사업지연이 따를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사전에 수립되고 규제내용을 미리 건축설계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 인·허가 과정에서 별도의 지체기간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도록 한 경우에는 절차차정, 기간 등이 사업시행주체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과가 불확실한 규제는 사업기획시 추진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으므로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내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계획수립에서 확정시행까지는 여러 부서를 경유하여 심의, 의결, 등의, 자문 등을 거쳐야 하므로 민원이 빈발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자치구에서 수립하고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구의회를 거쳐 광역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의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의회의 심의 등을 거치는 등 절차가 복잡한 것은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문제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계획을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민간규제는 융통성을 가진 지침적 유도방안이 되고 개별사업시행에 앞서 사전에 준비될 필요가 있다. 민간사업 시행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르도록 한 경우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주민참여 활성화 및 사업성 부여

지구단위계획은 공익성이 우선해야 되므로 계획수립의 주체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고 전문성을 가진 여러 분야의 참여와 인정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의견은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을 직접적

으로 이해를 가진 주민이나 사업자가 개인이익 추구를 위한 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 측면이 중요시되겠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확보 그리고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실현 가능한 실천계획이 될 수 있다.

관련법에 대한 검토

기존 도시설계, 상세계획의 법적 규정을 승계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건축 관련법규가 95개여 종이 되므로 이에 대한 법규의 종합검토와 함께 상호 연계성을 강구하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특례규정을 포괄적으로 들으로써 관련법규에 의해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전망

기존의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통합 승계

·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규정된 도시설계의 이원화된 유사 제도를 보완 발전적으로 통합하였다.

·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지구제를 근간으로 하는 도시관리방안에 한계성을 인식하고 지구단위의 구체적·종합적 계획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 규제에 부가하여 집단 규제를 함.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지위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 절차로 수립되고 시행되는 특별한 도시계획이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르되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제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은 특정지역을 선별 지정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를 함으로써 계획적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지정

· 지구단위계획은 Up Zoning과 Down Zoning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인센티브로 Up Zoning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용도지역 변경시 무질서한 난

개발을 최소화 하려는 취지로 본다.

· 지구단위로 개발·보전·정비할 특수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규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종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에 규정된 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표 참조)

건축제한에 관하여

· 기존 용도지역의 규제를 안에서 다소의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계획규제는 수용하면서 일부 조례로 위임된 건축적 규제사항에 대해서 다소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 기존 규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구역은 문제가 있겠으나 인센티브제의 적극 활용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 법규정이 최소한 지켜야 할 강제적 사항이라면 바람직한 계획적 기준으로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공공성은 확보하면서 규제와 계획을 연관시키는 일종의 햇볕정책이 필요하다.

· 그러나 건축의 창작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전문성 있는 디자인에 대한 간섭이나 규제는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협회소식 / 111

건축계소식 / 114

전시리뷰 / 120

회원현황 / 122

협회소식 KIRA news

신·구회장 이취임식

24대 신입회장에 우남용회장



이·취임식 광경



협회기 이상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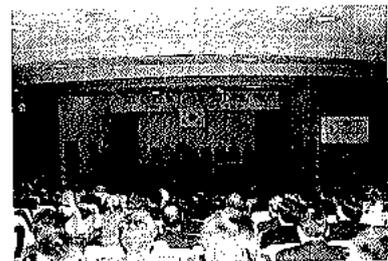
지난 3월 5일 오전 11시 우리협회 중회의실에서 신 구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역대회장을 비롯해서 황일인 한국건축가협회회장장과 이광노 서울대 명예교수가 제24대 회장에 취임하는 우남용회장을 축하해 주기위해 자리를 같이 했다. 취임에 앞서 이의구 전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큰 과오없이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하고, 비록 회장직은 떠나지만 계속해서 협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며, 또한 임직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의 끊임 없는 건투를 당부했다. 이어 있는 제24대 우남용 신입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작금의 어려운 건축계의 현실속에

서도 회원여러분의 힘찬 정진을 기원하며,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하고, 이를 위해 회원여러분의 협조와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35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23일(금) 협회 대강당에서

우리협회 제35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3일(금) 오전 10시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재적대의원 399명중 358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이의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건축사의 위상과 권익은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오늘 총회를 통해 현안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새로 선출할 새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자리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어 강길부 건설교통부 차관이 대독한 건설교통부 장관 치사가 있었으며, 정재철 대한건축학회회장, 황일인 한국건축가협회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2001년도 우리협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4인에 대한 장학금 수여와 우리협회 지재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 및 직원에 대한 감사패와 표창패를 수여했다. 본회의에 들어가 전회회의록 승인, 추대회원 추대보고, 주요업무 보고, 감사보고를 마치고 미리 준비된 7개 부



총회 광경



제24대 회장으로 선출된 우남용 회장



장학금 전달 모습

의안건을 원안대로 일괄 상정하고, 곧바로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입회원 입회비를 현행 4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하하고, 본협회 월정회비를 현행 2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낮추는 등 협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의구회장과 이사 0인, 감사 1인에 대한 임원개선에서는 회장후보로 이문우회원과 우남용회원 2명이 출마하여 경합을 벌인 결과 총투표자수 333명 중 우남용후보가 178표, 이문우후보가 155표를 얻어 유효투표자 과반수 이상을 얻은 우남용후보가 제24대 우리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감사는 서울건축사회 김진성회원이 추대되어 만장일치로 감사로 선출하고, 이사 9인은 신입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여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기타 사항을 거쳐 모든 회의를 마쳤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안: 윤리위원회규정중 개정 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3호의안: 2000년도 회계별 수지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4호의안: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5호의안: 전국공통운영회비제도 폐지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단, 2001년 1월 1일 이후 수납분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하여 반환키로 함.
- 제6호의안: 회관 재건립 추진방안 승인의 건
- (가칭)회관처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관의 보수보강, 이전, 재건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차기 총회에서 논의키로 함.
- 제7호의안: 임원개선
- 회장(1인): 우남용회원, 이사(9인): 신입회장에 위임, 감사(1인): 김진성회원



禹南龍 신입회장

■약력

- 1939년 12월생
-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주)건기시간건축연구소
- 씨그네틱코리아(주) 건축고문
- 코리아라이프 건설논설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 공업진흥청 ISO심사위원
- 가나건축사사무소 대표

■협회경력

- 서울건축사회 간사(4년)
- 서울건축사복지회 운영위원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4년)
- 제18대 서울건축사회 회장
- 국제회의, 심의위원 등 다수

■수상

- 82년 서울시건축상 은상(효성빌라)
- 85년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작품상
- 85년 서울시건축상 은상(강남원빌라)
- 86년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작품상

□신임임원

- 김성탁 /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 김현용 / 홍성건축사사무소
- 박영식 / (주)백텔종합건축사사무소
- 박형규 / 마산건축사사무소
- 송수구 / 건축사사무소 한승
- 엄태우 / (주)빈선건축사사무소
- 윤익상 / 윤건축사사무소
- 정희승 / 국동건축사사무소
- 조민행 / 오현삼.구성종합건축사사무소

□신임감사

- 김진성 / 삼광건축사사무소

이사회

2001년도 제2.3회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지난 2월 2일(제2회)과 2월 9일(제3회)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부의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협의안건>

- 제1호 : 정관 개정(안)에 대한 협의
- 차기 이사회에서 재협의하기로 함.

■ 제3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일부 수정하여 총회에 상정기로 함.
- 제2호의안 : 윤리위원회 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별표1의 회원징계결정기준 개정(안)중 일부 수정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3회이상 건책 2년이내 3회이상 경고, 업무정지건의 권리정지 12월이상 또는 제명)
- 제3호의안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또는 폐지 승인의 건
- 상정(안)중 제2조와 제8조에 대해서만 원안대로 개정기로 함.
- 제4호의안 : 2000년도 회계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감사에게 위임기로 함.
- 제5호의안 : 전국공통운영회비제도 개선(안) 승인의 건
- 전국공통운영회비제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총회에 상정기로 함.
- 제6호의안 : 회관 재건축 계획(안) 승인의 건
- 안건의 명칭을 회관 재건립 추진방안으로 수정하여 총회에 상정기로 함.
- 제7호의안 :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 추대회원 대상자 중 월정회비 미납자에 대하여는 회비를 완납하는 시점부터 추대기로 함.
- 제8호의안 : 제35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FKA 현판식

우리협회 3층에 사무국 마련



현판식 광경(이외구/전대한건축사협회장, 정재철/대한건축학회 회장, 황일인/한국건축가협회장)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건축계를 대표하게 될 FKA(한국건축단체연합/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가 지난 2월 23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로써 우리 건축계에도 건축분야의 국제기구 활동 및 협상에 있어 공동대응할 수 있는 단일창구가 마련됐다. 우리협회(서울 서초동 소재) 3층에 마련된 FKA는 우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건축3단체 실무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조직을 갖추고 있어 향후 건축사자격기준 및 교육인증에 관한 협상과 UIA등 각종 국제기구 활동에 있어 폭넓은 활약이 기대된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우리협회 이외구 전임회장과 황일인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정재철 대한건축학회 회장 등 건축 3단체 대표와 건축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 FKA 실무위원 :

- 김지덕(유신건축), 김영섭(건축문화), 이관영(한인건축), 이근창(엠앤디건축), 이현호(중앙대), 임창복(성균관대), 조성중(일건건축), 최관영(일건쎄앤씨건축), 최찬환(서울시립대)

2001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일자 발표

5월 13일 시행

올 해 건축사자격예비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등 객관식 선택형으로 실시되는 이번 시험은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우리 협회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원서 교부와 접수를 받는다. 시험장소는 4월 26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며, 발표는 5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공고될 예정이다. 합격예정자 제출서류는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2001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관련 안내는 우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ira.or.kr)에서 볼 수 있다.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관련 워크숍

지구단위계획 철폐 마당
서울건축사회 주장

서울시가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이 건설역제 정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2월 28일(수) 서울시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관련 워크숍에서 서울시건축사회 소속 회원들의 강력한 정책비난이 이어져 앞으로 서울시의 정책변화에 건축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가 계획중인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과 저층건물 밀집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계획관련 법령이 제 개정됨에 따라 주민제안 형식으로 공동주택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증가시킨다는 취지의 제도다. 이와 관련, 서울건축사회는 지난 2월 26일 긴급 간사회를 열고, 최근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경제위기 상황속의 건축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서울시에 항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건축사회 회원 1백여 명은 서울시가 주최한 워크숍에 참가해 「비겁한 서울시 건설정책」 「지구단위계획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어깨띠를 두르고 침묵시위를 펼치는 한편, 서울시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 시 관

결의문

지난 2000년 7월에 서울시는 용적률 강화를 통하여 건설억제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왔습니다. 이미 나홀로 초고층역제, 상업지역의 1,000% 용적률을 800%, 600%로 낮추는 바람에 상업건축역시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서울시의 80%를 차지하는 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지금은 아예 건설금지정책을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네동네마다의 건축을 죽이던 '완벽한 건설억제'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제면에서 지금이 과연 어떤 때입니까?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핑계로 강행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서울시 방침은 첫째, 지구단위계획'틀' 속에 들어오면 용적률 250%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250%로는 수확성 때문에 어떤 건설도 포기해야 할 관인데도, 이 '지구단위계획'은 절차상, 언론, 방송사의 논설, 해설위원, 판검사를 변호사, 시민단체, 의회위원, 인근주민의 심의를 받게되어 250%는커녕 200%도 찾기가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서울시장님, 구청장님, 공무원님들은 이 지구단위계획 덕분에 규제 한다는 비난도 면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비용도 목마른 주민들에게 마를 수 있지, 공익과 공공을 위한다며 도로를 내놔라, 공원을 내놔라, 학교용지를 내놔라 할 수 있지, 살기 좋은 서울시를 꾸민다는 명분 앞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비겁합니까. 서울시장이나 서울시공무원들은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서울시는 비겁합니다. 건축인들이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몸인데도 갖추지 못한 최약자라는 것을 알고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굽실굽실 따라만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볼 때, 시민단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언론사 높은 분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판검사, 변호사들 역시 대단한 분들이 아닙니까. 어떤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웃주민들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더구나 도시학을 공부한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가 매뉴얼만 나눠주면 각 구청의 로모직 공무원들이 이 복잡한 도시를 꾸밀 수 있습니까. 매뉴얼로 지역에 따라 도시관리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화를 막는 것이므로 두루뭉실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각 구청에는 도시학을 열심히 한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있다해도 그 매뉴얼의 취지에 모든 심의위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동조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건축관련법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언제 건축관련법이 도시를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경관심, 교통영향평가, 굴토심, 구조 및 소방안전심, 어느 심의가 도시를 무시했겠습니까.

건설산업을 살리려면, 그리고 국가경제를 살리려면 첫째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십시오. 둘째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제로 워킹하지 마시고,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수립할 때까지 건축규제를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나타난 이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건축관련법에 나온 각종 항목을 심의위원이나 주민들에게 물어본다는 것 외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셋째 시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시기가 안 좋은 정책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실패합니다.

우리 건축인들은 국가경제의 진정한 기둥은 건설산업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이런 위급한 국가경제는 관심도 없이 '탈 없이 보내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가진 비겁한 서울시를 규탄합니다. 비겁한 서울시장을 규탄합니다. 슬직히 주민제안이 없다면 어느 구청장이 주거지역의 세분화를 통하여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선거가 내년 6월인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겁한 서울시의 10대 건설정책을 엄선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폭로함과 동시에 앞으로 건설관련단체들, 경제단체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이 결의문을 건의서로 제출합니다.

2001. 2. 28.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원 일동

제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결의문에서 회원들은 가뜰이나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용적률 강화 정책으로 인해 서울의 건축이 다 죽어가디시피 하는 미당에 서울시가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까지 실시함으로써 서울의 80%를 차지하는 주거지역에 대해 아예 건설금지정책을 펼쳐려 하고 있다고 현실을 무시한 서울시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서울건축사회는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워크숍 행사장에서 펼친 침묵시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건설관련단체, 경제단체들과의 지속적 연계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워크숍 주요내용〉

- ▷구역설정기준: 대상지 경계로부터 200미터를 연결한 내부구역
- ▷도로조성기준: 도로폐지시 기존 도로의 폭원보다 계획구역과 접한 도로의 폭원이 좁을 경우 도로폐지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공원녹지확보기준: 공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린이 공원 설치면적(최소 1,500제곱미터 이상)면적이 확보되도록 한다.
- ▷공동개발계획기준
 - 개발허용: 검토구역내 평균가구규모 1.5배 이내인 경우
 - 제한적허용: 검토구역내 평균가구규모 1.5배에서 3배까지인 경우
 - 원칙적불허: 검토구역내 평균가구규모 3배 이상인 경우
- ▷도시경관계획기준
 - 원경과 중경 경관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구역전체를 개략적인 매스모델 또는 합성사진으로 제출한다.
 - 예시1: 인접대지경계 5층(15미터) = 3.7미터 이격
10층(28미터) = 7미터 이격
 - 예시2: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

사선제한완화규정 차등화로 폭이 좁은 도로변의 지나친 고층화 방지
▷향후 추진계획: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7월경부터 시행예정

건축사시험 응시요건 강화

정부, 건축사법개정법률안 의결

정부는 지난 2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건축사법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요건을 전문대학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하고, 건축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인정하던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건축사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전문대학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제한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등학교에서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나 학력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력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개정안은 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취득한 자는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일정 경력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건축사

예비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산정일을 예비시험 합격일에서 응시자격취득일로 변경하는 등 경력요건을 완화해 예비시험 합격이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시·도지사가 수행하던 건축사업무신고의 접수 및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국민대 건축대학 출범

국내최초, 초대학장에 서상우교수



서상우 학장

국민대학교 건축학과가 올해부터 국내 최초로 건축대학으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대비하기 위해 국민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인증된 교육프로그램 기준에 의한 5년제 정규교육을 수행하게 됐다. 국민대 건축학과는 1974년 공학부에서 교육을 시작하여 조형대학 편제에서 26년의 역사를 이루어 왔으나, 국제적 추세로 건축대학 5년제를 운영하게 돼 교육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앞으로 타 대학의 시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학장은 서상우교수가 선출됐다.

2001 스틸하우스 설계 및 시공기술교육

철강협회 스틸하우스클럽 주관

한국철강협회 스틸하우스클럽에서는 스틸하우스 공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전수 습 드로잉(Shop Drawing) 및 접합상세를 고려한 구조설계 기술습득 작성기법 등 스틸하우스 설계 및 시공 기술의 관리자 교육을 건축사와 시공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RIST강구조연구소(기홍소재)에서 일반과정(3일)과 전문과정(2일)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일반과정은 건축사와 시공기술사를 대상으로 스틸하우스일반, 구조설계, 주거성능, 시공기술 등을 교육하며, 전문과정은 일반과정이 수자와 스틸하우스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구조설계 요령집을 이용한 구조설계 실습 위주로 교육한다.

문의: 전화 02-559-3585,

팩스 02-559-3588,

홈페이지 www.steelhouse.or.kr

▷교육일정(분기별 1회 실시)

-일반과정(3일)

1/4분기: 3월 19일~3월 21일

3/4분기: 9월 17일~9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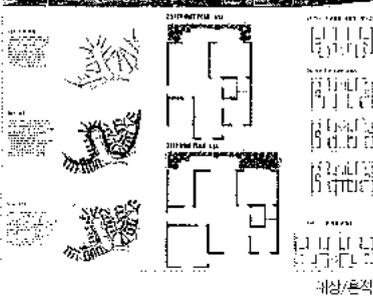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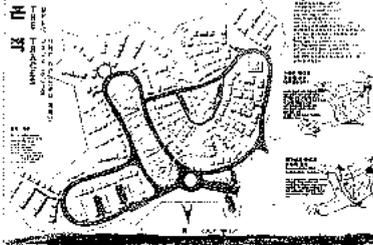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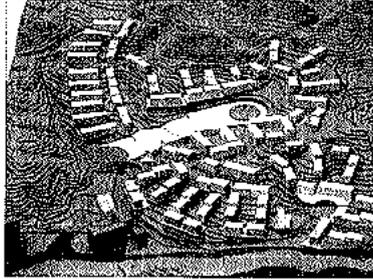
-전문과정(2일)

2/4분기: 6월 21일~6월 22일

4/4분기: 11월 22일~11월 23일

제2회 대학생공동주택 설계공모전

대상에 흔적(김철희,이봉현,이준화/홍익대학교학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제2회 대학생공동주택 공모전 심사결과가 지난 2월 8일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김철희·이봉현·이준화(홍익대학교학원)가 공동 출품한 「흔적(The Trace)」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이효석·김보미(창원대)의 「The horns of a dilemma」와 정진우·곽서연·장대정(중앙대)의 「달과 6펜스」가 각각 선정됐다. 또 장려상 3점과 입선작 5점을 포함 총 11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학생공동주택 설계공모전은 새천년의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패기있는 젊은이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된 친환경적이며, 커

뮤니티공간이 확보된 미래형 주거단지 계획과 향후 확산될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주택문화발전의 기여한다는 목적아래 진행됐다. 총 119작품이 접수된 이번 행사의 심사는 김성홍(서울시립대), 조대회(경희대), 박영기(연세대), 신용재(부경대), 손세관(중앙대), 유난형(꾸메건축), 최두호(토문건축), 이기범(도시건축), 최광수(범한건축), 심관중(무영건축), 배경동(서울시), 오준엽(도개공)씨가 맡았다. 심사총평에 따르면 주어진 대지조건이 까다로워 참가자들이 대지의 해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았으며, 당선작들에서도 보행공간의 체계가 미흡하게 나타난 점을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원도시건축, 2001년 공개세미나

4월 12일부터



올 해로 3회째를 맞는 원도시건축 공개세미나의 2001년 일정이 발표됐다. 올해 주제는 커뮤니티(Community)로 사회학, 인류학, 철학, 건축학 등 각 학문의 장르별로 관계석학들과 함께 커뮤니티의 개념이 현재 어떠한 구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고 작동하는 지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4월 12일부터 시작하며, 매회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원도시건

축 지하1층 홀에서 개최된다. 문의: 02-543-4977

▷세미나일정

- 4월 12일: 김광현(서울대)/건축학
- 5월 3일: 송도영(서울시립대)/인류학
- 6월 7일: 이봉재(서울산업대)/철학
- 7월 5일: 종합(김광현, 송도영, 이봉재, 이상해, 박민수)
- 9월 6일: 승효상(이로재)/건축학
- 10월 4일: 조명래(단국대)/도시사회학
- 11월 1일: 이진경(서울시립대)/철학
- 12월 6일: 종합(승효상, 조명래, 이진경, 이상해, 박민수)

제4회 크리악어워드 발표

이일훈작 '기차길옆 공부방' 선정

제4회 크리악어워드 수상작으로 '기차길옆 공부방' (이일훈/후리건축연구소)이 선정됐다. 총 50인의 심사인단 투표 가운데서 28%를 확보한 '기차길옆 공부방'은 '지역적 맥락을 존중한 점이 돋보였다.', '신축건물임에도 기존의 주변건물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조화롭다.', '열악한 주변환경속에서 소박하지만 강하게 꽃피운 건축언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꼬여드는 공간을 제공한 점이 좋았다.', '삶을 담은 건축, 건축이 사회로 한 발짝 더 다가간 느낌을 준다.', '건축가가 폄잡지 않고, 현실 여건에 맞춰 구현시킨 점이 돋보인다.' 등의 이유로 선정됐다. 이번 상은 월간 건축인 포아 2000년 3월호부터 12월까지 '크리악 선'에 소개된 10작품을 후보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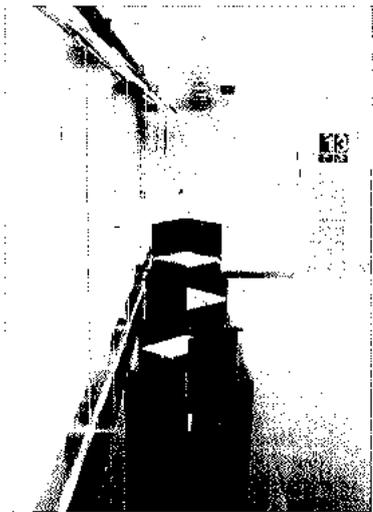
제4회 크리악어워드 수상작 / 기차길옆 공부방

으로 하여 진행됐다. 2위 득표작은 '멀티박스하우스' (정일교/초석건축사사무소)가 3위득표작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서혜림/힘마건축사사무소)가 차지했다. 추천 비평가는 함성호, 전진삼, 임석재, 이주연, 이종건, 이공희, 박민철, 김종현, 김정후(이상 9인, 포아비평가포럼)씨 등이었으며, 수상자에게는 트로피(미술작가 안필연 교수에 의해 매년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 수여됨) 및 상장, 상금(당해년도 12월 기준 poar 정기구독자 구독료 총액의 1%에 해당되는 상금 지급)을 받는다. 시상은 3월 17일 포아 회의실에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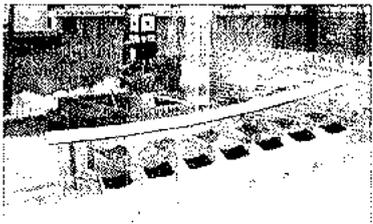
후보작은 임거담(김효만/이로재 김효만 건축연구소), 신도리코 본사 및 서울공장(민현식/기요현 건축), 부산 광복기념관(정연근/토원건축), 한빛고등학교(조건영/기산건축), 기차길옆 공부방(이일훈/설계집단 후리), 효성원(김동원/스튜디오 ZT), 목감성당(김태우/아리건축), 서울시청 직장 어린이집(서혜림/힘마건축), 안성 풀하우스(김낙중/건국대 건축대학원), 멀티박스 하우스(정일교/초석건축) 등이었다.

제2회 포아가구디자인 공모전

월간 건축인 포아 주최



'Two Faces of Space', 이기정



'관계·흐름·그리고 비움', 김필익

월간 건축인 poar(발행인 김철환)와 (주)유오스(대표 최원영)가 공동 주최하고 건축발전연구소(소장 전진삼)가 주관하는 제 2회 포아 가구디자인공모전의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공간사육(김수근 作)내 지정 장소에 놓여질 가구'를 주제로 이번 2회부터는 특정한 장소를 전제로 그 공간에 놓여질 가구디자인을 공모하여 그 첫 대상자로 20세기 한국현대건축의 최고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김수근의 원서동 공간사육 카운터층의 세 곳을 선정했으며, 응모자는 세 곳 가운데 한 곳을 임의 선정하여 디자인 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입상작은 'TWO FACE OF SPACE - 이기정(인그림 건축설계사무소)와 '관계·흐름·그

리고 비움 - 김일역(주. 우대기술단)
2작품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의 본
심사는 오섬훈·서해천(공간연구소
소장)씨가 맡았으며, 기술심사는 최원
영(UOS 대표)씨와 전진삼(건축발전
연구소 소장)씨가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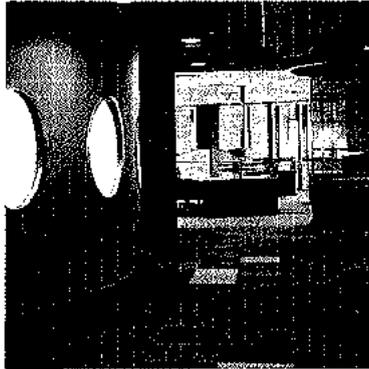
제9회 포아건축문학상 발표

월간 건축인 포아 주최

〈포아건축문학상〉의 아홉 번째 수상자
가 결정됐다. 매년 봄, 가을에 걸쳐 연
2회 시행해오고 있는 〈포아건축문학상
〉은 그간 건축인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
입어 그 참여와 내용면에서 꾸준히 성
장해오고 있다. 수상자는 '유년(幼年)
의 골목에서 시작하세요'를 출품한 김
립(홍익대 대학원 박사과정)씨가 선정
됐다. 수상작은 비교적 재미있는 글 구
성력이 돋보였으며, 주제의식이 뚜렷
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26일 작품을 마감하여 2월 15일
총 8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
다. 심사는 이두열(이두열 건축계획연
구소 소장)씨와 전진삼(건축발전연구
소 소장)씨가 맡았다.

2001아시아 '듀폰앤티론디 자인 어워드'

4개 부문 시상, 오는 8월 발표



올 해로 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를 맞
는 이 어워드 프로그램은 듀폰의 앤티
론 카페트 원사를 활용한 우수한 상업
용 건축 및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상하
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와 유사한 프로
그램은 미국, 호주 등에서도 개최되고
있다. 수상자들은 총 13,000달러에
이르는 상금을 받게 된다. 각 부문별
입상자들에게는 각각 2,000달러의 상
금이 수여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상은
4개부문에 걸쳐 선정, 시상한다. ▷서
비스업(호텔과 모텔, 헬스클럽, 레스
토랑, 카지노 등) ▷의료시설(병원과
간호시설, 콜리닉, 노인거주시설 등)
▷기업 및 사무실(은행, 법률사무소,
기업체사무실 등) ▷공공장소(공항,
교육기관, 박물관, 극장, 도서관 등) 응
모방법은 앤티론 카페트가 설치된 곳
의 컬러사진 또는 슬라이드와 함께 공
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설치장소

는 1997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 사이에 시공된 상업용 인테리어
프로젝트이다. 문의: 02-2222-5237
www.dupontantron.com

태양광발전을 적용한 환경 디자인 공모전

태양광발전과 환경디자인의
조화를 주제로

제12회 태양광발전 국제회의의 조직위
원회는 제12회 태양광발전 국제회의
의 부대행사 중 하나로 전국의 대학(2
년제포함) 관련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의 교육, 홍보
와 보급촉진을 위한 환경디자인 공모
전을 개최한다. 응모분야는 태양광발
전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및 조형물
또는 구조물의 설계이며, 오는 5월 5
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

(<http://solarpv.or.kr/pvsec-12/design>)를 통해서만 신청접수할
수 있다. 마감은 오는 5월 25일까지이
며, 작품접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발전팀(대전시 유성구 장동
71-2)으로 하면 된다. 수상작 전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주 롯데
호텔 전시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제6회 건축사진강좌

5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건축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사진강좌가 청암건축사진연구소(대표 임정의) 주관으로 2001년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1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관련 실무자들과 건축을 전공하는 이들에게 건축과 사진의 관계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디지털카메라의 이용부터 고건축, 현대건축, 모형촬영, 흑백작업까지 실제응용을 목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손수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다. 이번 강좌는 임정의선생이 직접 강의하며 함께 실습지도한다

-기간: 2001년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7시부터 8시 30분

-장소: 청암건축사진연구소

-참가자격: 건축사진에 관심있는 사람

-참가인원: 12명 선착순

-참가비: 30만원 (외환은행 024-18-29934-0, 임정의)

-문의: 이메일 imfoto@hanmail.net
이나 전화 011-706-5807

-강좌내용

- 1 강좌/ 건축을 보는 눈 (건축사진의 이해)
- 2 강좌/ 건축사진과 관련된 기자의 선택
- 3 강좌/ 빛의 이해 (자연광과 인공광)
- 4 강좌/ 건축사진의 표현과 테크닉
- 5 강좌/ 현대건축물 촬영실습
- 6 강좌/ 디지털카메라의 이용
- 7 강좌/ 고건축답사촬영(1박2일)
- 8 강좌/ 표현기법
- 9 강좌/ 모형촬영실습
- 10강좌/ 흑백현상실습

11강좌/ 흑백인화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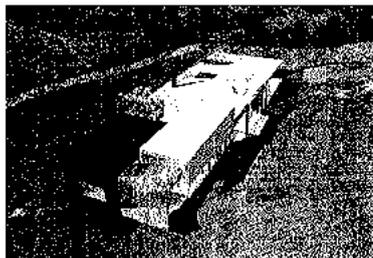
12강좌/ 포트폴리오 제작 및 총평

* 현대건축촬영과 고건축답사 장소는 추후 결정

조 슬레이드 아키텍처

미 「Architectural Record」誌 선정 10대 촉망받는 젊은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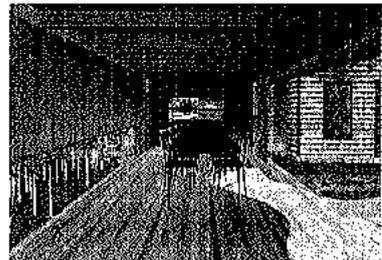
서울 출신의 조민석(연세대 건축공학과 졸업)과 미국 캘리포니아 남미(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등지에서 성장한 제임스 슬레이드(코넬대 서반어어문학과 졸업)는 1989년 미국 뉴욕시 3년과정의 콜롬비아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만나 함께 수학하고, 졸업 후 Polshek and Partners에서 함께 근무했다. 또한 조민석은 뉴욕시의 Kolatan and MacDonald Studio와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의 렘 쿨하아스(Rem Koolhaas) 사무실에서, 제임스 슬레이드(James Slade)는 뉴욕시의 Richard Gluckman, Hanrahan & Meyers 그리고 영국 런던의 Rick Mather 사무실에서 각기 미주, 유럽, 아시아 등지의 건축과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실무 경력을 쌓았다. 또한 이 기간 조민석은 일본 「신건축」誌에서 매년 주관하는 '국제주택현상설계공모전' (1994, 후미히코 마키 심사위원)에서 1등 수상을



임항주택

하기도 했다.

1998년 6월 뉴욕에서 조 슬레이드 아키텍처(Cho Slade Architecture)를 설립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은 '1999 Progressive Architecture Award'의 Citation과 Architectural League of New York에서 주관한 '2000 Young Architect Award'를 수상하였고, 최근에는 Architectural Record誌(2000. 12월호)의 'A New Vanguard' 이슈의 10개의 촉망받는 젊은 사무실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태국의 방콕, 미국의 뉴욕, 브룩클린에서 전시회를 통해서도 소개가 되었고, 최근 뉴욕시의 스위스문화원에서 Conceptual Artist 인 Renee Green이 기획한 'Platform' 시리즈에 참여했다. 제임스 슬레이드는 뉴욕의 Pratt Institute에서 방문교수로 재직중이고, 조민석은 서울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1999년 가을 겸임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작품으로는 폰 알라크 주택 증축안, 일랑주택, 윌리엄스주택 증축안, 울드주택 증축안, 파주아시아출판문화센터(Team Bahn과의 공동작, 현상 설계용모작, 가작수상) 등이 있다.



폰알라크 주택

제7회 탈도시 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탈도시 주거의 일상성

현장 스케치

제7회 탈도시 주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탈도시 주거의 일상성을 주제로 서울시 은평구 기차촌 일대에 공동주택 계획을 제시하였다. 1960년대 말 기자촌들을 위해 조성된 기자촌은 맑은 자연과 소화할 수 있는 규모의 사람 동네를 찾는 도시민들을 받아들이기 알맞은 장소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주택이 들어서는 있는 대지에 새로이 40세대 내외, 단위 세대 면적 1백16㎡ (약 35평) 이내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한된 상태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하였다.

참가를 신청한 총 6백78명 중 2001년 1월 17일부터 3일간 총 1백49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작품 접수는 지방 학생을 고려하여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이루어 졌는데, 서울에서 86점, 부산 34

점, 우편 접수 29점으로 집계되었다. 마감 시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적용으로 많은 작품이 접수 창구 밖에서 되돌아가 최종 접수된 작품의 수는 작년에 미치지 못하였다.

1차 심사는 심사위원 이성관((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서해림((주)건축사사무소 힘마), 코디네이터 조용수(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서현(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7시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회 심사는 접수번호 순으로 패널을 펼쳐놓고 심사위원이 각각 미흡한 작품에 스티커를 붙

여 먼저 탈락문을 선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1회 심사결과 두 심사위원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적된 66개 작품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동시에 긍정된 33개 작품은 3회 심사 대상으로 넘겨졌다. 2회 심사에서는 한 개의 스티커가 붙은 50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 이해와 접근에 심도가 있는 작품 12개가 재선정되었다. 이 12개 작품과 1회 심사에서 선정된 33개 작품 등 총 45개 작품을 대상으로 마지막 3회 심사를 통해 당선 30개 작품이 어렵사리 선정되고, 30개 작품의 설계설명서가 심사위원에게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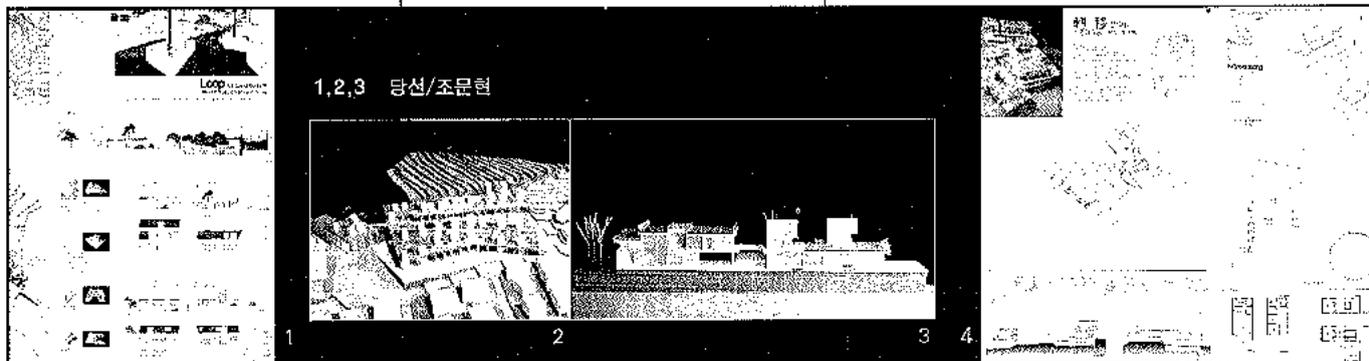
강혁진(인하대학교 대학원 건축환경디자인연구소) Two IN One
김광식(홍익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轉移(전이)
김세훈(서울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일상: 비일상적 기억을 통하여
김필수(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Read between Lines
박성식(서울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탈도시 주거의 유사-일상성(Pseudo-reality)
박종학((주)아키텍트종합건축사사무소) Sympathy
양철권(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흙이 있는 마을
조문현(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Loop for De-urbanism
차원호(국인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건축학과) Dynamic Equilibrium
최순웅(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Open Residences



권순연(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잃어버린 삶을 찾아서...
김민수(동서대학교 건설공학부 건축설계학과 3학년) 옥양의 연속선상에서
김찬기(대성건축사사무소) S-it-East
류창현(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歸家(귀가)
송성욱(울산대학교 건축공학과 2학년) Boundary Story for Reality
유영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탈도시- 이중적 요구
이은창(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樂園(낙원) 2001 Nakwon
정재성(동서대학교 건설공학부 건축설계학과 3학년) Natural Modernism
전성우(경기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 Build up the Village
황영호(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토목학과) 비일상적 이탈과 일상으로의 치환



김승수(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Mixing-neighborhood, Nature and Housing in 125m
김용하(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건축전공 2학년) Return... the Lost
김준택(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Netscape.gija-chon.seoul
김형두(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일상, 만남, 관계
이정현(대전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in Blur, out Blur, line Blur
이현아(국인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건축학과) Optical Connection
임호석(동의대학교 건축학부 3학년) Ways of Seeing
정지훈(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De-regulated Reality
최태영(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건축전공 2학년) 삶은 더딘가에...
한상국(중앙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The Garden City



1, 2, 3 당선/조문현

1

2

3

4

2월 4일 서울 본사에서 이루어진 2차 공개 심사에는 상기된 얼굴의 1차 당선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여 작가의 발표, 심사위원의 질문과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2차 심사는 패널과 설계설명서에서 읽을 수 없는 작품의 깊이를 발표자가 직접 설명하는 지리이지만 논의할 만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이 그 아쉬운 점과 훌륭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비평하기도 하여 참가자들에게 교육적 경험이 되도록 하였다. 발표가 끝나고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는 과정은 또 하나의 논쟁이었다. 8개 작품은 당선으로 쉽게 동의되었으나 2개의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해당 패널과 모형들을 펼쳐 놓고 심사장은 담배연기로 가득 찼다. 당선 리스트가 두어 번 바뀌는 진통을 겪어 한 시간 여에 걸쳐 최종 당선 10작품이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검토된 셈이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적당히 넘어가는 심사가 아닌 책임감 있는 심사를 한 심사위원 두 분에게서 참건축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우리 건축을 이끌 참가자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밝힌다.

공모전 전제로서의 탈도시는 이번으로 끝을 맺고 제8회 아이디어 공모전은 조용수(동아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에 이어 새로이 코디너이터를 맡은 서현(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와 함께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심사평

이성관/(주)간혹사사무소 한울건축 대표

이번 '탈도시 주거의 일상성' 오피스 공모전의 주제로 설정한 후 지난 여름 일행과 함께 현장 답사를 하였다. 마을 내의 여러 후포지 중에서도 최종 선정된 본 대지는 자연과 도시, 필지와 경사지, 녹지와 대지, 공동어장과 사적 대지, 기존과 신입, 단독형식과 집합형식, 산세의 좌향 등이 서로 만나면서 총돌, 융화, 교차하는 지점으로, 탈도시이면서도 일상적 삶의 현장 한기운데에 놓임으로써, 보다 많은 갈등 구조를 지나는 곳으로 여겨져 어렵지 않게 대상 대지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까다로운 위치에 주제로서 제시되는 개념들—탈도시, 일상성, 리얼리티—조차도 또한 호락호락한 것들이 아니어서 일면 부담스럽기도 하였으나 또한 응모자 입장에서는 그 만큼 열려진 상황이 주어졌 셈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출품된 작품들의 경향들은 공간의 전개방법과 개념의 접근방법으로 구분 지어 살펴 볼 수 있었다. 첫째, 공간 전개의 구성방식에서는 두 부류로 구분된다. 비교적 자체원결적인 유닛 셀(unit cell)의 반복적인 조합중심으로 대지를 점유하면서 보다 강한 기수탈도를 형성하면서 다분히 주변에 대한 배려가 약화되는 유형과, 임의적 혹은 구성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주변과 자체 내의 전략적인 여러 요구사항들을 두루 수용하면서 펼쳐지는 유형으로 대별되어 나타난다. 다음으로 작품과 주제설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두 가지 태도로 나누어진다. 첫째, 주제를 언어적 개념정립에서 시작하면서 나름의 논리로 설정한 후, 여기서 그 모든 전개의 출발점으로 삼는 접근방식. 그리고 둘째, 주제의 철저한 수용보다는 주변으로부터 요구되는 문제들을 보다 많이 해결하려는 데에 역점을 두는 접근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져 나타났다. 응모된 작품이 이 중 어떤 유형에 속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심사에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심사기준으로는 총체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의 유무, 설정된 주제의 설득력과 작품과의 관련도, 창의적 발상이나 주제해석의 참신성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였고 이런 것들을 작품의 전개과정에서 나름의 논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가는가를 선정기준의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 물론 이런 류의 설계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그 외의 일반적 중요한 덕목들—두 힘이 만나는 경계의 해석, 단지 내 또는 이웃간의 공공성과 공동성의 실천문제, 친환경의 문제, 지형과 산세, 세대당 평면구성 등등—또한 당연히 평가의 대상이었음은 물론이었다.

애초 본 공모전의 주제로서 일상성이 발제된 배경으로는, 건축에 있어서 거대담론적 이념의 도입이라든가 도식적인 개념의 설정과정들 혹은 개념 전개의 지적유희화 등으로부터 우리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의 소박한 문제로 관심의 축을 옮기고 싶어서였다. 일상적 삶에서 접하게 되는 사소한, 평범함, 단순함, 친숙함 등을 보다 깊은 상황의 시선으로 파고들어 그 속에 감추어진 소중한 가치들을 찾아 주목해 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적지 않은 경우, 일상성이란 주제를 다룸에 있어 그 단어 자체의 개념정도에 너무 많은 비중을 할애하면서 개념설정에만 임하는 경향이 여러 안에서 나타난다. 또한 일상 대 비일상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싶다. 실인즉 일상 또는 비일상이란 개념 또한 어떤 관점이나 시간 혹은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변통될 수 있는 지극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개념인데도 말이다. 따라서 지의적이고 다소 작위적인 개념설정 하에서 안들이 발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 이럴 경우엔 어쩔 수 없이 그 안이 고려해야 할 여러 덕목들이 부분적으로 누락되거나 희생되기 쉬워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 감각을 상실한 안으로 전락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 건축은 자기가 놓이는 리얼리티란 문맥에서 유리된 채 단지 지적게임의 결과물로서만 남게 될 뿐이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동시대의 여러 작가들이 동등한 기간동안 나름대로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공모전에서 심사를 맡게 된다는 것은 분명 신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응모자들의 노력과 생각들을 그 짧은 시간동안 관통하면서 비망직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간의 차이점을 공평하게 구분해 낸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하여 동료 심사위원이었던 서혜림 선생과 나는 그 한계점을 가급적 극복하려는 마음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였다.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간에 건축적으로 서 있는 지점이 달랐던 점이 이번 심사과정에서 그렇게도 고려했다. 한편 입상권에 들지 못한 참가자가 여러분과 일부 심사를 받지 못한 응모작가들에게는 프랭크 게리(F. O. Gehry)가 한 이 말을 들려주고 싶다. "Being accepted isn't everything"

4.5 당선/김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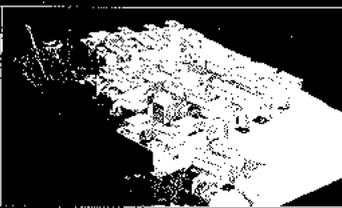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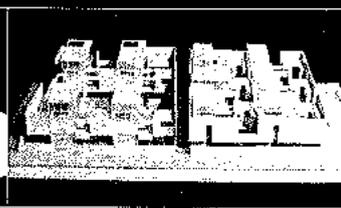


6

6.7,8 당선/김세훈



7



8

회원현황 members

회원변동사항

(2001. 1. 31. 현재)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월말 회원수	7,690	3,002		722		535		239		257		273		153		919		180		206		184		214		120		265		337		84		
회 원 수	7,675	15	2,997	4	721	1	535	0	239	0	257	0	272	1	153	0	915	3	180	0	205	1	180	4	214	0	119	1	265	0	337	0	84	0
회 원 변 동 사 양	입 회	12	0	2				4				1				2	1														2			
	제 입 회	2	0																												2			
	전 입	8	0	6		1																				1								
	부 권	0	0																															
	전 출	-16	0	-2		-1		2	-2				-2			-3	-1	-1								-1		-1						
	폐 업	-26	0	-7				-1	-1		-1		-2			-8	-1															-3		
	제 명	0	0																															
	사 망	0	0																															
등록취소	0	0																																
금월말 회원수	7,655	15	2,997	4	721	1	532	0	240	0	256	0	269	1	153	0	907	3	179	0	204	1	180	4	212	0	119	1	264	0	338	0	84	0
계	7,670	3,001		722		532		240		256		270		153		910		179		205		184		212		120		264		338		8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건축사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축사	7,655	2,997	721	532	240	256	269	153	907	179	204	180	212	119	264	338	84	
회 원	2급	15	4	1	0	0	0	1	0	3	0	1	4	0	1	0	0	
	계	7,670	3,001	722	532	240	256	270	153	910	179	205	184	212	120	264	338	84
	비율(%)	100.0	39.1	9.4	6.9	3.1	3.3	3.5	2.0	11.9	2.3	2.7	2.4	2.8	1.6	3.4	4.4	1.1
준회원	13	6	5	0	0	0	0	0	0	0	1	0	0	0	1	0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형태별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응역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5,199	2,452	19	7,670	
비율(%)	67.8	32.0	0.2	100.0	
사무소수	4,712	1,609	15	6,336	
비율(%)	74.4	25.4	0.2	100.0	